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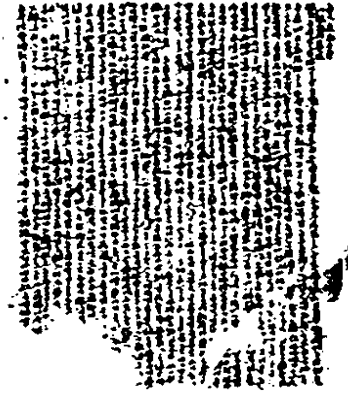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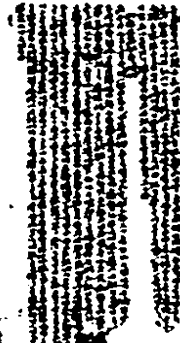
다시새기는 忠節

이탈의 獨立運動家 ⑧

國家報勳處 光復會 독립기념관 공동선정



金九 金九(1876-1949)
본명 김충현 본명 김충현 본명 김충현 본명 김충현 본명 김충현
본명 김충현 본명 김충현 본명 김충현 본명 김충현 본명 김충현
본명 김충현 본명 김충현 본명 김충현 본명 김충현 본명 김충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나의 소원은 오직 대한의 자주독립 뿐이다

國家報勳處

책 머 리 에

올해도 어김없이 3·1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77년 전에 자주와 자유와 독립을 위해 온 국민이 한 덩어리로 일어났던 독립만세 운동의 함성과 흥분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은 한국인의 지성과 용기와 조직력을 십분 발휘한 사건으로 많은 외국인들을 놀라게 하였다. 이번 운동은 한국에서의 일본의 통치가 정의를 외면하고 얼마나 불합리하고 잔악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나의 눈으로 현장을 보지 않았더라면 나는 감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경찰과 군인들은 늙은이와 어린 아이들까지 체포해서 잔악하게 매질을 했다. 겨우 열살 정도의 어린 소녀들과 여학생들마저 자기 나라의 자유를 외치고 일본이 엄숙하게 약속했던 독립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다는 죄로 수치스럽게 대우를 받았으며 심한 육체적 고문을 당했다.”

이 글은 1919년 3월 북경주재 국제개혁위원회 사무국장 이던 에드워드 드윙(Edward W.Thwing) 목사가 한국의 만세현장을 목격하고 발표한 성명서 중 일부입니다.

이렇게 뜨겁게 타오르던 민족혼의 열기가 오늘에 와서 한낱 지나간 날의 영화장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서 멀어져 간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국민적인 총화가 부족한 시점에서, 일본은 군사대국화로 과거의 잘못을 재현하려 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도의 영유권까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잘못된 과거의 역사속에서 새로운 교훈을 찾아내야 할 것이며, 자신의 안일과 가정의 평화로 뒤로 한 채, 나라를 찾기 위해서 혼신의 정열을 불태웠던 애국선열의 위대한 정신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보훈처에서는 지난 92년부터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매월 한 분씩 선정하여 우리 모두가 이분들의 충절과 희생정신을 다시한번 되새겨보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였으며, 그 중 여섯 분씩을 단행본에 수록하여 지금까지 총 7권의 소책자를 간행 보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 3·1절에는 95년 7월부터 12월까지 선정된 이달의 독립운동가 6분의 공적을 모아 여덟 번째의 소책자를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책자가 애국선열들의 업적을 되새기고 이를 본받아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끝으로 이 책자가 나오기까지 힘써주신 광복회와 독립기념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996년 3월 1일

국가보훈처장 黃 昌 平

951.61092

7427 0

0.8

3

차 례

이달의 獨立運動家(1995. 7~12월)

7월	: 海山	전수용(全垂鏞)	선생	4
8월	: 白凡	김 구(金 九)	선생	23
9월	: 東岩	차이석(車利錫)	선생	42
10월	: 雲崗	이강년(李康季)	선생	54
11월	: 己千	이진룡(李鎭龍)	선생	68
12월	: 忠正公	조병세(趙秉世)	선생	83

附 錄

• 이달의 獨立運動家 (1992~1996) / 97

• 표지사진 : 「민족정기 바로세우기 캠페인」의 백범 김구 선생

7월의 독립운동가



海山 전수용(全垂鏞) 선생

1879. 10. 18(음)~1910. 7. 18(음)

- 1908. 대동창의단 조직 의병장으로 활동
- 1910. 대구감옥에서 사형 순국
- 1962. 건국훈장 대통령장 추서

사람이란 어차피 한 번 죽고 마는것이니 왜놈과 가까이 해서 죽게 될진데 어찌 의병에 충실하다 죽어서 끝내 좋은 이름을 차지하는 것만 하겠느냐.

於彼於此 期爲一死乃己
則與其役於倭類而致死
曷若役義而死
死不失令名哉

「全海山陣中日記」(1908) 중에서

1879년 10월 18일(음) 전라북도 임실군 남면 국화촌菊
花村 호전동狐田洞에서 부친 전병국全炳國과 모친 경주
김씨 사이에서 2남 2녀 중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본관은
천안天安이며 휘諱는 기홍基泓, 자字는 수용垂鏞, 호號는
해산海山이다. 선생의 가문은 양반이었으나 조선시대 계유
정란꽃西靖難(1453)이 일어나자 전라도 진안에 내려와 정
착하였고 그 이후 수대에 걸쳐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고

향반으로 남아 빈한한 가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선생은 불의를 보면 의기가 북받쳐 분개하는 마음이 남달리 강하였으며,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경家耕에 종사하는 한편, 당천唐川 이한용李漢龍 문하에서 학문을 틈틈히 연마해 사장류詞章類(詩歌와 文章)의 학문에 영특함을 보여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이한용은 영남의 거유巨儒 곽종석郭鍾錫의 문인으로 그 부근 고을에 널리 알려진 학자였다. 그가 인근의 양반 자제들을 모아 교육을 시키자 선생도 그 문하에 출입하여 학문을 닦고 원근의 유학자들과 교류하였다.

유학의 경전 중에서도 특히 심취했던 것은 의리와 명분을 양대 지주로 하는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이었으며 월남망국사越南亡國史와 같은 외국 역사와 관련된 사학史學에도 관심을 가졌다.

선생은 성장하면서 학식과 견문을 넓히기 위해 호남 각지를 두루 여행하였는데 이때 호남의 명유지사들인 기우만奇宇萬·기삼연奇參衍·김영엽金永燁·오성술吳聖述·고광순高光洵·오준선吳駿善 등과 교류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날로 기울어가던 국운을 바로잡기 위해 구국의 방책을 모색하는 등 학문과 시국에 대한 안목을 넓히었다.

을사조약 후 태인에서 거의하다

1903년 한창 열혈의 기질이 발하던 청년시절에 절의로 이름높던 선비들인 송병선·기우만과 면암 최익현 등이

인근 마을인 익산군 임피의 낙영당樂英堂에서 회동, 강회를 베풀때 동향인 이석용李錫庸과 함께 참가하여 선비들의 우국충정에 어린 강연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선생은 이러한 견문과 학식을 바탕으로 하여 사장류의 박학한 지식과 춘추대의春秋大義 정신에 입각한 실천 유학자로서 성숙하였다.

이 당시 최익현은 일제가 무력과 강압에 의해 매수한 대신을 앞세워 이른바 을사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보자 곧 창의토전소倡義討戰疏를 올려 거의할 뜻을 밝히고 호남 유림지사와 문하생들을 규합하여 1906년 6월 태인 무성서원武城書院에서 창의하였다.

이때 선생은 이석용과 함께 태인에 가서 최익현을 만났으나 최익현의 의진이 전력과 전술면에서 일군과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나 빈약함을 알고 실망을 느껴 귀향하고 말았다. 이후 의병의 거두 최익현은 정읍, 순창, 남원 등지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일군에 붙잡히어 대마도에서 순국(1907. 1)하였다.

그러나 위정척사의 거두로서 그 때까지 항일운동의 선봉에 서서 백성으로부터 추앙받던 최익현의 창의는 선생으로 하여금 의병항쟁에 투신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창의동맹단의 참모로 본격적인 의병대열에 참가하다

1907년 9월 기삼연·김용구 등이 전남 장성의 수연산隨

緣山에서 호남창의회맹소湖南倡義會盟所를 조직하자 선생은 이 회맹소의 종사從事로 발탁되어 의병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맺었으나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단지 종사라는 직책만 수행하였다. 이 회맹소는 1908년 2월 공음孔陰 전투에서 김용구 의병부대가 패전한 이후 사실상 활동이 중지되고 말았다. 이즈음 전북 임실 등지에서 이석용李錫庸이 창의동맹단倡義同盟團을 조직하자 선생은 동단에 합류, 참모로 활동하게 됨으로서 본격적인 의병항쟁 대열에 참가하게 되었다.

창의동맹단의 진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倡義同盟團 〉

대 장	: 이석용李錫庸		
선 봉	: 박만화朴萬華	송판구宋判九	최덕일崔德逸
중 군	: 여운서呂雲瑞	김성학金成學	
후 군	: 김사범金士範	윤명선尹明善	김성학金成鶴
참 모	: 전해산奎海山	한사국韓士國	이광삼李光三
총 지 휘	: 박갑쇠朴甲釧	곽자의郭子儀	임종문林宗文
연 락	: 홍윤무洪允武	박성무朴成武	윤병준尹秉俊
도로부장	: 김사원金士元	김공실金公實	김성울金成慄
보 급	: 한규정韓圭井	박금동朴金東	박문국朴文局
군 량	: 오기열吳琦烈	조영국趙榮國	김학문金學文

창의동맹단은 진안과 임실을 중심으로 전주, 장수, 무주, 남원, 순창, 구례, 곡성 등 호남 동부지역 9개 군에서 활동하였다. 이들은 도처에서 경찰서, 헌병분파소, 수비대

등의 건물을 습격하기도 하고 일군 ‘토벌대’ 와도 여러 차례 격전을 벌이는 등 맹활약을 하였다. 그러나 1908년 3월 남원 사촌沙村에서 일군과의 전투에서 패한데 이어 4월 진안과 임실의 경계인 대웅大熊[大雲峙] 전투에서의 연패로 의진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자, 이에 선생은 남쪽으로 내려갔으며 기삼연 의병장이 전사한 뒤 장성부근에서 활동 중이던 김태원과 합류하기로 하고 이석용과 결별하였다. 그러나 선생이 장성에서 도착했을 때는 이미 김태원이 광주 어등산魚等山에서 일본군의 흉탄에 맞아 순국(1908. 4. 25)한 후였다.

성재에 이어 김태원 의병장 마저 순국하게 되자 김태원 의진의 선봉장이었던 조경환曹京煥이 의진의 일부를 거두어 진세陣勢를 확장하고 있었고 오성술吳聖述이 흩어진 의병을 규합, 재기를 도모하고 있었다. 선생이 오성술의 의진에 참여하여 광주, 나주 등지에서 의병을 모집, 일시적으로 의진을 정비하고 있을 때 8척의 헌헌장부軒軒丈夫인 정원집鄭元執이 광무황제의 조칙을 휴대하고 수십 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선생을 찾아왔다.

정원집은 시위대 참위 출신으로 일찍이 을사늑결을 규탄하다가 국사범國事犯으로 몰려 전남 지도智島에 유배되었다가 의병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유배지를 탈출했던 것이다.

의병대장으로 대동창의단을 조직, 일군경과 70여 차례 교전하다

선생은 오성술이 강권強勸해 온 의장義將을 고사해 오던 터였지만 정원집이 이끄는 해산 군인들이 합세, 의병을 지도해 달라는 요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선생은 의병대장에 취임하여 1908년 7월 25일(음)에 대동창의단大東倡義團을 조직하였다.

그 조직의 진용은 다음과 같다.

〈 大東倡義團 〉

大東義兵大將 : 전기홍全基泓(전해산)

先鋒長 : 정원집鄭元執

中軍長 : 김원범金元範

後軍長 : 윤동수尹東秀

護軍長 : 박영근朴永根

都砲長 : 이범진李凡振

斥候長 : 임장택林長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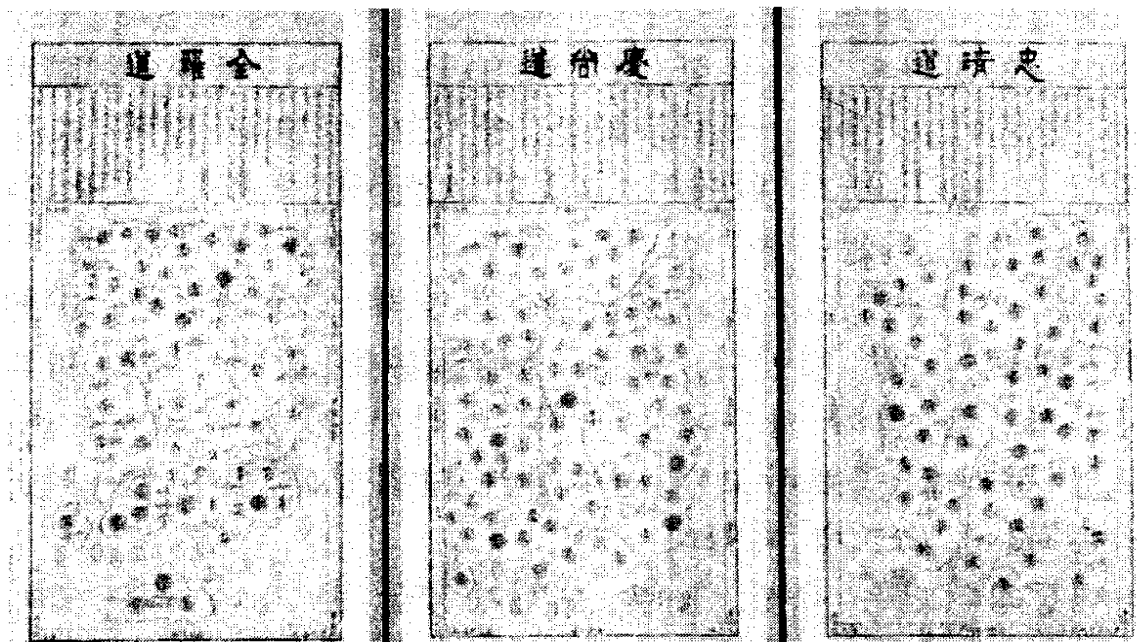
선생은 “왜노倭奴는 우리나라 신민의 불공대천의 원수이다. 임진란의 화 또한 그러하거니와 을미 시국弑國母는 물론이고 우리 종사宗社를 망치고 인류를 장차 모두 죽일 것이니 누가 앞서서 그들의 칼날에 죽음을 청할 것이오. 만일 하늘이 이 나라를 도우고 조종을 돌보아 이적을 소탕한다면 그 날 우리들은 마땅히 중흥제일공신中興第一功臣이 될 것이다. 일체 폭락暴掠을 하지 말고 힘써 나라회복을 위해 싸우다가 죽자.” 라 맹서하여 의병을 일으킨 동기를 공표하고 의병항전의 당위성을 밝힌 후 적을 치는 길에 오르게 되었다.

대동창의단은 유생, 농민, 대한제국군 출신, 산포수 출신으로 지도부를 구성하였다. 동단의 구성을 보면 김태원의

잔류병을 주축으로 해서 인근에서 모집된 농민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의진의 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포수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대동창의단의 병편제兵編制는 단일지휘계통을 갖추고 병을 기간으로 해서 십장什長을 두고, 십장 위에는 도십장都什長을 도십장 위에는 도포都砲를 도포 위에는 선봉先鋒을 그리고 선봉 위에는 대장大將을 두었다.

대동창의단은 1908년 8월 의병항전을 개시한 이래 다음 해 5월 의진이 해체될 때까지 10여 개월 동안 일제 군경과 70여 차례의 교전을 벌였다. 동단의 활동 지역은 호남 서남부의 곡창지대인 함평, 나주, 영광, 장성, 광주 등지였고 그 밖에도 장흥, 순창, 무안, 고창, 화순, 담양 등지에 이르기까지 활동영역으로 삼았다.



의병 작전용 지도(8극 병풍 중 일부임)

선생의 의진은 단독으로 전투를 수행하는 것 외에도 부근에서 활약하던 심남일·조경환·김영엽·김원국·박경욱 등의 의병부대와 자주 연합작전을 펼쳤다.

선생은 신속한 부대이동과 작전의 기동성을 살리기 위해 부장급의 간부들로 하여금 각기 40~100여 명의 의병을 통솔케 하였으며 자신은 평소 100~150여 명의 부하들만 거느리고 작전을 수행하였다. 총 500여 명에 달하던 대동창의단의 의병은 평소 소부대 단위로 나누어 통상적인 활동을 하다가 필요시에는 합동작전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소규모 병력으로 유격전을 전개하다

선생은 의병들이 대부분 마을 주민들이었기 때문에 식별되면 의병들의 집은 물론이고 마을 전체가 일군의 보복대상일 수밖에 없고, 훈련되지 않은 의병으로 일군과 정면 대결할 수 없다는 점 등 때문에 소규모의 병력으로 야간에 이동하며 투쟁하는 게릴라식 전법을 사용하였다. 변복한 종사나 군사들을 일군의 헌병분견소, 경찰서, 수비대의 배치지역에 은밀히 파견하여 일군의 이동상황을 미리 탐지하거나 마을 주민의 신고, 마을 주점을 거점으로 한 정보, 면장이나, 동장을 통해서 얻은 적의 이동상황을 종합해서 은밀한 곳에 매복하여 적을 기습하였다.

또한 밀정들에 의해 의병진의 소재가 파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병들이 유진留陣하는 곳에서는 마을 어귀에 파수를 세우고 종사원들에게 줄을 세워 계속 말을

전달하게 하는 연환식連還式 전달제도를 운영하였다.

의병의 기본화기는 화승총火繩銃이었다. 이 총은 화승에 불을 붙이고 다른 한손으로 철환鐵丸과 화약을 비벼 넣어 사격해야 하며 비가 올 때는 쓸 수 없었고 더욱이 유효사거리는 20보(약 12미터)에 불과하였다. 신식무기를 휴대한 일군과 대적하기 위해 의병진에서는 화력의 열세를 극복하고자 화승총을 뇌관식으로 개조한 천보총千步銃을 개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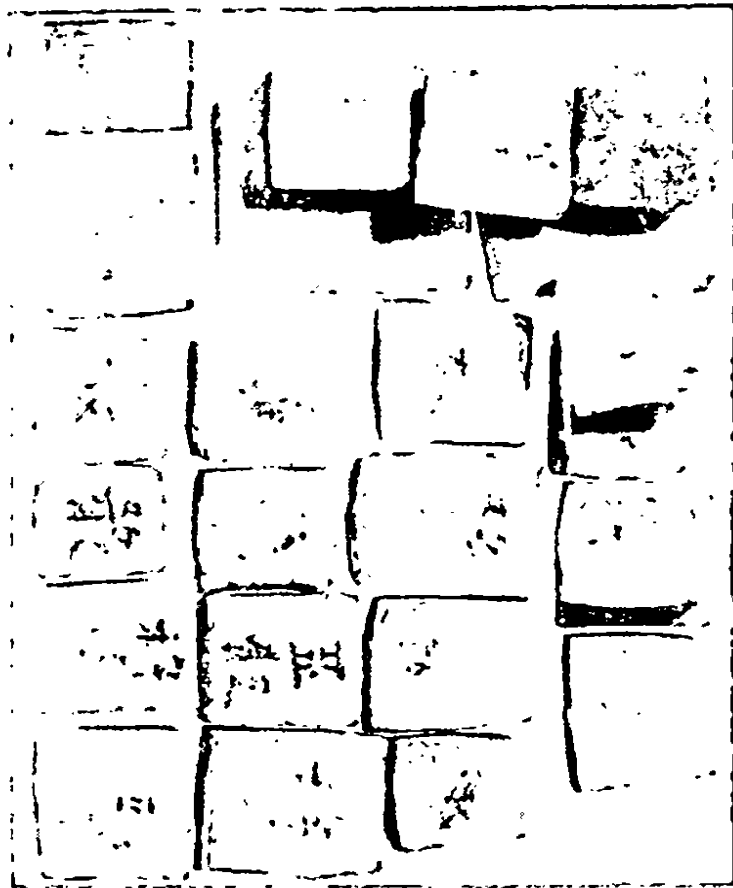
더욱이 이 천보총을 일부 진에서는 자체 생산하거나 수리할 수 있었고 총탄 또한 구식 납철환을 개량하여 보룡철환寶龍鐵丸이라는 철탄을 자체적으로 생산하였다. 화승총, 개량 화승총인 천보총, 개량탄환, 화약 이외에도 일군에서 노획한 신식총을 휴대하고 있었는데 그 수요는 극히 적었다.

군수는 무기보다 더 빈약하였는데 주로 산속에서 사냥이나 야생 과실류를 채취하기도 했지만 주된 것은 주민들로부터 지급받았다. 마을 사람들이 자진해서 의병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진에서 필요한 의복, 짚신, 명주베, 미곡, 나무, 술, 담배 등을 조달하였으며 또한 뜻있는 인사들은 진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편으로 보내는 음식(떡, 고기, 과일, 술)과 종이(격문 작성용) 등도 있었다.

군량미는 의병장이 직접 마을마다 배정량을 할당하여 지역 부호들을 중심으로 도조賭租(남의 논밭을 빌려서 부치고 그 稅로 해마다 무는 벼)형태로 징발하였으며 면장이나 동장을 시켜 이 일을 담당케 했다.

열악한 조건속에서 호남지역 의병투쟁을 전개하다

선생은 훈련되지 않은 의병, 빈약한 무기와 군수에도 불구하고 장성, 영광, 나주, 부안, 함평 등 당시 호남 24개 군 가운데 중서부 지방을 완전 장악했으며, 일제가 무역이라는 미명 아래 미곡수탈을 자행하여 지역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광 서해를 거쳐 부안에까지 진입하여 서해를 경략, 장차 이들을 없애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의병 신표(信標)

(암호용으로 사용하던 바가지 신표)

이렇게 호남 특히 전남 중서부 지방에 걸쳐 해안과 내륙을 두루 걸쳐 활약했던 선생은 스스로 자호自號하여 해산海山이라 불렀다.

선생은 정규군으로 무장한 일군에 대해 유격전술을 벌였는데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기 위해 의진을 주로 영광 불갑산과 함평 석문내산 일대에 주둔시켜 작전을 전개하였다. 불갑산은 서남부의 고지대이며 석문내산은 장성, 광주, 함평, 나주 등지의 평야로 둘러싸여 있는 유리한 지형적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곳이다. 이 두 지역을 근거지로 함으로써 선생의 의진은 유격전을 수행하면서 군수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었다.

일군과의 주요 전투를 보면 우선 전남 영광 불갑산佛甲山전투 등을 들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08년 7월 25일(음) 의진들이 불갑산에 이르렀을 때 삼시간에 일군에 의해 포위당하자 선봉장이 용감히 앞장서서 천보총을 연달아 발사하여 수 명의 적을 사살하고 곧이어 매미재蟬峙에 구멍을 파고 매복해 있다가 일군의 기마병을 유인 사살하고 무기를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동년 9월 29일 아침에 행군하여 나주 석문동石門洞에 이르렀을 때 조경환曹京煥이 이 근방에 유진하여 순사대장 정득주鄭得柱를 죽이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일군이 즉시 출동하여 거문돌黑石(검은돌) 윗 마을에 불을 지르고 마을 사람들을 마구 죽이는 등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분개하여 의진을 인근 감도리甘道里로 이동시켜 적이 들어올 수 있는 주요지점에 병력을

매복 시킨 후 일군들이 사격권내에 들어오자 일제히 사격을 개시하여 수 명의 적을 사살하였다.

그러나 우세한 병력과 화력을 앞세운 일본군은 선생의 의진을 포위하여 한때 위기에 처했으나 조경환의 의진이 일본군의 포위망을 뚫고 들어와 지원사격을 가하게 되자 적은 퇴각하고 말았다. 이 전투에서 아군의 사상자는 경미하였으나 수백 명의 군사가 흩어지고 수십 명 밖에 남지 않게 되어 전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에 선생은 의진을 재 정비한 후 행군하여 유정柳汀에서 유숙하였다.

10월 흩어진 군대를 모으고 장성의 김기순金基淳과 합진할 것을 꾀하였으나, 서로 군사와 무기를 빌릴 것을 주장하여 합의하지 못하고 헤어졌다. 그 이후 구룡촌九龍村, 대곡大谷 등을 행군하여 10월 16일 영사재永思齋에 이르러 이곳에서 광주로부터 파견된 수백 명의 적과 교전하였으며 그 후 순창, 담양 등을 거쳐 광주 대치大峙에서 다시 적과 접전하여 많은 적을 사살하고 총과 탄환, 군복 등을 노획하였다. 그리고 주흥동朱興洞에 이르러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을 만나 큰 감명을 받고 곧 순창 내동內洞으로 가서 적과 교전하였으나 적이 불을 질러 공격하는 바람에 후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다시 함평 유덕산有德山으로 가서 참봉 김돈金燾을 만나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고막원古幕院의 적 병참을 포위 공격하여 적을 몇 명 사살하였으나 선봉장 정원집이 크게 부상을 당하고 말았다. 그 후 인근 민가에 약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정성을 다해 치료하였으나 이듬해 2월 15일(음)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호남동의단을 조직, 호남의병의 정신적 지주로 활동하다

대동창의단의 활동이 활발해질 무렵인 1908년 겨울에 선생은 심남일·김영엽·오성술 등의 의병장과 함께 수차에 걸쳐 호남의병 연합체 결성을 상의한 끝에 호남동의단 湖南同義團을 조직하였다. 여기에서 선생은 여러 의병장들의 추대를 받아 동단의 의병대장에 선임되었다.

그 조직과 편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 湖南同義團 〉

대동의병대장 : 전기홍全基泓(전해산)

제1진 의병장 : 심남일沈南一 제2진 의병장 : 박도경朴道京

제3진 의병장 : 김영엽金永燁 제4진 의병장 : 조대천曹大川

제5진 의병장 : 신화산愼華山 제6진 의병장 : 이순식李淳植

제7진 의병장 : 이기손李起巽 제8진 의병장 : 오성술吳聖述

제9진 의병장 : 권택權澤 제10진 의병장 : 안덕봉安德峰

이 호남동의단의 의병장들이 활동했던 지역은 전라남북도 전역을 망라하고 있었으며 선생은 호남의병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활동하였다.

선생은 호남지역에서 의진을 규합하여 일군과 투쟁을 벌이는 한편 가림주구를 일삼던 지방관, 일본의 위세를 믿고 횡포하던 친일관리, 일진회원, 친일부호, 헌병보조원, 경찰

등의 횡포를 징계했고 세금 징수원을 위협하여 친일 내각의 납세를 거부하게 하는 대신에 면장이나 동장을 시켜 마을마다 군수전軍需錢을 배정하되 도세로서 공평하게 가산에 따라 분배, 징수했고 해산 군인을 방자한 무뢰배, 가짜 의병을 칭하고 살인, 약탈, 강간, 방화를 자행하던 자들을 처단함으로써 일시적이거나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선생은 수차례에 걸쳐 헌병보조원, 순경, 일진회원, 세금징수원, 친일부호, 가짜 의병들을 상대로 경계하는 격문을 보냈는데 그 중 주된 것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榮山浦 憲兵分隊長 大原壽四郎」에게 보낸 격문
일본 헌병이나 경찰수비대 및 이들을 따라 다니면서 의병토벌에 동원되거나 의병진의 구성, 전력, 이동상황 등의 정보를 탐지하였던 한인 무뢰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줌
2. 「國漢文檄論歌」의 격문
친일배 특히 헌병보조원들이 일본군의 금료에 눈이 어두워 동족과 국가를 배신하면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현실을 월남국이 패망한 후의 역사적 정황을 들어서 경계함
3. 「檄該州郡反黨文」의 격문
일본인들에 협조하는 친일배들을 오랑캐 무리로 규정하고 한국의 지배를 정당화 하려는 일본인과 토왜土

倭들을 제거하기 위해 창의했다는 의거의 정당성을 천명함

4. 「揭示稅務領收者流」의 격문

친일행위의 다른 형태인 세무공무원들에게 보내는 내용으로서 명분없는 세금징수로 백성들의 생활을 도탄에 빠트리고 있는 것에 분개해서 일본에 협조하지 말고 그 직職을 버리라고 권함

5. 「揭示該郡大小民人」의 격문

좁도둑들이 의병을 칭하고 의거를 빙자하여 민간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지대하고 심지어는 부녀자들을 강간하여 원성이 높으므로 이들을 의진에게 연락하거나 압송하면 군률軍律로서 처단하겠음을 고을 주민들에게 알림

이상의 격문에서와 같이 친일분자들인 헌병보조원, 일진회원, 경찰, 세금징수원, 친일부호 등을 토왜土倭로 규정하고 회유하기도 위협도 하여 그 직을 그만 두도록 하거나 가산을 몰수하고 체포해서 다스리기도 했으며 심한 자들은 총살로서 징계하였다.

한편 일제는 러일전쟁에 동원하였던 일군 제12여단 병력을 전쟁 후에도 한국에 상주시키면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파견」을 구실로 광무황제를 강제 퇴위시키고 이른바 「한일신협약」이라는 정미7조약을 체결하여 차관정치를 실시하여 일본인 관리를 임명하면서 한국 군

대마저 해산시키고 군부대신 훈령을 빙자해서 「총포 및 화약 단속법」을 만들어 그 시행 전반을 일본군 수비대 사령관에 일임시켜 화기류를 강제 수리했고 「성벽처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전국 시, 군, 읍, 면에 산재된 성벽을 파괴함으로써 한국인들의 항일투쟁 거점을 제거했다.

1908년 일제는 일본군, 헌병보조원, 경찰 등을 포함하여 11,000여 명의 병력으로 의병을 토벌하더니 1909년에는 일본 본토에서 임시 파견된 약 2개 여단의 병력을 더 투입하고 4~5월 사이에 한국 주둔 헌병대의 천안 및 영산포 분견대의 관할하에 45개소의 임시파견소를 증설하는 한편 43,000여 명의 한인 무뢰배들을 헌병보조원이라 해서 분산 배치시키고 의병토벌과 정보수집에 주력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의병들의 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동년 3월 영광 오동梧洞과 덕흥德興 전투에서 일군 수비대와 헌병대에 연패를 당한 뒤에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겨우 탈출하였으나 의병의 사기는 급격히 저하되어 거의 전투능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더욱이 5월에 들어서자 농번기로 인해 주변 농민들의 참여가 부진해져 의병의 활동은 더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선생은 최후의 방편으로 부대이동을 결심하고 새로운 항전기지를 독립운동가들이 무장활동을 전개하고 있던 만주로 정하고 부하들에게 북상하자고 권고하였으나 가족의 생계문제 등 많은 난관이 있어 동의하는 자가 없었다. 더구나 순종황제의 의병 해산령이 당도하자 선생은 사세가 다했음을 판단하고 마침내 의병을 해산하기로 결심하여 동년 5월 영광 오동촌에서 부대의 지휘권을 호군장 박

영근朴永根에게 넘겨주고 선생은 후사를 도모하고자 했다.
 이때 선생은 의진을 해산하는 서글픈 심정을 다음과 같은 시로써 달랬다.

호남 삼월에 오얏꽃 날리는데
 위국서생爲國書生이 갑옷을 벗는다
 산새도 시사時事가는줄 아는지
 밤새워 나를 불러 불여귀를 외우네

일제에 피체되어 교수형으로 순국

일제는 선생의 행방을 몰라 백방으로 탐문하는 한편 현상금을 걸기도 하였다. 이때 선생의 의진에 출입하던 조두환曹斗煥이란 자가 영산포 헌병대 통역 김현규金顯圭에게 밀고하여 남원 고래산古萊山에서 서당을 열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지 수개월 만에 일군 수십 명에 의해 붙잡히고 말았다.

선생은 조금도 동요하는 기색이 없이 일군들에게 웃으면서 “오늘이 있을 것을 이미 각오하였다. 죽는 것은 거의 擧義하던 날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다.” 고 태연하게 말한 후 “노부모와 약한 처가 의지할 곳이 없으니 만나보고 떠나는 인사를 하겠다.” 고 하면서 부모를 만나 인사를 올리고 부인에게 “지금 내가 떠나면 돌아오지 못하니 부모님을 잘 봉양하기 바란다.” 는 한마디를 남기고 영산포 일

군 헌병 분견대에 구금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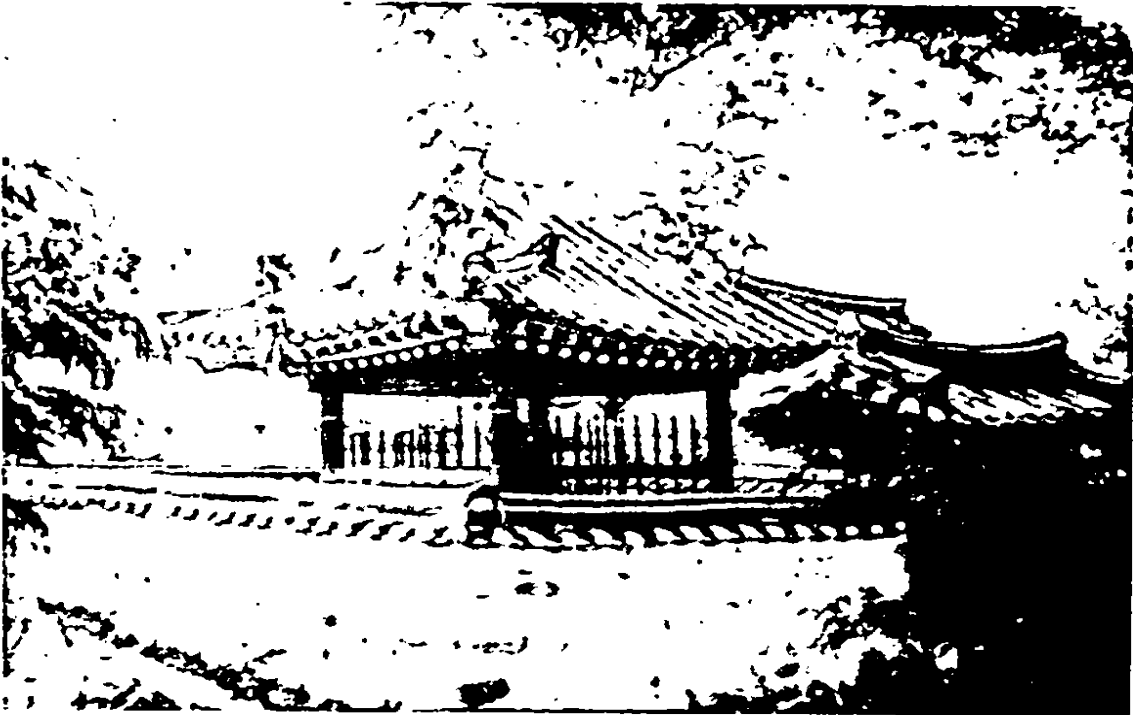
선생은 일군에 붙잡혀온 이후 온갖 감언이설로 귀화할 것을 종용받았으나 끝내 굴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우국시를 남겼다.

“서생이 무슨 일로 갑옷을 입었나
 본래 세운 뜻이 이처럼 틀려지니 한숨만 나오고
 조정에서 날뛰는 꿀 통곡하겠네
 바다 건너 들어온 적 차마 말도 못하겠소
 대낮에 소리 삼키고 강물이 멀어지고
 푸른 하늘도 오염하며 실버들에 비 뿌리고
 이제는 영산강으로 다시 못가리니
 두견새 되어 피눈물 흘리며 돌아 갈꺼나.”

1910년 6월 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사형을 언도받은 후 대구 감옥소에 이감되어 대구공소원과 고등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고 말았다. 박영근朴永根·심남일沈南一·오성술吳聖述·강무경姜武景 등과 함께 7월 18일(음) 교수형으로 순국했다.

선생이 순국하자 그 시신을 선생의 4촌형 기현基顯이 운구해 와서 장례를 치루었는데 상여가 고택 앞으로 흐르는 시내를 건너자 선생의 부인 김해金海 김씨는 집으로 돌아와서 극약을 마시고 자결함에 상여가 다시 돌아와서 쌍상여로 장례를 치렀다고 하니 선생의 절개와 부인의 지조는 물질문명을 구가하는 현대인들에게 충신열녀忠臣烈女の 귀감이 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추모비각(전북 장수군 번암면 노허리)

8월의 독립운동가



白凡 김 구(金九) 선생

1876. 7. 11(음) ~ 1949. 6. 26

- 1908. 신민회 가입 활동
- 1919. 상해로 망명하여 1945년까지
임시정부 국무령 역임
- 1930. 한인 애국단 조직, 의열활동 지원
- 1962.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서

다시한번 마음을 진정하고 반성함으로써 냉정한 이성을 회복하여 한결같은 민족적 양심으로 정성 단결하여 다같이 자주통일의 길로 총진군 할 수 있는 날에 비로소 이 겨레의 앞에는 통일과 자유의 서광이 비칠것이다.

「民聲」誌(1949. 7)에서

한말·일제하를 거쳐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기까지 우리 민족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의 한 분은 김구 선생이시다. 선생은 한말 젊은 시절에는 '국모'를 살해한 원수를 갚는다 하여 일본인 장교를 처단한 적이 있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급선무라 하여 학교를 세우는 등 애국계몽운동을 벌였으며,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신민회 운동을 통하여 동지들과 함께 쓰러져 가는 나라를 회생回生시키기 위한 방도를 강구하였으며, 나라가 망하자 망명의 길에 올라 27년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항일민족 독립운동을 최후까지 끌고 갔던 인내와 투지의

인물이었으며, 광복이후에는 강대국의 신탁 통치안에 맞서 싸워 이를 관철하였고, 남북이 각각 단독정부를 획책하자 남북협상을 통해 조국의 완전자주 통일독립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다 흥한의 총탄에 쓰러진 민족의 영원한 스승이요, 지도자이시다.

1876년 7월 11일(음) 황해도 해주海州 백운방白雲坊 텃골基洞에서 부친 김순영金淳永과 모친 현풍곽씨玄風郭氏 낙원樂園사이에서 외아들로 태어났다. 본관은 안동安東이며 이명으로 창암昌巖, 창수昌洙, 두래斗來, 구龜, 구九, 자는 연상蓮上, 연하蓮下 호는 백범白凡이다.

선생의 가문은 경순왕의 자손으로서 김자점金自點의 난으로 멸문지화滅門之禍를 당하게 되자 서울 부근에 이사하였다가 다시 황해도 해주로 이주, 양반의 신분을 감춘 채 11대에 걸쳐 그곳에서 정착하게 되었다.

선생의 부친은 가난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존심과 저항정신의 소유자였고 어머니는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한번도 자세를 흐트린 적이 없는 강한 신념과 인내심을 지닌 대표적인 한국의 어머니였다.

이러한 가정에서 태어난 선생은 선천적으로 강인한 체질과 대담 솔직한 성격이었으나 친한 말 동무나 같이 놀아줄 친구가 없다는 외로움과 가난이라는 굴레는 훗날 과묵한 성격을 형성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1879년(4세)에 당시 열에 아홉은 사망하였다는 천연두를 앓았으나 천행으로 목숨을 건지었으며 1884년 9세가 되던 해에 비로소 찌들대로 찌든 가난과 양반들의 속박밑에서 국문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과거에 급제하여 진사가 되는

길만이 양반들로부터 모욕과 천대, 멸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여 사랑채를 서당으로 만들고 이생원李生員을 초빙하여 공부를 시작하였다.

16세 때에 당시唐詩, 대학大學, 과문科文을 익혀 17세(1892)가 되던 해에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당시 매관매직으로 타락한 과거에 실망을 느꼈다. 이후 풍수, 관상에 관한 책과 손무자孫武子, 오기자吳起子, 육도六韜, 삼략三略 등의 병서를 섭렵했다.

이듬해(1893) 동학에 입도하여 황해도 도유사都有司의 한사람으로 뽑혔으며 1894년 충북 보은에서 최시형 대수주大首主를 만나 팔봉도소접주八峰都所接主란 첩지를 받고 동년 9월 탐관오리의 척결과 척양척왜斥洋斥倭의 기치 아래 동학군의 선봉장으로서 병사를 지휘하여 해주성海州城을 공략, 탐관오리들을 추방하려 했으나 관군에게 대패하고 말았다.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여 국가에 헌신할 것을 결심

1895년 동학의 기강이 점점 무너져 규율을 잃고 백성들의 원망을 사게 되자 선생은 연소의 몸으로 이를 수습하기 어려움을 깨닫고 신천군에 사는 진사 안태훈을 찾아가 몸을 의탁하였다. 당시 그의 아들 안중근은 16세의 어린 나이로 부친을 따라 동학군 토벌에 전념하고 있었으니 두 사람의 만남은 매우 미묘한 것이었으나 나라를 위하는 마음은 같았다.

이곳에서 당시 명망이 높은 해서海西 거유巨儒 고능선高能善의 지도로 한학을 배웠다. 하루는 고 선생이 말씀하기를 “예로부터 흥해 보지 않은 나라도 없고 망해 보지 않은 나라도 없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는데는 거룩하게 망하는 것이 있고 더럽게 망하는 것이 있다. 의義로써 싸우다가 힘이 다하여 망하는 것은 거룩하게 망하는 것이요. 또 백성이 여러 패로 갈려서 한 편은 이 나라에 붙고 한 편은 저 나라에 붙어서 망하는 것은 더러운 것이다. 이제 왜의 세력이 쫓겨내까지 침입하여 마음대로 하고있으니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일사보국一死保國하는 길밖에 없다.”라 하며 비감해 하였다.

이에 선생도 비분에 못이겨 “망하는 나라를 망하지 않도록 불들 도리는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 고 선생은 “청국이 갑오싸움에 진 원수를 반드시 갚으려 할 것이니 우리 중에 상당한 사람이 그 나라에 가서 국정을 조사하고 그 나라 인물과도 사귀어 두었다가 뒷날 기회가 오거든 서로 응할 준비를 하여 두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니 선생도 이에 동감을 표시하고 청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였다.

이리하여 선생은 하직 인사차 안 진사에게 들렀다가 그곳에서 만난 김형진金亨鎭과 같이 평양, 함흥, 갑산을 지나 압록강 기슭을 돌아 임강, 환인을 거쳐 관전에서 임경업 장군의 비각을 보고 삼도구에 다달아 그곳에서 300여 명의 의병을 지휘하고 있던 의병장 김이언金利彦 의진에 가담하여 활동하였다. 선생은 김이언 의병진의 소속으로 1895년 동짓달 초에 고산리高山里 승리의 여세를 몰아 강

계江界를 공격하였으나 실패하게 되자 할 수 없이 고향을 향하여 귀국길에 올랐다.

일본중위 土田讓亮을 국모시해죄로 처단하다

1895년 일제가 궁궐을 침입하여 국모를 시해한 을미사변 이후로 한민족의 분노는 전국적인 의병항쟁으로 분출되었고, 을미사변에 뒤이은 김홍집 내각의 단발령으로 의병항쟁은 더욱 거세게 불타 오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선생은 한반도를 둘러싼 정국의 변화를 관망하기로 하고 안악으로 되돌아 오던 중에 1896년 2월에 치하포 주막에서 변복한 일본인 土田讓亮을 만나게 되었다.

보통 무역이나 장사를 하는 일본인 같으면 이렇게 변복하고 다닐 까닭이 없으니 이는 필시 국모國母를 시해한 삼포오루三浦梧樓 놈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의 일당일 것이요, 설사 이도 저도 아니면 우리 국가 민족에 독균임이 분명하니 저놈 한놈을 죽여서라도 국가의 수치를 씻어 보리라 결심하였다. 선생은 그가 차고 있던 칼을 빼앗아 그를 찔러 죽이고 “국모의 원수를 갚으려고 이 왜놈을 죽였노라” 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海州白雲坊基洞 金昌洙’ 라는 서명까지 한 후에 이 포고문을 길가에 붙이고 유유히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 사건이 일어난지 3개월 후(1896. 5. 11) 철퇴와 철편을 든 수십 명이 선생의 집에 난입하여 ‘내부훈령등인內部訓令等因’ 이라는 체포장을 내어 보이고 선생을 쇠사슬

로 포박 후 해주옥에 가두었다.

동년 7월에 인천 감리영監理營으로 이감되어 경무관 김윤정金潤晶의 심문을 받았다. 이때 선생은 방청을 감시하는 일인 경관 도변渡邊에게 “소위 만국공법 어느 조문에 통상화친하는 조약을 맺고서 그 나라 임금이나 황후를 죽이라고 하였더냐. 이 개같은 왜놈아 너희는 어찌하여 감히 우리 국모 폐하를 살해하였느냐 내가 살아서는 이 몸을 가지고 죽으면 귀신이 되어서 맹세코 너희 임금을 죽이고 너희 왜놈들을 씨도 없이 다 없애서 우리나라의 치욕을 씻고야 말것이다” 하고 소리높혀 꾸짖자 도변은 더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사라져 버렸다.

김 경무관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감리사 이재정李在正으로 하여금 직접 심문케 하여 감리사가 심문을 개시코자 함에 선생은 먼저 그를 향해 “나 김창수는 산촌의 일개 천생이나 국모께옵서 왜적의 손에 돌아가신 국가의 수치를 당하고서는 청천백일하에 제 그림자가 부끄러워서 왜구 한놈이라도 죽였거니와 아직 우리 사람으로서 왜왕을 죽여 국모의 원수를 갚았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거늘, 이제보니 당신네가 몽백蒙白(국상으로 백립을 쓰고 소복을 입었다는 뜻)을 하였으니 춘추대의에 군부의 원수를 갚지 못하고는 몽백을 아니 한다는 귀절을 잊어버리고 한갓 부귀영화와 총록(임금님의 총애와 봉급)을 도적질 하려는 더러운 마음으로 임금을 섬긴단 말이요?” 라 말하자 감리사, 경무관, 기타 청상에 있는 관원들이 말을 듣는 기색을 살피건데 모두 낮이 붉어지고 고개가 수그러졌다.

이때 감리사는 선생에게 하소연 하듯 “昌洙가 지금 하

는 말을 들으니 그 충의와 용기를 흠모하는 반면에 황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비길데 없소이다. 그러나 상부의 명령대로 심문하여 올려야 하겠으니 사실을 상세히 공술해 주시오” 하고 경어를 쓰니 옥 사정들의 대우는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선생을 존경하게 되었다.

선생은 옥중에 있으면서 중국에서 발간된 태서신사泰西新史, 세계지지世界地誌 등을 탐독하여 신학문에 눈을 떠 서양이란 무엇이며 세계형편이 어떠하다는 것을 아는 동시에 선생 자신과 우리나라에 대한 비판도 하게 되었다.

사형직전 광무황제의 특사로 형집행이 정지되다

1897년 7월 사형을 언도받고 동년 8월 26일 사형집행이 확정되었으나 광무황제의 특사로 사형직전에 집행정지령이 내려짐에 따라 생명을 건질수가 있었다. 후에 안 사실이지만 선생이 사형을 면하고 살아 난데에는 두 번의 아슬아슬한 일이 있었다.

법무대신이 선생의 이름과 함께 사형죄인 명부를 가지고 입궐하여 황제의 칙재를 받았다. 황제께서는 다 재가를 하였는데 그 때문에 입직하였던 승지 중의 하나가 선생의 죄명이 국모보수國母報讐인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서 이미 재가된 안전을 다시 가지고 나아가 임금께 보인 즉 황제께서는 즉시 어전회의를 열어 사형을 정지하기로 결정하고 바로 인천감리에 전화를 걸어 사형 직전에 목숨을 건질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 승지의 눈에 국모보수라는 네

글자가 아니 띄었다라면 예정대로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졌을 것이다.

그리고 전화가 인천에 가설되고 감리서에 개통된것이 사흘 전이었다고 한다. 만일 서울과 인천 사이에 전화 개통이 늦게 되었던들 황제의 명령이 인천에 도착하기 전에 벌써 사형이 집행되었을 것이다.

광무황제의 특지로 사형은 면하였으나 일제의 눈치때문에 석방이 되지 않자 왜놈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는 탈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1898년 3월 9일 밤 탈옥하여 수원, 목포를 거쳐 함평에 도착, 그곳에서 15일간 묵었다. 그리고 보성, 화순, 순창, 담양을 거쳐 올라와 충남 마곡사에 들어가 중이 되었다. 모든 세상의 잡념이 식은 재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 출가(법명:원종圓宗)하게 되었던 것이다.

낮에는 일하고 밤이면 예불법이며 천수경, 심경을 외우고 보각서장을 배웠다. 다음 해에 평양의 영천암의 주지가 되었지만 출가생활은 은신하기 위한 방법이었으므로 선생의 본색이 들어나 반년도 못되어 환속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교육 구국운동의 일선에서 계몽운동에 진력하다

고향으로 돌아온 선생은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1900년 다시 방랑길에 올라 강화에서 김두래金斗來란 이름으로 바꾸고 생활하였다. 그 뒤 김창수金昌洙라는 본명

으로 행세하기가 곤란하여 이름을 거북 구龜자 외자로 하고 자를 연상蓮上, 호를 연하蓮下라고 고쳐 지었다.

1901년 12월 부친이 돌아가신 후 숙부 준영을 도와 농사일을 하며 지내다 교육사업에 전념하기 위해 장연읍으로 이사하여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오순형吳舜炯과 함께 아동교육에 힘썼다.

선생이 장연에서 교육사업에 전념하고 있을 무렵 국내사정은 서구 열강의 끊임없는 세력다툼으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 일제는 1904년 러일전쟁을 야기시킨 후 「한일 의정서」, 「한일협정서」 등을 강제로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재정과 외교상의 자주권을 박탈하는 등 침략의도를 드러냈으며 마침내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였다.

을사조약의 체결 소식이 황성신문의 사설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통하여 알려지게 되자 선생은 진남포 예수교 교회 청년회의 총무자격으로 서울 상동교회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 참석하여 이준·이동녕 등과 함께 을사조약 폐기를 상소하는 등 구국운동을 전개하였다.

상소투쟁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선생은 장기적인 구국운동은 청소년의 교육에 있다고 생각하고 황해도로 내려와 문화군 초리면의 서명의숙西明義塾과 안악의 양산학교楊山學校에서 교원을 지냈으며 최광옥이 세운 면학회勉學會 사범강습소 강사, 재령의 보강학교保強學校 교장 등을 역임하며 교육 구국운동의 일선에서 계몽운동에 몰두하였다. 또한 1908년 최광옥과 함께 해서교육총회海西教育總會를 조직하여 학무총감學務總監에 추대되기도 하였다.

신민회에 가입 구국활동을 전개하다

1908년 비밀결사 조직인 신민회新民會에 가입하여 맹렬한 구국운동을 전개하던중 1910년 국권이 침탈당하자 신민회의 황해도 간부로 서울 양기탁의 집에서 이동녕·안창호·이시영·안태국 등과 함께 비밀회의에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 일제가 서울에 총독부를 두었으니 우리도 서울에다 도독부를 두고 각도에 총감이라는 대표를 두어서 국맥을 이어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만주에 이민계획을 세워 무관학교를 창설하여 광복전쟁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로 하고 각도 대표를 평안남도에 안태국, 평안북도에 이승훈, 강원도에 주진수, 경기도에 양기탁, 황해도에 선생을 선정하였다.

대표들은 각각 맡은 지방으로 돌아가서 황해, 평남, 평북은 각 15만 원, 강원은 10만 원, 경기는 20만 원을 15일 이내로 준비하기로 결정하였다. 안악으로 돌아온 선생은 기부금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였다.

1911년 1월 5일 일제는 소위 보안법을 적용하여 신민회원들을 일망타진하게 됨에 따라 선생도 일경에 피체되어 서울 경부총감부로 압송되어 2년 형을 언도받았으며 수감중, 안명근 사건에도 관련되었다고 하여 15년 형이 병과되어 옥고를 치루었다.

선생은 옥중에서 호를 백범白凡이라고 바꾸었다. 이름을 고친것은 왜놈의 국적에서 이탈한다는 뜻이고 백범이라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미천하고 무식한 백정白丁

의 백(白)과 범부(凡夫)의 범(凡)자를 따서 호를 삼은 것으로 천한 백정과 무식한 범부까지 전부가 적어도 선생만한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자는 뜻으로 우리동포의 애국심과 지식의 정도를 그만큼 높이지 아니하고는 완전 독립을 이룰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망명길에 오르다

1919년 3월 1일 빼앗긴 국권과 민족을 되찾기 위하여 거족적인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 일제의 감시와 탄압이 더욱 심해지자 선생은 국내에서는 활동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재목상과 좁쌀 장사로 가장, 사리원, 신의주를 거쳐 중국 안동에 도착하여 영국 국적인 이룡양행 배에 몸을 싣고 4일만에(1919. 4. 13) 상해 포동나루에 도착하였다.

상해에 도착하자마자 신익희·윤현진·서병호 등과 함께 임시정부 내무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던중 내무총장인 안창호를 찾아가 임시정부의 문과수를 보게 해달라고 청원하자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는 나이를 고려하여 경무국장에 임명하였다. 경무국장은 농공상국(農工商局), 지방국(地方局), 비서국(秘書局) 등과 함께 내무총장의 보좌기구로서 소관업무는 경찰업무와 도서출판, 저작권 그리고 위생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였다.

또한 왜의 정탐활동을 방지하고 왜의 마수가 어느 방면으로 침투해 들어오는가를 감시하는 업무도 병행하였다.

같은 해 선생은 서병호·안정근 등과 함께 신한청년단을

조직하고 이사에 피선되어 활약하였으며 1920년 11월 9일에는 상해 대한인거류민단 의원에 피선되었다.

1922년 7월 임시의정원과 국민대표주비회國民代表籌備會의 알력과 러시아로부터 받은 독립자금 횡령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생은 안창호·김덕진·신익희·차이석 등 여러 지사들과 동년 7월 시사책진회를 조직하고 최선의 방책을 연구하여 독립운동의 위기를 타개코자 노력하였다.



1921년 중국 상해에서 잠시 단란했던 선생의 가족사진

1922년 10월 1일 조상섭趙尙燮·김인전·손정도·양기하 등과 회합하여 조국독립에 필요한 실력준비로 군인양성 및 전비조성을 목적으로 노병회勞兵會를 조직할 것을 협의하고 발기인이 되어 동월 28일 김인전·나창헌·양기하 등과 같이 한국노병회 발기총회를 열어 이를 조직하고 이사장에 선임되었다.

한국노병회는 한국독립의 쟁취를 위하여 향후 10년 이내에 1만 명 이상의 노병勞兵을 양성하고 100만 원 이상의 전쟁비용을 조성하여 독립군과 전쟁비용이 목적인 수준에 달하면 독립전쟁을 개시하되 그 이전이라도 국가 또는 임시정부가 독립전쟁을 개시한 때에는 이에 참가하여 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였다.

1923년 5월 국민대표회의 윤해尹海·신숙申肅 등 소수인이 대표회의 이름을 팔아 임시의정원의 직권과 체면을 손상케 하니 동년 6월 6일 선생은 내무총장으로부터 내무부령 제1호를 발포하여 국민대표회의 해산을 명령하였다. 그 내용은 “소위 「만민대표회」에서 6월 2일 연호 및 국호를 정한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모반이다. 2, 3차 귀순을 권유하였으나 일향 고집하여 이와 같이 헌법을 제정함은 조국의 존엄한 권위를 침범함이다. 본 내무총장은 2천만 민족이 공동위탁한 치안의 책임과 4천 년 유업의 신기를 보유할 직권으로서 소수인의 집회 등 6월 2일 이래 일체의 불법행위를 엄금하고 대표회 자체의 즉시 해산을 명한다” 라 하였다.

동년 12월 26일 상해교민단上海橋民團 의용대義勇隊 고문顧問에 추대되었으며 1924년 4월 9일 국무총리 노백린

이 사임하자 내무총장과 국무총리 대리를 겸임하였다가 동월 24일 이동녕이 국무총리로 취임함에 따라 동년 6월 2일에는 노동국총판勞動局總辦을 겸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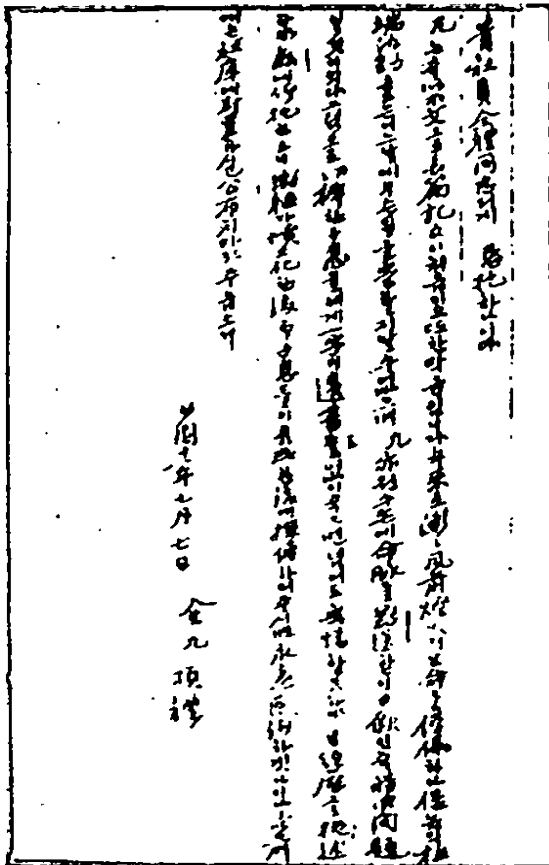
1926년 3월 20일 한국노병회 이사장직을 사임하고 동년 12월 14일 임시정부 국무령에 취임하게 되자 윤기섭·오영선·이규홍으로 신 내각을 조직한 후 헌법개정안을 의정원에 제출하여 국무령제를 집단지도체제인 국무위원회제로 개정하여 국무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그 후 임시정부는 일본의 극심한 탄압과 젊은층들의 맹목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에의 심취와 자금난 등으로 시련을 겪게 된다.

한인에국단을 결성하여 이봉창 의사 등을 파견하다

1928년 3월 25일 선생은 이동녕·안창호·송병조·차이석·조완구·조소앙·엄항섭 등과 같이 한국독립당을 조직하여 민족진영의 단합을 꾀하였으며 1929년 8월 9일 상해교민단장에 피선되었다.

당시 침체에 빠져 있는 임시정부와 한국독립운동계의 활성화를 위해 임시정부 국무위원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날로 팽창되어가고 있는 일제에 대항해서 싸울 만한 군대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인물난과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임시정부로서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가장 큰 효과를 거둘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특무공작이라고 결정하였다. 이에 한몸을 나라에 바칠 애국투사를 선정하여 적의

주요 인물을 제거하거나 중요기관을 파괴하고자 한인애국 단韓人愛國團을 결성하였으며 특무공작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국무위원으로서 재무장의 직책을 겸하고 있는 선생에게 위임하였다.



그리하여 1932년 1월에 한인애국단에 가입한 이봉창 의사를 동경에 파견하여 동경 앵전문 밖에서 일황을 저격케 하여 국내외를 놀라게 하였으며 동년 4월 29일에는 윤봉길 의사가 상해 흥구공원에서 폭탄의거를 일으켜 일군 사령관 백천의척白川義則 대장 등 다수의 장성 및 고관들을 폭살케 하여 세계를 경악케 하고 민족혼을 일깨웠다.

1930.7 백범일지 상권의 집필을 마친 후 두 아들(仁, 信)에게 준 서한문

중국 장개석 총통을 만나 한인 무관양성소 특설을 협의하다

상해 홍구공원 의거 이후 미국인 피치의 집에 은신해 있던 선생은 일제의 집요한 추적때문에 가흥嘉興의 저보성 楮補成 집으로 피신하여 광동사람으로 행세하고 있던중 1933년에 장개석 주석의 면회요청을 받고 안공근·엄항섭을 대동하고 남경으로 가서 중앙군관학교 구내에 있는 공관에서 장개석을 면회하였다.

이 역사적인 회담에서 ① 한국독립운동을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할 것 ② 만주에 있는 독립운동자의 지원 및 교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 ③ 중국군관학교에서 한인사관을 양성할 것 등의 조약을 맺고 낙양군관학교에 한인 무관양성소를 특설하여 한인교관으로 이청천·이범석·오광선 등 역전의 명장들을 교관으로 초빙, 한인사관 양성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이 원대한 계획도 중·일 간의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되어 제1기생 25명의 졸업생을 끝으로 패쇄하지 않을 수 없었다.(1935. 4. 9)

이 당시 독립운동 이념과 노선의 대립으로 대일전선통일동맹(민족주의·공산주의 합작)이란 단체가 구성되어 국무위원 7인 중 5인이 이에 참가하게 되자 임시정부 운영은 매우 곤란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다.

1935년 11월 이동녕·이시영·조완구 등 6인이 강소성 가흥에서 의정원 비상회의를 열고 국무위원을 보선하니 선생은 다시 국무위원에 피선되어 임시정부운영에 심혈을

기울이는 동시에 이듬해(1936) 이동녕 등과 함께 한국국민당 韓國國民黨을 창당하였다.

그리고 일군의 추격을 피해 임시정부를 진강 鎭江으로 옮겼다가 1937년에 다시 장사로 이동하였다.

1938년 5월 장사 長沙 남목청 南木廳에서 민족주의 3당 통일회를 개최하고 3당 대표자가 회의를 하던중 간소배의 사주를 받은 흉한 이운한 李雲漢의 저격을 받아 현익철은 즉사하고 선생은 중상을 입어 생명이 위험하였으나 1개월 동안 입원가료하여 천우신조로 목숨을 보전하였다.

1939년 장사가 위험해지자 광주 廣州로 갔다가 장개석 총통의 도움으로 중경으로 옮긴 뒤 임시정부 주석의 자리에 취임하였다.



대한민국 제34회 의정원 의원 일동사진
(전열 좌에서 다섯 번째가 선생임)

광복군의 국내정진 작전중 일왕의 항복으로 광복을 맞다

1940년에는 중경에서 광복군 총사령부의 성립식을 거행하여 직할 군대를 조직하였으며 임시정부는 기강綦江으로 옮긴 뒤 5월 전당대회를 개최,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등 단체를 통합하여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그 집행위원장에 취임하였다. 또한 군사특파단을 섬서성 서안에 상주케 하여 무장부대 편성에 주력하였다.

같은해 9월에는 임시정부를 기강에서 다시 중경으로 옮긴뒤 다시 국무위원회 주석으로 선출되었다. 1941년 11월에 중국정부는 한국광복군의 일체 활동을 승인하고 무기와 일체 경비 등을 지원해 주기로 하는 대신 광복군의 모든 행정과 작전은 중국군사위원회의 통할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요지의 「한국광복군9개행동준승韓國光復軍9개行動準繩」을 체결하고, 이어 12월 9일에는 임시정부가 일본에 대하여 대일선전포고를 하여 본격적으로 대일항전에 전력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만들어 주었다.

1944년 4월에는 개정된 헌법에 따라 다시 주석에 임명되었으며 한·미 간 군사의 합의를 이끌어 이른바 광복군의 국내정진작전國內挺進作戰을 위한 곤명 주재 OSS (OFFICE OF STRATEGIC SERVICE : 미군전략 특수공작대) 본부와 「한미군사합작 합의사항」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섬서성 서안과 안휘성 부양에 광복군 특별훈련단을 설치

하는 한편 미국의 원조로서 본토상륙을 위한 군사기술훈련소를 강소성 정부가 있는 입황立煌에 설치하고 특수훈련에 들어갔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무조건 항복함에 따라 이 피나는 노력도 빛을 보지 못하였다.

이때 선생은 「아 왜적 항복! 이것은 내게는 기쁜 소식이었다기 보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었다」라고 백범일지에서 슬회하고 있다. 자력으로 나라를 찾지 못하였다는 비통한 심정을 잘 표현한 내용이다.

동년 11월 23일 임시정부요인들과 함께 환국하여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결의된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운동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1946년 2월 비상국무회의가 조직되자 부총재에 취임하였다.

1947년 1월 비상국무회의가 국민의회로 개편되어 부주석에 취임하였으며 5월 제2차 미·소공위共委가 열리자 반탁투쟁위원회의 활동을 이승만과 함께 추진하였으며 11월에는 유엔 감시하의 남북선거에 의한 정부 수립안을 지지하였다.

1948년 4월 19일 남북협상차 평양에 다녀오는 등 민족통일을 염원하던 선생은 1949년 6월 26일 경교장京橋莊에서 반대파의 사주를 받은 하수인 안두희의 흉탄에 의거서거하셨다. 선생의 유해는 온 국민의 애도 속에 국민장으로 효창공원에 안장되었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9월의 독립운동가



東岩 차이석(車利錫) 선생

1881. 7. 27 ~ 1945. 9. 9

- 1921. 임시정부의 독립신문 편집국장
- 1922. 시사책진회, 흥사단 원동위원부 참여
- 1932. 임시정부 국무위원 등 역임
- 1962.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차이석 선생은 해외 혁명운동자 가운데 특히 강력한 정신력을 소유하시기로 유명하시었다. 탁월한 사무처리의 기능이나 병 중에서도 최후의 일각까지 맡으신 사명을 완수하신 강한 책임감은 한국독립운동에 피가 되고 살이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 1948년 사회장 당시 이시영·김구 선생의 추모담 중에서 —

민족교육을 통해 쓰러져가는 국가를 지탱할 동량을 양성하다

동암東岩 차이석車利錫 선생은 1881년 7월 27일 평북 선천군宣川郡에서 차시헌車始軒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서입환徐立煥이라 이름하기도 하였다. 어려서부터 한학을 수학하였으나 신학문에 뜻을 두고 1900년에 숭실중학에 입학하여 1904년 5월 정규과정 첫 졸업생(차이석車

利錫, 노경오盧敬五, 최광옥崔光玉)이었으며, 졸업 후 교육 사업에 종사하다가 1907년 도산 안창호 선생이 설립한 대성학교 교사로 부임하여 민족교육을 통해 쓰러져 가는 국가를 지탱할 동량을 양성하는 데 힘썼다.

한편, 안창호·양기탁 등이 주도하여 조직한 비밀결사 신민회新民會에 가입, 평양지회 평의원으로 활동하며 신민회의 공화주의 사상과 교육구국, 독립군 기지개척 등 독립운동을 위한 구체적인 방략을 익혀갔다. 당시, 신민회는 교육기관의 설립, 만주에 독립군 기지개척 등 국권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1911년 경에는 이상룡李相龍, 이시영李始榮 등 일부 인사들이 서간도로 건너가 독립군 기지를 개척하여 대일항전의 기반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선생은 안창호 선생의 뜻을 좇아 교육구국운동에 헌신하던 중 일제가 독립운동가 탄압을 위하여 조작한 소위 사내총독寺內總督 암살기도 사건에 연루, 1911년 1월 일정에 피체되어 1913년 3월 20일 출옥하기까지 3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상해로 건너가 독립신문 기자로 활약하다

그 후 1919년 평양에서 3·1운동에 참여하였다가 보다 적극적인 항일투쟁의 뜻을 품고 중국 상해로 건너갔다.

선생은 상해에서 임시정부의 기관지로 주 3회 발행되던 「독립신문」(8월 간행 당시에는 「독립」이란 제호를 사

용함)의 기자로 항일광복 투쟁에 앞장서기 시작하였다.

선생은 독립신문의 평기자로 조동호趙東祐 등과 함께 만주독립군의 활동상, 임시정부의 힘찬 출발과 의욕적인 활동, 미주·노령 등지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취재 보도하여 각지의 독립운동 세력들을 연계하고 항일과 독립에의 열망을 북돋우는데 진력하였다.

1921년 6월에는 동 신문사의 편집국장으로서 사장 김승학金承學, 주필 박은식朴殷植 등과 함께 언론활동을 통해 임정을 구심점으로 항일투쟁을 결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민족적 열망을 담고 출범한 임시정부는 수립 초기 국내외 동포들의 지원과 만주지역 독립군 단체와의 연계 등을 통해 대일항전의 구심체로서 기능하였다.

그러나, 1920년 국내 연통제 조직의 와해와 태평양회의에 기대를 건 외교노선의 실패 등을 겪으면서 지도체제의 동요를 가져 왔고, 1921년부터는 임정 존립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국민대표회의의 소집요구가 거세어졌다.

이때, 선생은 이동녕·김구·이시영·조소앙·이동휘·조완구·김철 등 임시정부의 주도적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임시정부의 존폐문제를 다룰 국민대표회의의 소집 논의로 어수선한 독립운동계에 대동단결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는 지면을 통해 “임시정부의 내일은 곧 군주제의 청산이며, 민주화의 새출발을 기약함에 있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전진하고 대동 단결합시다” 라고 파벌의 종식과 대동화합, 인화단결을 호소하였다.

1922년 2월에, 그는 독립신문사를 떠나 직접 임시정부에 참여해서 임시의정원 평안도 의원에 선출되어 자신의 포

부를 실천해 가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선생이 무용론無用論이 대두될 정도로 약화일로에 있던 임시정부에 참여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논의의 중심으로 뛰어들어 그 속에서 임시정부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했던 것으로 여겨지며 임시정부를 근간으로 한 선생의 항일역정은 이후 1945년 8월 광복을 맞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시사책진회, 홍사단 원동위원부에 참여하다

선생은 임시정부의정원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도산 안창호와 함께 국민대표회의 개최를 통한 임시정부의 재건에 힘을 쏟았다. 또한, 이동녕·김구·안창호·여운형 등 30여 명의 동지들과 함께 시사책진회時事策進會를 조직하여 항일운동방략의 거중 조정에도 참여하였다. 시사책진회는 임시정부와 국민대표회의 준비위원회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각 방면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최선의 방책을 모색하기 위한 모임이었다.

선생의 노력은 분분한 논의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았다. 같은해, 안창호가 주도하는 홍사단興士團 원동위원부遠東委員部에 가입하여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인재의 양성에도 관심을 늦추지 않았다. 홍사단 원동위원부에서는 청년들의 공론公論을 도출하기 위하여 강론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여러가지 주제로 자유로이 강연과 토론을 진행, 단원 간에 방략과 의론을 합치시켜 나갔다.



가홍 임시정부 요인 및 가족사진

원동위원부는 또한 미주 홍사단의 자금원조로 1924년 3월 남경에 동명학원東明學院을 설립하여 항학열에 불타 조국을 떠나 중국으로 건너 온 청년들을 교육시켜 독립운동의 간성으로 키워 나갔다.

이같은 홍사단 원동위원부에서 선생은 이사 등으로 재직하며 1945년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하였다. 특히 남경의 동명학원 설립은 인재양성을 통한 독립쟁취라는 선생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만큼 선생이 심혈을 기울인 사업이었다. 선생이 원동위원부에서 활동한 1922~1931년 간은 임시정부활동이 침체기였으나, 침체의 와중에서도 선생의 독립운동을 향한 열정은 조금도 식지 않았던 것이다.

독립운동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다

한편, 2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 국민대표회의 이후 개별적으로 분산되었던 독립운동세력을 재결집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곧, 좌·우파간의 민족협동전선을 형성하는 움직임이 대두한 것이다. 이는 민족대당民族大黨 결성을 위한 준비로 나아갔고 임시정부측에서도 민족주의 세력을 중심으로 1930년 초에 이동녕·안창호·이시영·김구 등이 상해에서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을 조직하였으며 선생도 이에 참여하였다. 한국독립당은 조소앙의 삼균주의三均主義(정치·경제·교육상의 균등)를 기본이념으로 삼아 독립운동에 종사하는 모든 인물과 농農·공工·상商·학계學界의 남녀노소를 총망라하여 국민적 기반위에 조직할 것을 표방하고 임시정부의 기초정당으로서 임시정부를 유지·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창당되었다.

동당은 기관지로 「상해한문上海韓聞」과 1934년 1월부터 「震光」 등을 발간하였는데, 선생은 「상해한문上海韓聞」의 편집 겸 인쇄를 맡아 당의 기본강령 실천에 진력하였다.

동당은 또한, 상해한인청년당上海韓人靑年黨, 상해한인애국부인회上海韓人愛國婦人會, 상해한인여자청년동맹上海韓人女子靑年同盟, 상해한인소년동맹上海韓人少年同盟 등의 단체를 통해 상해지역 각계 독립운동세력과 연계하여 항일투쟁을 적극화 해 갔다. 즉, 이들 단체들이 임시정부와 한국독립당을 적극적으로 지지·옹호하도록 하는 한편,

청년운동·부인운동·소년운동 등 독립운동 각 부문 활동가의 양성기관 및 전위단체로서 키워갔던 것이다.

이러한 독립운동자 양성 및 선전활동 외에도 1934년 3월 3일 일제가 홍구공원虹口公園 안에 있는 上海神社에서 상해사변 당시 전사한 군인들에 대한 초혼제招魂祭를 거행할 때 동당의 지시로 강병학康秉學 의사가 폭탄을 투척하여 다시 한번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의열투쟁을 전개하였다. 선생은 이와 같은 한국독립당에서 이사理事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한편, 1930년에 개최된 의정원 회의에서는 이동녕을 의장에, 선생을 부의장에 선출하여 한국독립당과 발맞추어 독립운동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체제를 재정비한 임시정부는 1932년 1월 8일과 동년 4월 29일 이봉창·윤봉길 의사의 작탄항일투쟁으로 인해 다시 한번 한국인의 기개를 온 세계에 떨치게 되었다. 그러나, 윤봉길 의사의 일대 장거에 따른 일제의 발악적 보복 검색으로 임시정부를 비롯한 독립운동계의 요인들은 상해, 프랑스 조계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1932년 5월에 임시정부는 14년 동안 머물렀던 상해를 떠나 항주杭州로 이동하게 되었다.

의정, 행정 등 다방면에 걸쳐 활동한 보기드문 능력의 소유자였다

1932년 11월 28일 항주의 의정원 회의에서 선생은 김구



차이석 선생 회갑기념 사진

金九·이동녕李東寧·조성환曹成煥·신익희申翼熙 등과 함께 국무위원에 임명되어 조국이 광복될 때까지 국무위원 또는 국무위원회 비서장으로 임시정부를 이끌었다. 이렇게 선생은 임시정부에 직접 참여 또는 지원하면서 의정·행정 등 다방면에 걸쳐 활동한 보기드문 능력의 소유자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1933년 3월의 임시의정원 회의에서는 임시정부의 내무장 겸 비서장에 선임되어 임시정부의 살림을 도맡아 하였다. 그러나, 시련은 계속되어 1935년 대일전선통일동맹對日戰線統一同盟에 의해 조선민족혁명당朝鮮民族革命黨이

조직되자 국무위원들마저 임정을 떠나 자칫 임정의 와해를 막는 것이 목전의 급선무가 되었다.

이에 선생은 송병조와 함께 광동廣東, 항주杭州, 가흥嘉興 등지의 이동녕·이시영·조완구 등을 찾아 다니며 임시정부의 재건과 구심점으로서의 임무를 강조, 마침내 다시 합류하게 하는 등 임시정부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심초사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35년 11월 13일 위기를 극복하고 임시정부를 사수하여 국무위원 취임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이 때 주석에는 이동녕李東寧, 내무장 조완구趙琬九, 외무장 김구金九, 재무장 송병조宋秉祚, 군무장 조성환曹成煥, 법무장 이시영李始榮, 그리고 선생은 비서장에 임명되었다.

이들은 또한 신당운동에 참가했던 한국독립당이 민족혁명당의 창립과 함께 해체되어 임시정부의 여당이 없어졌으므로 새로운 여당으로 한국국민당韓國國民黨을 창립하였다. 동당은 창립선언서에서 “자에 오등은 국가주권의 완전한 광복에서 전민적全民的 정치·경제·교육 균등의 3대 원칙의 신앙을 확립하고 (중략) 장래 더욱 성실·건전·영용의 비개인적 정신으로써 (중략) 적의 총 세력을 박멸하고 완전한 민주공화국을 건설하여 위로는 조선의 광휘를 빛내고 밑으로는 자손만대의 영예를 발전시킴으로써 세계 각국 민족과 함께 공존공영을 도할 것을 선언한다”고 하여 삼민주의에 입각한 민주공화국의 건설을 당의 기본이념으로 삼았다.

동당은 한국국민당청년단韓國國民黨青年團, 한국청년전

위단韓國青年前衛團 등의 외곽단체를 거느리며, 「한민韓民」, 「한청韓靑」, 「전선前線」 등의 기관지와 각종의 선진 유인물을 간행하였다.

또한, 1937년 7월 김영호金英浩 등 6명을 중국 화북지방에 파견하여 일제의 군사 및 일반 정보수집에 노력하고 이들에 의해 청년대원 일부를 국내에 침투케 하여 주요도시에서의 무장봉기, 일제의 요인 제거 등을 수행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어 10월에는 조사원을 파견, 일제의 포진·병기·탄약·비행기·대포 등의 배치상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 중국 국민당 정부에 제공함으로써 중국 정부의 야간 폭격으로 일제에 다대한 타격을 주었다.

12월 중순에는 담당지역 내의 주요 관공서 시설파괴, 요인 처단 등을 임무로 하는 결사대 3대隊를 조직하여 제1분대는 만주, 제2분대는 국내, 제3분대는 일본에 파견하기로 하는 등 기관지의 국내배포, 일제요인, 친일주구배 처단, 관공서파괴 대일군사정보 수집 등 특무공작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의 중심이던 한국국민당에서 선생은 조직 부장을 맡아 헌신하였다.

1939년 5월에는 조선혁명당·한국독립당·한국국민당의 3당이 통합,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이 결성되자 집행위원에 선임되는 등 정당활동을 통한 항일역량의 결집에도 앞장섰다.

온갖 고초와 난관을 극복하면서 임시정부를 지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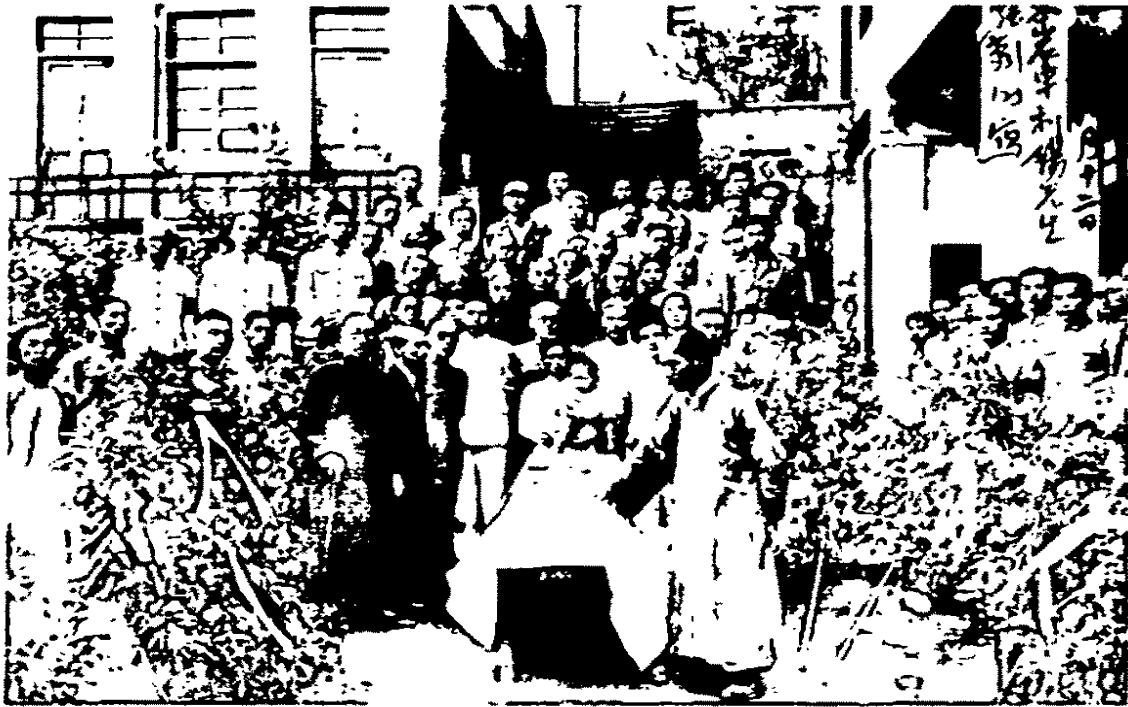
항주杭州의 임시정부는 1935년 11월 하순 강소성 진강으로 이동하게 되어 2년 간의 진강 임시정부 시대에 들어갔다. 여기서 제4차 내각이 성립되어 1937년 중일전쟁에 대처하여 군사정책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일전쟁의 전세가 불리하자 중국정부는 중경重慶으로 천도하였고 임시정부도 부득이 장사長沙·유주柳州, 기강蒸江 등지를 거쳐 1940년 중경重慶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여기서 임시정부 직할부대인 한국광복군이 창설되어 1945년까지 5년여 동안 각종 군사작전을 전개하게 됨으로써 임시정부는 명실공히 한국독립운동의 최고 통수기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생은 갖은 고초와 난관을 극복하면서 임시정부를 지켜왔던 장본인이었다.

선생은 중경 임시정부에서도 국무위원과 중앙감찰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광복군의 대일항전을 지원하는 등 조국독립운동에 헌신하다가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였으나 그 기쁨을 채 느끼기도 전인 그 해 9월 9일에 중경임시정부 청사에서 눈을 감고 말았다.

그 뒤 김구의 자제 김신이 기강에 안장되어 있던 이동녕의 유해와 함께 선생의 유해를 모셔다가 지금 서울 용산구 효창원에 안장하였다.

1948년 사회장 당시 이시영·김구의 차이석 선생에 대한 다음과 같은 추모담을 통해서도 평생을 조국독립에 헌



차이석 선생 발인식 광경

신한 선생의 면모를 살필 수 있다.

“차이석 선생은 해외혁명운동자 가운데 특히 강력한 정신력을 소유하시기로 유명하시었다. 탁월한 사무처리의 능이나 병 중에서도 최후의 일각까지 맡으신 사명을 완수하신 강한 책임감은 한국독립운동에 피가 되고 살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10월의 독립운동가



雲崗 이강년(李康季) 선생

1858. 12. 30 ~ 1908. 10. 13

- 1896. 유인석 의진의 유격장으로 활동
- 1907. 도창의대장에 추대
- 1908. 피체되어 순국
- 1962.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서

한평생 이 목숨 아껴본 바 없었거늘 죽음 앞둔 지금에서 삶을 어찌 구하랴만 오랑캐 처부술길 다시 찾기 어렵구나 이 몸 비록 간다고 해서 닳마저 사라지랴

— 옥중에서 남긴 시 —

이강년李康季 선생의 본은 전주이며 철종 9년 1858년 12월 30일 경상북도 문경군聞慶郡 가은면加恩面 도태리道胎里에서 아버지 이기태李起台와 어머니 의령 남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자는 낙인樂仁이며 호는 운강雲崗이다.

선생은 두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백부 이기택李起宅의 집에서 자랐으며 장성함에 따라 기골이 점차 장대해져 키가 여덟 자가 넘었고 눈빛은 불이 넘치는 것 같아 위엄이 넘쳐 흘렀다고 한다.

동학군에 투신하여 후일 의병항쟁에 필요한 전략 자원을 구축하다

1880년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절충장군折衝將軍 행용양위行龍驤衛 부사과副司果로 선전관宣傳官에 임명되어 벼슬길에 올랐으나 1884년 갑신정변甲申政變 후 물러나 고향에 은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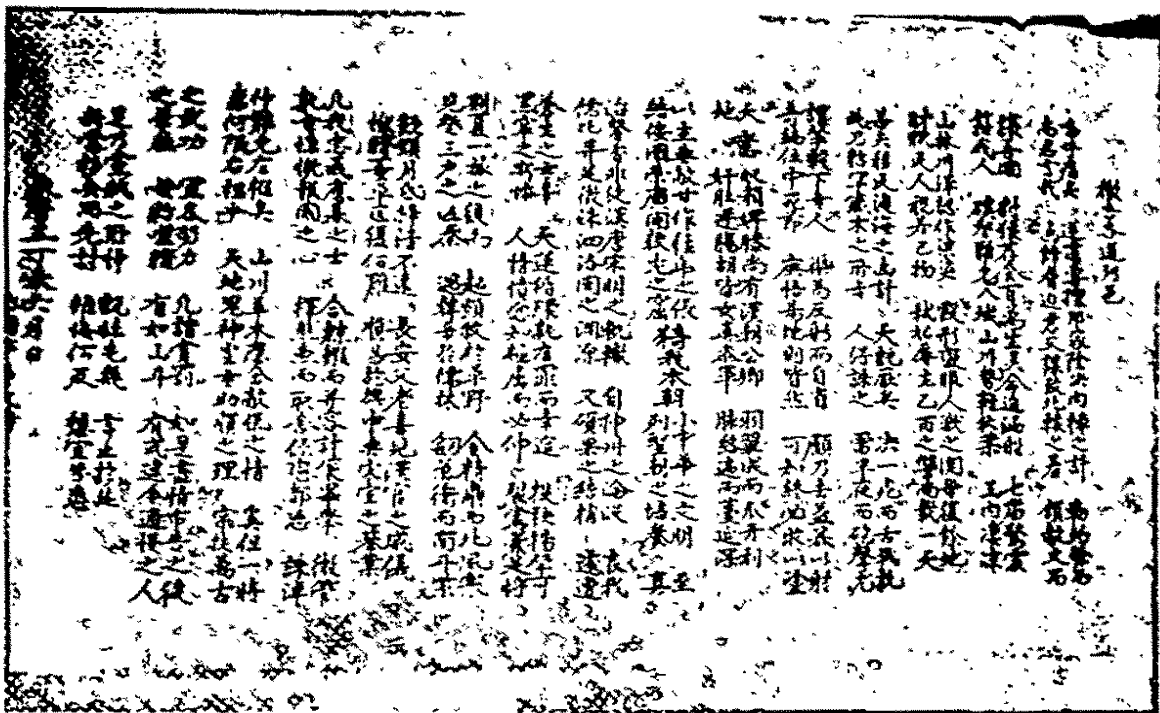
향리에서 은거하며 학문에만 열중하던 운강雲崗 선생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동학군에 투신하였다. 이때 휘하에서 농민군으로 활약하며 심산유곡을 누볐던 많은 농민들이 후에 의병항쟁에 가담하게 되었고 보급조달, 지형탐색, 현지 정보망 구축과 같은 의병항쟁義兵抗爭에 있어 긴요한 전략자원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1894년에 청일전쟁, 갑오개혁甲午改革에 이어 1895년 8월 명성황후시해明成皇后弑害, 단발령斷髮令 등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을미의병으로 알려진 의병전쟁이 시작되었다.

특히, 단발령은 전국의 재야 유생들을 분개시켜 전쟁의 직접적 불씨가 되었다. 그러나 의병전쟁을 주도했던 재야 유생들은 비단 단발령 때문에만 격분한 것이 아니라 일제의 침략적 개혁정치에 분노하였고 국모가 시해되는 급박한 사태에 더 이상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앉아서 볼 수 없다고 해서 무기를 들었던 것이다. 이때 선생은 다시 군사를 일으켜 일인들을 소탕하고자 결심하였다.

제천堤川에 유인석柳麟錫 의진이 형성되었다는 말을 듣고 1896년 2월 23일(음 1월 11일) 자신의 가산家産을 홀어 군사들을 모집한 후 출생지인 문경聞慶에서 거의하여 왜적의 앞잡이며 양민을 토색질하던 안동관찰사 김석중金奭中 등 3명을 생포하여 농암籠巖 시장에서 이들의 반역행위와 토색질한 죄상을 날날이 들추며 효수梟首하였다.

유인석 의병진의 유격장으로 활동하다



각도 열읍에 고하는 격문

그 후, 선생은 의병을 거느리고 안동安東의 창의대장 권세연權世淵을 만나 군사상의 문제를 의논하였으며, 음 1월 15일 고성姑城에서 적병을 맞아 교전하였다. 동 1월 29일

에는 제천으로 가서 의암毅庵 유인석柳麟錫 선생을 찾아 뵙고 사제師弟의 예를 표하고 의진에 합류하였다. 당시 영남유림의 거두인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의 정맥을 이은 유인석柳麟錫 선생은 위정척사 사상을 실천에 옮긴 유학자로 1895년 명성황후 시해사건이 발생하자 동년 11월 28일 서상열, 이춘영, 안승우 등으로부터 의병대장에 추대되었을 뿐 아니라 일제의 국권침탈 직후에 많은 의병들과 유생들에게는 정신적인 버팀목이었다.

무장 출신으로 유림과 간격이 있던 선생은 의암 유인석 선생의 문하에 들면서 의병활동의 사상적 기반을 더욱 굳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선비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당시의 의진들은 아무래도 전투력이 취약하였고 유인석의 제천 의진 역시 이러한 고충을 겪고 있었으니 무장武將으로 실전경험까지 갖춘 운강의 참여는 유인석을 고무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유인석 의병진의 유격장이 된 운강은 1896년 3월 17일(음 2월 1일) 전군장 홍대석洪大錫과 함께 군사 6초哨를 거느리고 수안보水安堡의 병참을 공격하였으며, 음 2월 13일 9초哨를 거느리고 중군 윤기영尹基榮과 함께 문경 평천枰天으로 진군하였다. 그러나 동년 4월 제천 의진이 장기렴張基濂이 거느린 관군에게 패하자 유인석은 거수지계去守之計를 정하고 요동으로 건너갔다.

이때, 선생은 후군장後軍將을 맡아 유인석의 뒤를 쫓아 압록강을 거쳐 만주로 들어가하고자 하였으나 영월寧越에서 진로가 막혀 소백산小白山으로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소백산으로 들어간 운강은 보급이 어렵고 이탈자가 늘어

나 의진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자 일단 의병을 해산하고 단양 금채동丹陽 金采洞에 은신하였다.

의병활동에 따른 문집을 정리하며 지내던 윤강은 1897년 4월 요동으로 들어가 유인석을 비롯한 여러 의병장을 만나 장백, 무송, 증안, 임강 등에서 이주민 자치단체를 결성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윤강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백성들에게 항일의식을 불어넣고 이를 기반으로 직접 적과 부딪쳐 싸우면서 국가의 안녕과 왕실의 권위를 되찾아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서 그 해 7월 다시 단양 금채동으로 돌아왔다.

고국으로 돌아온 윤강은 충청, 경기, 강원, 영남 등에 있는 옛 동지들을 찾아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국권유지를 기하고자 유림의 덕망있는 선비들을 찾아 토론을 하며 자기 수양에 힘썼다.

1899년 5월 충주忠州 유림에서 화서華西 이항로의 문집을 발간할 때에는 몸소 충주로 가서 편집·간행·배포에 앞장서기도 하였다.

의병전술에 관해 실전경험을 바탕으로 속오작대도를 만든다

단양 금채동에 은신중에 윤강은 자기 수양과 학문연구를 하였는데 그 가운데 특히 의병 전술에 관해 실전경험을 바탕으로 속오작대도東伍作隊圖를 만들어 훗날 전투에서 위력을 발휘하였다. 선생의 친필로 남아있는 속오작대도는

의병조직도, 행진법, 진격과 후퇴요령 등이 수록되어 있다.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본은 1905년 11월 17일 일본 공사로 하여금 친일대신들을 앞세워 수차에 걸쳐 광무황제를 협박하였으며, 불법적으로 을사조약乙巳條約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외교권 등 국권탈취에 나섰다. 이를 계기로 나라를 구하려는 피끓는 백성들이 뭉쳐 전국 각지에서 다시 의병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1907년 군대의 해산은 당시 의병항쟁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즉, 해산된 군인들이 대부분 의병부대에 합류하여 의병으로 전환하였던 것이다. 이로 인해 의병의 군사력이 크게 강화되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함을 좌시할 수 없던 선생은 1907년 3월 유인석과 상의한 후, 강원도 원주·횡성 등지에서 군사를 소모召募하여 재거의 하였다.

동년 6월에는 원주읍의 무기고를 열어 병장기를 거두고 군사를 모아 군세軍勢를 확충하였다. 이어 동년 7월 제천읍으로 진군, 군대해산에 반대하여 원주 진위대鎭衛隊를 이끌고 봉기한 민공호閔肯鎬 의진, 조동교趙東教·오경묵吳敬默·정대무丁大武 의진 등과 연합하여 제천전투에서 500여 명의 적을 토멸하는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광무황제로 부터 도체찰사 임명을 받다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광무황제는 운강 선생을 도체찰사都體察使에 제수하며 다음과 같은 비장한 밀조密詔를 내렸다.

“아! 나의 죄가 크고 악이 총만하여 황천이 돌보지 않으시니, 이로 말미암아 강한 이웃이 틈을 엿보고 역적 신하가 권세를 농락하여 4천 년을 내린 종묘 사직과 3천 리 넓은 강토가 하루 아침에 오랑캐의 지역이 되었고도다. 생각하면 나의 실낱같은 목숨이야 아까울 것이 없으나 종묘 사직과 만백성을 생각하니 이것이 애통하도다. 선전관 이강년으로 도체찰사都體察使를 삼아 지방 4도에 보내니 양가良家の 재주 있는 자제들로 각각 의병을 일으키게 하며 소모장召募將을 임명하되 인장과 병부兵符를 새겨서 쓰도록 하라.

만일 명을 좇지 않는 자가 있으면 관찰사와 수령들을 먼저 베이고 파직하여 내쫓을 것이며, 오직 경기京畿 진영의 군사는 나와 함께 사직에 순절殉節할것이다. ... ”

도창의대장에 추대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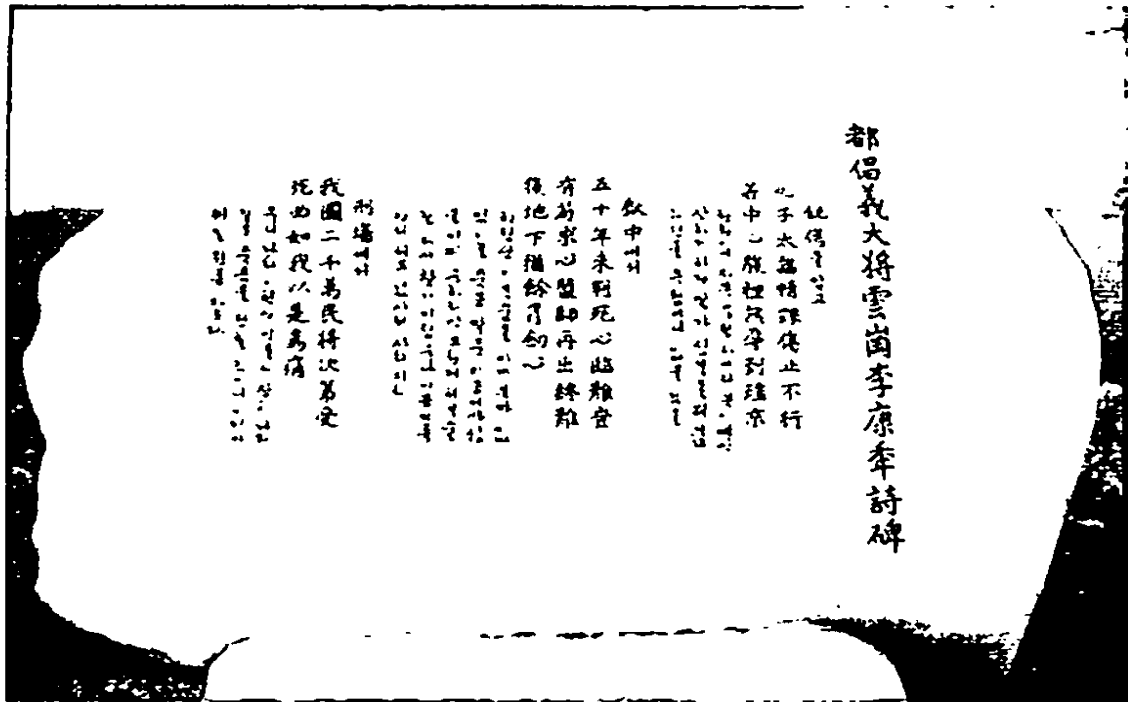
제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후 구름같이 모여든 40여 진이 제천堤川 진중陣中에서 이강년을 도창의대장都倡義大將으로 추대하였다. 운강은 각 의병장과 의논하여 군제를 개편하고 그 직책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였다.

중군장 : 김상태 金尙台
 우선봉장 : 백남규 白南奎
 좌선봉장 : 하한서 河漢瑞
 전군장 : 윤기영 尹基榮

우군장 : 이중봉 李重鳳
 좌군장 : 이용로 李容魯
 감군장 : 이세영 李世榮

도창의대장으로 추대된 이강년은 제천 백묘에서 진을 치고 원주 민공호, 청풍진 조동교와 연합하여 충주의 일본군을 공격하기로 약속했다. 충주는 군사상 요충지로 이곳의 공략은 의병활동의 거점 마련이라는 의미가 있었다.

7월 15일 행군을 시작하여 문지동 文池洞을 거쳐 마수막 馬首幕에 이르러 충주 忠州를 치고자 하여 산하의 의진을 풀어서 작전을 실시하였으나 각 의진이 시기를 놓쳐 충주 진격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선생의 시비(詩碑, 독립기념관)

한편, 틈을 내어 불당곡佛堂谷 이주승李胄承의 집에 머물며 「국수원류國讐源流」, 「군계軍戒」 12귀, 통고문通告文 등을 지어 군율을 가다듬었다.

이어서 풍기도촌豊基道村에서 일제 앞잡이 김기찬金基燦과 일진회 회원 김상호金商虎를 총살하여 친일매족행위를 징계하였다.

원주에서 탄환을 보충하여 전력을 보강시켰으며, 이때 공을 세운 이만원李萬源을 도총독장都總督將, 권용일權用儉을 우군 선봉장에 임명하였다.

8월 3일 운강의 군사들은 주홀산 아래에 있는 혜국사惠國寺 승려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용기백배하여 갈평葛坪으로 진격하여 적을 쳐부수고 총과 탄환, 투구 등을 노획하였다.

이튿날(4일) 다시 갈평에 나아가 순검 1명을 총살하고 달아나는 적을 추격하여 괴성槐城에서 일본군 육군소좌 과전삼태랑戈田三太郎과 육군 보병 대토촌大土村을 잡아 효수하고 무기를 노획하였다.

6일 대승사大乘寺에서 다시 적 5명을 사살하고 무기를 노획하였으나 8일에는 후군장 신태원申泰元이 문경 적성赤城에서 참패하여 아군 36명이 순국하였다.

8월 중순에서 9월 중순까지 단양 유치榆峙·영월寧越·병두屏杜·연풍延豊 등지에서 적과 대치하였으나 전세는 다소 불리하였다.

9월에 들어서면서 전정언前正言 김상한金商翰, 전군장前軍將 윤기영, 소모장 주광식朱光植이 군사를 거느리고 합세하자 전세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9월 16일

제천 추치에서 대전하여 적 200명을 사로잡았고, 9월 27일 죽령竹嶺에서 다시 적 200명을 사로잡았으며, 10월 5일 단양 고리평故里平에서 적 80명을 사로잡는 놀라운 전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날씨가 추워지고 산중에서 눈보라를 헤치며 적과 대치하게 되자 전세는 다시 불리해졌다. 이에 굴하지 않고 10월 23일 풍기 백자동栢子洞 전투에서 적 100명을 사로잡는 등 분전하였으나 선생은 그 간의 과로로 병을 얻어 11월 12일 풍기 복상동復上洞에서는 대패하고 말았다. 이때 선생은, “내가 거의한 지 12년에 이와 같이 패배한 때는 없었다” 하고 탄식하며 부하 장령들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한편, 종래 분산적으로 전개되어온 각 의진 중심의 개별 항쟁만으로는 거의의 궁극적 목표인 일제를 몰아내는데 한계가 있음을 자각한 이인영李麟榮과 허위許蓼 등의 의병장은 대일연합전선의 형성을 도모하였다. 즉, 전국의 의병부대들이 분산적으로 싸우지 말고 하나의 통합된 지휘부 밑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면서 경기지방으로 모여 서울을 포위하고 궁극적으로 서울에 진입해서 수도 서울을 탈환하여 일제 통감부와 담판하고 일제를 한국에서 몰아내는 연합의병운동을 전개할 계획이었다. 이에 동년 11월 각 의진에 통문을 띄워 전국의 의진들이 경기도 양주楊州에 모일 것을 호소하고 13도창의대진소13道倡義大陣所를 결성하였는데 선생은 호서창의대장湖西倡義大將에 선임되었다.

선생은 이와 같은 거시적 항쟁계획에 호응하여 즉각 서울진공작전에 참여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약속한 기일 내에 양주로 집결하기 위해 의진의 북상北上을 서둘렀다. 화남華南 박장호朴長浩 의진과 연계하여 경기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11월 21일 전동錢洞 월계봉月桂峰 12월 3일 낭천狼川 간척리看尺里, 12월 5일에는 경기도 건천乾川에서 일제의 발악적인 저지선을 뚫어야 했다. 그러나 혹독한 폭설과 추위로 교통이 마비되고 식량과 탄약의 조달이 어려워 더 이상의 진군이 어려웠다. 결국 선생은 서울진공의 웅지雄志를 이루고 부대를 재정비하여 이후의 항전을 준비할 수 밖에 없었다.

1908년에 접어들자 운강 선생은 휘하 장병들을 독려하여 동년 2월 용소동龍沼洞에서 적 백여 명을 사로잡은 것을 비롯하여 대청리待淸里·갈기동葛基洞에서 적과 교전하였다.

1908년에 이강년 의진이 가장 빛나는 전과를 거둔 전투로는 3월 12일의 강원도 인제麟蹄 백담사百潭寺의 전투와 안동 서벽西壁 전투, 4월 6일 봉화 내성乃城 전투 그리고 4월 8일의 안동 재산才山의 전투를 들 수 있다. 1908년 3월 12일 백담사 전투에 대한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12일 ... 적이 많이 들어오므로 쳐서 무너뜨렸다. ... 이튿날 새벽에 파수병이 3번이나 급한 정세를 보고하기를 적 500여 명이 북쪽에서 온다고 했다. 군중이 모두 나가 좌우로 독려하여 반날을 격전하니 적이 크게 무너지므로 추격하여 무찔렀는데 적의 죽은 자가 수백여 명이며 우리 군사의 사상자도 수십여 명이었다. 이 날 간성杆城 신흥사神興寺로 옮겨 주둔하고 군사들을 교련시켰다. 다음 날 다시 오세암五歲庵으로 옮겨 주둔하였다.”

이와 같이 눈부신 전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의진의

활동무대가 강원도·충청도·경상북도 일대에 걸친 광범한 지역이었으나 그 밑에서 활약한 김상태金尙台, 이만원李萬源, 백남규白南奎, 하한서河漢瑞, 권용일權用僉, 윤기영尹基榮과 그 밖의 의병들이 모두 이 지방 출신자들로서 이 지역의 지리에 밝고 또 엄격한 군율로 의병부대의 기강이 서 있었던 데에 원인이 있었다.

까치성 전투에서 피체되어 순국

또한, 선생은 신돌석申堧石 의병장 같은 평민출신이 아니었음에도 동학농민운동에 참가할 만큼 민중의 이해利害를 잘 파악하고 그들의 입장에 접근해 있었으므로 가는 곳마다 지방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을 수 있었다. 그 위에 의암 유인석 선생의 문도門徒로서 유림·선비들과의 교분, 광무황제의 도체찰사 위임, 전투의 와중에서도 군사들을 교련시키는 등 선생 자신의 뛰어난 용병술, 아들 3형제를 모두 의진에 참여케 한 헌신성 등은 이 의진을 일제가 가장 두려워한 막강한 의병세력으로 성장케 하는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6월 4일 청풍 까치성鵲城 전투에서 장마비로 인해 화승총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퇴로가 막혀 고전하던 끝에 도선봉都先鋒 하한서河漢瑞 등 7명이 전사하였고, 선생은 복사뼈에 탄환을 맞아 적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 후 선생은 이때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탄환의 무정함이여
발목을 다쳐 나아갈 수 없구나.

차라리 심장에 맞았더라면
이런 수모를 받지 않을 것을.

丸子太無情 蹀傷止不行
若中心腹裏 無辱到瑤京

선생은 그 동안 온갖 고초를 무릅쓰고 생사를 같이하던 휘하 장병들의 시신을 돌아 보면서 마을사람들에게 “내가 잡힌 몸이 되었으니 별 수 없다. 전사한 사람들을 잘 매장하여 주기 바란다.” 고 부탁하고 충주로 압송되었다.



경모각(景慕閣)

군수가 음식을 대접하고자 하였으나 “적의 음식이 어찌 목에 넘어가겠느냐”고 물리쳤으며, 서울의 재판정에서도 “국가의 세금을 빼앗는 것이 의병인가”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임금의 마음을 받들어 국가의 어려운 일에 앞장서서 나라를 위하여 공금을 사용한 것이 역적이냐? 원수인 적의 세력에 의지하여 임금을 협박하여 적을 섬기면서 국가의 녹을 먹는 것이 역적이냐? 의병을 일으켜 왜놈들을 섬멸하고 5적, 7적을 죽여 국가에 보답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한 것이다”고 준열이 꾸짖었다.

또한, “선비에게는 죽음을 줄 지언정 욕을 보여서는 안 되는 법이다. 나는 이제 죽을 곳을 얻었으니 다시 무엇을 한하랴”고 기개를 굽히지 않았다.

선생은 결국 평리원平理院에서 교수형을 선고받고 1908년 10월 13일 51세로 의기에 찬 일생을 마쳤다. 저서로는 「운강문집」이 있고 그 제자와 의병시절의 부하들에 의하여 엮어진 「운강선생 창의일록」이 있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운강 이강년 선생은 3형제를 두었는데 3형제 모두 부친과 함께 의병투쟁을 전개하여 장자長子 승재承宰는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 차자次子 공재競宰는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 삼자三子 명재明宰는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각각 추서되었다.

11월의 독립운동가



의열비

2千 이진룡(李鎭龍) 선생

1879. ~ 1918. 5. 1

- 1907. 황해 평산 의병장으로 항일활동
- 1911. 중국 관전에서 포수단 조직
- 1916. 군사금확보위해 운산광산 송금마차 습격
- 1918. 평양에서 사형 순국
- 1962.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선생은 1879년 황해도 평산군平山郡 주암면舟岩面에서 부친 영배英培와 모친 여흥민씨驪興閔氏 사이에 독자로 태어났다. 선생의 자는 석대錫大 또는 운서雲瑞이며, 호는 기천己千이다. 대대로 명문이던 유림가문에 태어났으나 선생은 문무를 겸전兼全한 헌헌장부軒軒丈夫로서 박은식 선생도 “천성이 질박하고 정직하며 의義를 존중하고 힘이 남보다 뛰어 났다”고 선생을 평할만치 6척의 큰 키를 가진 기골장대한 호남아였다.

1894년 15세에 경서를 통달할 만큼 영특하였으며, 지智·덕德·용龍이 합일된 훌륭한 인격을 갖추어 갔다. 유인석의 문인인 사산史山 우병렬의 사위가 되어 유학에 정진하였으며 나아가서 의암의 제자로서 위정척사사상衛正斥邪思想을 바탕으로 한 항일 민족의식을 굳혀 갔다.

1905년 26세에 을사조약이 강제 체결되자 고향인 황해도 평산에서 장인 우병열禹炳烈 등과 더불어 의병을 일으켰다. 이들의 항전은 하늘을 찌르는 의분이 있을뿐 군사지

식이 없었기에 뜻대로 크게 발전하지 못하였으나 경술국치 이후까지 그리고 만주의 무장독립운동으로까지 이어져 혁혁한 무훈을 기록하였다.

선생은 전기(1894~1896)·중기(1904~1906) 의병항전 때부터 각지의 의병장들과 기맥을 통해 오던 평산지역의 화서·의암계 유학자인 변석현邊錫鉉·채홍두蔡洪斗·박기섭朴箕燮 등과 함께 평산군 궁하면 <산두재>에서 기병을 논의한 후 깊은 산속인 도평산桃坪山에서 평산의병부대를 조직, 사방에 격문을 돌리자 여기에 향응하여 4~5천 명의 의병이 모여 들었다.

이 평산의병부대는 전판관 우병렬이 중군장이 되어 실질적으로 부대를 총 지휘하는 가운데 돌격장·유격장 그리고 7개 중대장들이 각기 소부대를 편성하여 운영하였는데 선생은 유격대를 맡았다. 유학자들의 지휘하에 농민·포수 그리고 다수의 강화江華 진위대의 해산군인들까지 참가한 수천 명의 의병이 도평산을 근거지로 장수산·멸악산 등의 산속을 배경으로 황해도 각지에 분산 파병되어 일본군을 처단 공격하는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돌격장 김창호는 배천·연안 그리고 도청 소재지인 해주를 습격하였으며, 선생은 유달수柳達秀·한정만韓貞滿 등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평산군 온정리·고지면·대룡리·세곡면 등지에서 일본군 '토벌대'를 소탕하는 대승을 거두어 일제 침략군에게 타격을 주고 황해의병 활동에 사기를 북돋았으며, 나아가 무기를 노획하여 무장을 더 강화시켜 나갔다. 이와 같이 평산의병부대 등이 황해지역을 장악하자 일제는 1907년 말(11월 4~13일) 탄압부대를 특별히

편성. 의병압살에 나서 피아 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이때의 수많은 전투과정에서 의병측의 피해가 속출하여 돌격장 김창호·성호 형제와 유격장 유달수·범렬부자, 그리고 중대장·소대장이 전사 또는 체포되어 순국하였다.

평산의병 부대장으로 추대되어 일제 응징에 박차를 가하다

1907년 말 유격부대장 유달수가 전사 순국한 뒤에도 선생은 중대장 또는 유격부대장으로 평산군 세곡면과 산외면 그리고 남산리 등지에서 일본군을 격퇴하는 무훈을 세웠다. 일본군의 발악적인 탄압이 점점 강화되자 의병부대는 점차 약화되고 동요가 일어나는 등 불리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으며, 평산의병부대는 대응책으로 선생을 평산의병부대(유격부대)의 부대장으로 추대했다.

평산의병부대는 각 중대장이 각기 2개의 소대·분대로 나눈 비교적 적은 병력으로 일본 침략군과 친일 무리를 응징하고 그 기관을 파괴하여 가히 의병 항전의 고조기를 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왕성한 평산의병부대의 활약에 일본군도 탄압 공세를 강화하여 헌병분전소·헌병분파소·수비대를 증설하고 일본 순사를 증파하는 등 의병 압살에 혈안이 되어가자 평산의병부대는 보다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40~50명의 적은 병력으로 산간에 의거하여 유격전을 벌임으로써

항전을 지속하여 갔다. 각처의 의병이 다 꺾이고 오직 황해도와 이진룡 평산의병부대만이 홀로 활약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제는 현상금까지 걸고 선생의 체포에 전력을 다 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국내항전의 여건이 악화되고 스승 유인석이 노령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 망명, 새로운 항전기지를 찾아 북상하자 선생은 우병렬 중군장과 박기섭(정빈) 전 평산의병부대장, 동료의병 박양섭·조맹선·심노술·김기한 등과 함께 스승을 수종隨從하여 연해주로 건너가 무기를 확보코저 하였다.

1908년 당시의 연해주에서는 이범윤李範允·안중근安重根·엄인섭嚴仁燮 등이 지휘하는 의병부대가 국내 진공작전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건에 크게 고무된 선생은 새로운 항일의병작전계획을 수립하고 또 군자금과 신무기를 구하여 귀국한 것으로 판단된다.

군자금과 신무기를 구하여 귀국후 더욱 강화된 의병부대를 편성하다

1908년 겨울에 연해주에서 귀국한 선생은 전보다 강화된 무장의병부대를 편성하여 일제 침략군과 맞서 싸워 일제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경술국치를 전후한 평산의병부대의 국내항일 무장투쟁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유격작전에 적합하게 소단위로 부대를 편성하였다. 즉, 중대를 소대와 분대로 독립시켜 적제는 10명, 많게는 50여 명

으로 편성, 기동을 민첩하게 하였다. ② 화력을 보강하였다. 1개 중대 60여 명 거의 모두가 소총이나 권총으로 무장하였고 화약도 충족된 것이었다. 이 무기는 연해주에서 공급되었거나 강화도나 서울의 외국인으로부터 구입한 것이다. 이진룡 의진과 관련된 이만영李晩榮의 판결문에 의하면 “이진룡의 부하 강제수姜濟洙란 자가 흥행에 사용할 무기·기타를 구입하기 위하여 서울에 왔을 때 단총 1정, 탄약 30발, 쌍안경 1개를 사 주었다”고 기록된 점으로 보아 서울에서도 상당수의 신무기를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③ 군자금과 군수물자는 주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각출 조달되었다. 징발 군용품일 경우는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였다. 이렇듯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바탕으로 병민 일치兵民一致의 유격전을 수행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선생은 한층 강화된 무장의 평산의병(유격)부대를 지휘하여 평산·금천·곡산 등을 비롯한 황해도 일대에서 일제 헌병분견소·분파소·수비대 및 순사와 자위단自衛團·일진회一進會 등 매국조직들과 항전하여 일제에 타격을 주었으며, 또한 일제의 의병고립과 국민분열책으로서의 선유사宣諭使 파견과 귀순표 발급에 맞서 싸웠다.

그리하여 1909년 말까지 일제침략자들의 총력을 경주한 의병압살정책에도 불구하고 평산의병부대의 항일무장투쟁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아니하였다. 일본군의 보고에도 “가장 세력있는 수괴(의병장)로서 출몰이 가장성한 곳은 금천·평산·곡산 군내이요, 인민들은 피해를 입고도 하등 굴출屈出을 하지 않음은 다소 폭도(의병)들을 동정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된다”라고 하였으며, “우려대로 연말(1909.

12)에 가서도 완전히 평정을 못 본 것"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무장 항일전은 완강하였던 것이다.

이진룡 의병장은 1909년 8월 재차 연해주에 건너가 당지에서 활약하던 유인석, 우병렬 등과 국토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방책을 강구하는 한편, 동년 9월에는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 자금을 조달하였고, 신무기를 확보하여 1909년 11월경 귀국하였다. 신무기로 재무장한 평산의병부대는 1910년 해가 바뀌면서 더욱 강성하게 항일 의병무장투쟁을 지속하였다.

경술국치 이후에도 강성하게 항일의병 무장투쟁 전개하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선생이 지휘하는 평산의병부대가 전개한 항일유격전의 주요 전투로는 1910년 1월 31일 재령 청석두 전투를 비롯하여, 재령 신원 습격 전투, 해주 금산 동일리 전투, 평산 누천 전투, 해주 취야장 전투 등 많은 소규모 전투를 전개하였다.

그 밖에 열차운송 저지 항전으로 동년 3월 3일 오후 3시경, 경의선의 계정역과 금성역 사이의 철로를 장악하고 그 곳에 돌을 쌓아 북행열차를 전복시켜 적의 보급선 봉쇄작전을 완수하였다. 열차 전복사실의 급보를 받아 출동한 일본군 평산, 개성 연합수색대와 교전하여 격퇴함으로써 열차운행을 8시간이나 저지시켰다. 그 후에도 평산의병부대는 삼엄한 경비망을 뚫고 4일 오전과 오후 그리고 7

일 오전에도 과감히 잠성~한포 사이의 철로파괴를 기도하였다. 그리하여 일제의 평산주재 헌병으로 하여금 철도 경비를 전담치 않을 수 없게 하여 그 결과 적의 병력을 분산시켜 적세를 약화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러한 활동에 당황한 일제는 수비대, 경찰, 헌병대 등으로 '연합토벌대'를 편성하여 3월 1~14일과 3월 22~31일 두 차례에 걸쳐 황해지역을 그물 안의 물고기를 잡듯이 작전망을 세워 의병 '수색·토벌'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진룡 평산의병부대는 경기도 의병장 연기우延基 羽 의병부대와 연합하면서 출몰자재로 적성績城·감악산紺岳山 등 깊은 산속에 근거하면서 민간 촌락에 산재하여 유숙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농민복으로 변장하고 그 종적을 비밀히 하였다. 또 때때로 농민과 서로 섞어 기차를 타고 서울로 왕래하여 일본인의 동정을 정탐하였다.

평산의병부대의 무장투쟁은 일제의 한국병탄 추진에 큰 타격을 안겨주었다

이와 같은 이진룡 평산의병부대의 국권회복을 위한 의병 무장투쟁은 군사상의 약점과 국제 및 국내적 여러 조건으로 그 한계에 부딪혀 점차 전투에서 주도권을 끝까지 장악하지 못한 채 항전의 기세가 위축되어 갔으나 일제의 한국병탄 추진에 큰 타격을 주었다.

한편 연해주로 망명한 유인석은 이상설·이범윤·홍범도·안창호 등과 함께 1910년 6월 21일 연해주 각지에 분산

되어 있던 의병세력을 통합, 단일 군단을 이룩한 십삼도의 군十三道義軍을 편성하였다. 이 십삼도의군은 연해주 뿐만 아니라 국내에까지 그 조직을 확대하여 항일의병을 하나의 조직체계로 편성하고 일시에 대규모의 항일전을 준비하려는 구상을 추진하였는데 선생도 이에 참여하였다. 십삼도의군은 종래 의병항쟁과 노선을 달리했던 애국계몽계열의 구국운동과도 공동전선을 기획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편성된 십삼도의군이 활동할 수 있었던 기간은 매우 짧았다. 의군이 편성되어 미처 활동을 개시하기도 전에 8월 29일 국망을 당했기 때문이었다. 선생은 결국 황해도 일대에서 독자적으로 대일항전을 계속할 수 밖에 없었다.

경술국치 이후 국가체제가 일제에 편입되어 국민적 지원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진룡 평산의 병부대는 소부대 단위의 유격전을 지속해 나갔다. 그러므로 일제는 병력을 총동원하여 1910년 11월 하순부터 4월 중순에 이르는 약 4개월에 걸쳐 '황해도 토벌'을 자행하였다.

이 일제의 만행으로 190명의 의병이 희생을 당하였으나 여전히 해주 평산지방의 한정만·김정환 의병부대와 수안, 곡산의 채응언 의병부대는 각기 은현 출몰하면서 그 지역의 일본수비대 및 헌병과 전투를 지속하여 적들의 수색과 토벌작전을 무색케 하였다. 이러한 이진룡 등 황해 평산의 병부대의 항일 의병무장투쟁에 불안하고 초조해진 일제는 1911년 9월 하순부터 11월 초순에 이르는 약 한달 간에 걸친 '탄압'을 자행하여 250여 의병이 희생을 당하는 타격을 받았다.

새로운 국권회복의 항일전을 모색하기 위해 서간도로 망명하다

이후로 조직적인 의병항쟁이 불가능해 지면서 선생은 1911년 10월에 부대의 지휘권을 중대장 한정만에게 위임하고 압록강을 건너 만주 서간도로 망명하여 새로운 국권회복의 항일전을 모색하였던 것이다.



중국 관전현 청산구 전경

1911년 10월 황해도 평산의병부대의 지휘권을 중대장 한정만에게 이양한 선생은 서간도로 망명하여 조맹선趙孟善·박장호朴長浩·윤세복尹世復·차도선車道善 등과 합

계 장백현長白縣 무송撫松에서 후에 만주독립군의 모태가 된 포수단을 조직하고, 교포 이주민들에게 광복사상을 고취하며 국내와 연락하여 애국지사를 소집, 무사양성에 주력하였다. 심산유곡인 요녕성遼寧省 관전현寬甸縣 청산구靑山溝 은광자촌銀鑛子村을 거점으로 삼아 전술을 익히며 권토중래 광복의 기회에 대비하고 있었다.

선생은 조맹선趙孟善·이종협李鍾協과 더불어 독립부대를 조직하고 수시로 국내에 진입하여 일제주재소를 습격하였는데 하루에 백리를 날으듯 민첩하게 주행走行하여 사람들은 그를 '번개다리飛毛腿'라 불렀다.

군자금 확보를 위해 운산 광산 송금마차 습격

1916년 10월 5일(음 9. 9) 선생은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맹선과 더불어 6인의 부대원(황봉운, 황봉신, 김원섭, 김일, 김효선, 한치현)을 지휘하여 평북 영변군 팔원면 용성동에서 평양으로부터 운산雲山 북진北鎭으로 돌아오던 송금마차를 기습 공격하였다. 이들은 상례대로 송금마차가 2번에 서고 경비차가 그 전후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2번 마차를 기습 공격하였는데 불행하게도 현금마차가 아니었다. 일제가 마차의 배치순서를 바꾸었던 것이다. 비록 호송대의 위장술로 말미암아 기습에 실패하였으나 일제의 추적을 따돌리고 전원 무사히 만주기지로 돌아옴으로써 애국투사의 의기를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이와 같이 신출귀몰하는 선생을 체포하기 위하여 일제는 임곡林谷을 매수하여 의사노릇을 가장, 중국 경내 압록강 일대에서 3년 간이나 조사하며 다니게 하여 선생의 거처를 탐지하였고 결국 선생은 1917년 5월 피체되고 말았다.

일찍이 전후 세 차례나 체포된 적이 있었지만 중도에서 탈출하였으므로 이번에는 탈출할까봐 철사로 선생의 쇠골을 꿰어매고 호송하였는데 동현同縣 태평초太平哨까지 왔을 때 모진 고통 속에서 벽력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일경한 명을 쓰러뜨렸으나 탈출에는 실패하였다.

중국 관전현에서 피체되어 평양에서 사형 순국

이 소식을 들은 황봉신·황봉운 등 10여 동지들이 요동 여순으로 압송되는 선생을 구출하고자 호송대를 습격하였으나 실패하고 황봉신과 황봉운까지 피체되고 말았다. 그 후 창성昌城헌병대를 거쳐 평양감옥에 갇혔다가 1917년 12월 15일 평양북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이듬해 5월 1일 평양감옥에서 교수형으로 순국하였다.

구금 중 선생의 의연한 기개는 일본경찰이 직업을 묻는 물음에 거침없이 “왜적을 토멸하여 나라를 구함이 업業이다”고 한 데서도 나타났다. 아울러 부하 황봉운 등을 석방시키기 위해 “나는 자발적으로 거사를 도모하였으되 여타 인은 강제로 끌려 왔다”고 하며 그들의 처형의 부당성을 역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함께 순국하였다.

<p>朝鮮總督府官報 第千七百二十四號</p>	<p>大正七年五月八日 官報印刷所</p>	<p>○官廳事項 ○死刑執行 ○官廳事項</p>
-----------------------------	---------------------------	----------------------------------

이진룡 선생의 사형집행을 알리는
총독부 관보(1918. 5. 8)

1918년 5월 순국 직전 교회教誨를 하는 전옥에게 유연한 웃음을 지으며 말하기를 “그런 말은 귀가 닳도록 들었은 즉 얼른 사형이나 집행하라”고 하며 태연하게 보여 당장 죽을 사람같지 않았다고 전한다. 전옥이 유언을 묻자, “유언이라고 지금 새삼스러운 말은 하기 싫으나 장남에 대하여 나 죽은 뒤에 나에게 큰 은혜있는 선생(유인석)의 사당에 참례하여 아버 죽은 것을 고백하라고 전하여 달라”고 말하며, 이어 “하수인下手人이 아닌 황봉운을 처형하는 것

은 실로 부당한 일이다”고 말하고는 웃으며 교수대絞首臺에 올라 죽음을 맞았다. 향년 40세였다. 유해는 고향인 평산군 신암면 장동리에 안장되었다.

선생의 순국소식을 전해들은 부인 우씨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 부군의 뒤를 따랐다. 우 부인은 옥중의 부군夫君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 몸도 곧 목숨이 다할 것이온 즉 그 때에 낭군의 묘 곁에서 뵈오리다” 하며 그러한 뜻을 피력한 바 있었다.

1919년 3월 관전현 청산구 이웃 중국인 주민들이 의義를 숭상하고 절節을 지키는 선생과 우 부인의 천고에 드문 충절에 감복하여 소아하小雅河 언덕에 의열비義烈碑를 세웠으니 그 비문은 다음과 같다.

朝鮮義士 李公鎮龍
烈婦禹氏 併同取熊
夫爲國死 文山之忠
婦爲夫殉 洪室之風
日沈月開 鳳翔鳳翔
忠烈相資 吾道之光

조선 의사 이진룡은

열부 우씨와 고퍌(民族)을 택했노라.

남편은 나라를 위해 죽었으니 문산文山의 충성이며

부인은 남편을 따라 순절하였으니 홍실洪室의 가풍일세

해는 지고 달은 떠오르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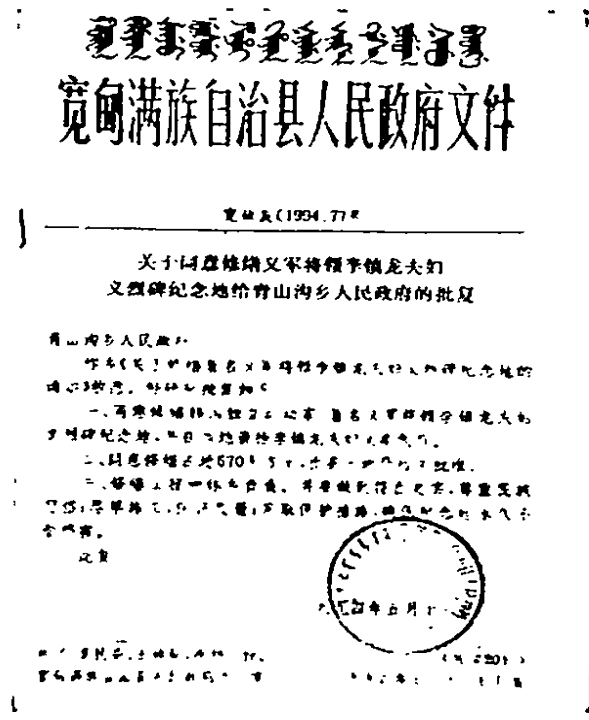
봉황은 하늘에 날고

부부가 서로 충열을 이해하니

이것이 우리 정신의 빛이네.

중국 관전현 지방정부에서 선생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기념사업을 추진

중국 관전현에서는 아직까지도 이곳이 충효의 산 교육장으로 지정되어 많은 학생들이 다녀가고 있으며, 지방정부에서는 선생의 애국정신과 우 부인의 절의를 추앙하기 위해서 94년도에 이 지역을 공원화 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다.



이진룡 선생에 대한 기념사업 추진문서(중국 관전현)

광복이 되자 1948년 5월 황해도민은 순절한 부인과 함께 선생을 기리는 다음과 같은 글의 기념비를 세웠다.

지아버는 의義에 죽고 지어미는 열렬에 죽으니
 한 집안에 두 절의가 났도다.
 경경耿耿한 그 빛 천추千秋에 빛나라.

선생은 이와 같이 불굴의 구국정신을 바탕으로 경술국치를 전후하여 10년 간 항일무장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선생의 활동은 국내에서 뿐 아니라 국외에 까지 뻗어나가 일제 군국주의를 몰아내기 위한 한국독립운동의 방략과 이념정립에 영향을 끼쳐 독립전쟁론獨立戰爭論의 확립을 보게 하는 기초가 되었다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12월의 독립운동가



사적비

忠正公 조병세(趙秉世) 선생

1827. 6. 2 ~ 1905. 12. 1

- 1896. 19개조 시정개혁안 상소
- 1905. 을사조약무효와 5적처단 요구 상소
- 1905. 자결 순국
- 1962.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서

선생은 1827년 6월 2일 홍천현감을 역임한 조유순趙有淳과 대구서씨를 양친으로 서울 회동會洞에서 태어났다. 자는 치현釋顯, 호는 산재山齋이다.

조선 경종조 노론 4대신 중 한 사람이었던 조태채趙泰采가 선생의 6대조이고, 5대조 관빈觀彬은 판중추부사와 홍문관 대제학을 지냈으며, 백부 조두순趙斗淳은 고종조에 영의정을 역임한 명문벌족閔族이었다.

강직한 성품으로 주요 관직을 역임하다

이와 같은 가정환경은 선생에게 일찍부터 관계진출의 뜻을 갖게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6세 때인 1852년 음직으로 관계에 나아간 후 사간원司諫院 정언, 헌납, 홍문관弘文館 교리 등 조선시대 관계에서 흔히 대쪽같은 선비들이

거치는 삼사三司(사간원, 홍문관, 사헌부로서 관리의 부정 부패를 규찰하거나 임금에게 직언을 하는 직책)의 요직을 역임하였다. 요즘으로 치면 감사원이나 언론계통의 직책이다.

철종이 승하한 뒤 고종이 등극하고 대원군이 집권하는 정권교체기에도 선생은 여전히 사헌부의 장령, 집의, 부교리, 사간원 사간, 집의, 응교, 홍문관 부응교 등 삼사의 요직을 두루 거쳤고, 1865년(고종 2년)부터는 왕의 측근에서 왕명을 출납하는 승정원의 우부승지에 오르는 등 권력의 중심부에서 활동하였다.

그러나 1866년 대왕대비 조씨가 수렴청정을 거두고 대원군의 섭정이 강화되면서는 이천부사, 영광군수 등 외직으로 물러나 중앙관계에서 멀어지기도 하였다. 지방의 수령으로 재직하면서도 강직한 성품으로 부정부패를 없애고 서민들의 생활을 따뜻하게 감싸주던 선생이었지만 1873년 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면서는 다시 중앙의 정계로 복귀하여 애민위국愛民爲國의 큰 뜻을 펴게 된다.

동년 9월 승정원 승지로 임금의 최측근에서 활동하였고, 1874년 함경도 암행어사, 1875년 이조참의, 1877년 공조 참판, 의금부사를 맡아 언로言路를 통한 국정에의 간접 참여에서 한 걸음 나아가, 중앙행정부서의 관리자로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뜻을 펴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국제정세는 서세동점西勢東漸의 거센 물결이 조선에까지 뻗쳐 신미양요, 병인양요 등 서구의 파상적인 개항 요구를 대원군의 강력한 쇄국정책으로 막아내기는 하였으

나, 이미 대세는 물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정도를 넘고 있었다.

이제 조선은 제국주의의 침략 속에서 자신을 지켜가기 위해 현명한 길을 찾아야 할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서구의 개항요구를 국민들의 일치된 힘으로 막아내던 조선정부는 어이없게도 일본이 이미 제국주의적 야심을 갖고 조선을 침략하려는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원군의 실각과 고종의 친정 이후 개국의 필요성이 조정 내에서 공론화되어 가던 차에 일본이 의도적으로 운양호사건을 일으키자 미처 국제공법에 대한 이해조차 부족한 상태에서 개국을 서둘렀다.

1876년 개국 당시 선생은 50세로서 병조참지로 있었으며, 이듬해 공조참판, 지춘추관사를 역임하였고, 성균관 대사성과 동지경연사(임금에게 학문과 經世의 道를 강의하는 직책)를 맡아 조정의 문한文翰으로서 고종의 측근에서 활동하였다.

개국은 이제 시작되었고, 이권다툼의 국제정세 속에서 조국의 갈길은 멀기만 하였다. 그러면 선생은 개국과 함께 급속히 추진되던 개화에 대해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있었을까? 선생이 당시의 개화를 역사의 필연적인 추세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물질세계를 열어 힘써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화'라 인식하였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기자조선 당시에 개화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과 화華(성리학적 세계)와 이夷(오랑캐)의 구별되는 점은 오직 강상綱常과 예의禮義

에 있으며, 따라서 우리나라와 외국의 차이점도 역시 강상 예의綱常禮義에 있다고 하여 외국을 강상과 예의가 없는 오랑캐로 여겼다. 이러한 전통적인 주자학적 사고양식은 당시 유교국가의 정맥을 잇고 있다고 자부하던 조선 지식인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더욱이 선생의 경우, 성균관 대사성 등 당시 유교교육의 최고위직을 지냈고, 백부인 조두순은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를 관직에 천거한 바 있었으므로 화서학파의 세계관, 시국관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설에는 선생을 동도서기東道西器적 인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시국인식은 화서학파의 재야유생들에게는 위정척사 사상으로 이어져 일제침략에 맞서 조국을 지키려는 의병항쟁으로 나타났다.

부국강병을 통한 자주적 국권 수호에 힘쓰다

1884년 김옥균, 박영효 등 개화파 인사들이 주도한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나고, 1894년 갑오개혁이 실시되기까지의 10여 년간 선생은 이조·예조·공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좌의정을 역임하며 점증하는 외세의 간섭에 맞서 부국강병을 통한 자주적 국권수호에 힘썼다.

그러나 당시 조정의 권력은 민영준閔泳駿, 민영소閔泳韶, 민영달閔泳達 등 민씨 척족세력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고, 이들 권신들이 자행한 매관매직과 가렴주구의 영향은 삼정三政의 문란을 더욱 촉진하여 민중들의 생활은 말할

수 없이 궁핍하였으며, 전국 각지에서 민란이 끊이지 않았다. 선생은 이러한 척신戚臣들의 폐단으로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기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기인론 其人論을 주장, 인재선발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힘썼다. 이를 위해 특별히 헌책과獻策科를 신설하자고 주청하여 국왕의 윤허까지 받은 바 있었으나, 척족세력의 반대로 실시하지 못하였다.

1894년 민중들의 불만이 동학농민운동으로 폭발하자 대책마련을 위한 어전회의에서 선생은 대경장大更張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주청하였다. “오늘의 민정民情을 살펴보면 매우 가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령 4칸의 초가집은 1년의 납세가 백여 금이고, 5~6두락의 토지에는 1년 납세액이 너무 많아 호구조차 잇지 못할 정도로 빈궁이 극심합니다. 만약 대경장大更張을 크게 시행하지 않으면 실효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청국의 병력을 끌어들이자는 소위 ‘차병借兵’ 논의에 대해 “병력으로 이를 제압하여도 그 근원을 다스리지 못한 즉 국민들 모두가 적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선생을 비롯한 정범조鄭範朝 등 개혁파 인사들은 청렴한 인사의 등용, 탐관오리의 징계 등을 농민운동의 근본적인 치유책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반일·점진개혁의 분위기에 힘입어 고종은 마침내 외세의 개입없이 독자적으로 내정개혁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농민운동의 수습책과 정부기구 혁신을 통해 일본의 압박을 막을 목적으로 교정청校正廳을 신설하였으

며, 선생도 이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선생을 비롯한 정범조 등은 각종 실권으로부터 소외당한 채 국왕의 자문역할에 그치고 있었기 때문에 정책입안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였고, 결국 일본을 등에 업은 소장개혁파들이 갑오개혁을 추진하자 정계 1선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폐정개혁을 위한 시무 19개조 건의

그러나 갑오개혁과 을미사변을 거치면서 일본의 국권침탈이 더욱 심화되고 일제를 몰아내기 위한 의병항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선생은 이를 좌시할 수 만은 없었다. 그리하여 1896년 19개조의 차자筭子(상소의 일종)를 올려 폐정개혁을 건의하였다. 그 내용은 언로言路를 크게 열어 중책衆策을 모을 것, 현명한 인재를 널리 구할 것, 재정을 충실히 한 연후에 군대를 양성할 것, 각지의 의병은 효유하되 토벌하지 말 것 등으로 특히 난국을 헤쳐 갈 인재의 등용과 재정안정에 역점을 두었다. 또한, 러시아공사관으로 이거한 고종(아관파천)에게 러시아와의 교섭에 신중할 것을 청원하여 정치외교의 자주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정국은 외세의 간섭 속에서 자주적 외교노선과 부국강병책을 강구하지 못하였고, 일본과 러시아에 각종 이권을 내어주는 등 혼미를 거듭하였다. 급기야 노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의 강압으로 1904년 한일협정이 체결되어 일제가 추천하는 재정·외교 고문관이 한국의 재무·

외무관계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게 되고 이듬해 2월에는 재외국 공사들이 소환되어 한국의 외교활동이 중단되는 등 국권은 더욱 기울어 갔다.

조국이 백척간두의 어려움에 처하자 선생은 다시 79세의 노구를 이끌고 시폐 5조時弊 5條의 상소를 올려 광무 황제(고종)에게 개혁의 필요성을 간곡히 아뢰었다.

1. 재상을 신중히 선택하여 정강政綱을 세울 것.
2. 황제 주변의 간신배를 숙청하여 아침을 막을 것.
3. 간관諫官을 두어 언로言路를 넓힐 것.
4. 외부대신外部大臣을 잘 가려 임명하여 대외교섭에 신중을 기할 것.
5. 탐관오리를 징치하여 민심을 안정시킬 것.

그러나 선생의 이러한 노력도 헛되이 1905년 11월 17일 일제의 강권으로 황제의 윤험도 없이 한국의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의 특명전권공사 임권조林權助 사이에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말았다.

그 내용은 일본이 동경에 있는 외무성을 통하여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지휘하고, 일본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의 한국신민을 보호하며, 한국에는 통감을 두어 서울에 주재하면서 한국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한국의 각 개항장 및 기타 필요한 곳에 일본인 이사관을 두어 필요한 모든 사무를 관리한다는 것이었다. 이제 대한제국은 자주적 외교권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내정에 있어서조차 일본통감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통탄할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을사5적의 처단과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상소 올림

조약늑결의 소식에 접한 선생은 “나라가 이미 망하였으니 내 세신世臣으로서 따라 죽음이 마땅하다”는 비장한 각오로 신병을 무릅쓴 채 상경하여 광무황제에게 을사5적의 처단과 조약의 무효임을 각국에 밝힐 것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선생의 공적을 기린 와비(臥碑)

선생은 계속해서 민영환, 이상설 등 백관을 이끌고 임궽, 소수疎首로 연명 상소하였다. 조약에 참여한 박제순을

참형에 처하고 각 대신을 파면한 후 다시 총량한 신하를 가려 외부대신에 임명하여 각국 공사들과의 담판을 통해 협약을 파기할 것을 주청하였으나 일제의 압력에 눌린 황제의 비답은 미온적일 뿐이었다.

선생은 이튿날에도 다시 대신들을 이끌고 의분에 찬 상소를 올리는 한편, 일본공사 임권조(林權助)에게 군대를 동원하여 강제로 조약을 체결한 사실의 부당성을 꾸짖고 조약의 폐기를 요구하였다. 또한, 영국·독일·미국·프랑스·이태리 등 5개국의 공사들에게 공한(公翰)을 보내어 국제공법에 의거하여 합동회의를 열어 능약을 부인하는 성명을 낼 것을 호소하였으나 아무런 회답도 받지 못하였다.

사태가 위급하자 일본공사 임권조는 황제를 협박하여 이들을 궁궐에서 내쫓게 하였으나 선생은 대안문(대한문) 밖에서 석고대죄하며 상소항쟁을 계속하였다. 일제헌병대는 선생을 체포하여 일본 헌병주재소에 구속했다가 노령이므로 이튿날 석방하였다.

12월 1일 선생은 석방되자마자 표훈원(表勳院)에서 다시 상소운동을 전개코자 하였으나 일본헌병들이 달려와 억지로 교자에 태워 즉질인 조민희의 집으로 끌고 갔다.

목숨을 바쳐 국가존망의 위급함을 알림

국난을 바로 잡을 수 없음을 통분히 여긴 선생은 교자 속에서 미리 준비한 극약을 마셔 자신의 목숨으로서 광무 황제를 비롯한 국민 모두의 자각과 국가존망의 위급함을

알렸다. 선생의 위독한 용태를 보자 일 헌병들이 당황하여 일인 의사를 불러 진료코자 하였으나 선생의 사위 이용직 李容植이 “우리 대한대신이 나라를 위하여 자결코자 하는 데 너희 무리들이 무슨 일로 간여하려 하며, 또 돌아가는 분을 욱보이느냐” 며 크게 꾸짖자 모두 도망쳐 버렸다.

선생은 자결하기 전에 써놓은 유언과 각국 공사에게 보내는 서한 그리고 국민에게 당부하는 피끓는 유서를 남기고 이 날 오후 6시쯤 세상을 떠나니 향년이 79세였다. 선생의 순국소식을 접한 조야의 수많은 인사들이 국가의 장래와 더불어 선생의 죽음을 애통해 하였다. 장의는 이 달 8일 종로 네거리에서 거행되었는데 일제의 방해로 죽질 조민회의 집으로 식장을 옮겼으며, 수천 명의 군중이 모여 선생의 우국충정의 정신을 기렸다.

선생의 장례식에는 일본에 있던 한국유학생들이 만사를 보내왔을 뿐 아니라 서민들에서부터 심지어 기생들조차 참여하여 국민 모두의 애도 속에 거행되었다. (당시의 애국적 기생들은 ‘조국의 살 길이 교육이냐, 무력이냐’ 라는 논제로 격렬한 토론을 벌일만큼 조국의 앞날을 걱정하였었다.)

선생의 유서는 대한매일신보에 게재되었고, 동신문은 ‘독讀 조병세 유서’ 라는 제목의 논설을 실어 “一言一字가 사람들로 하여금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게 한다” 고 선생의 죽음을 아쉬워 하였다. 광무황제는 선생에게 충정忠正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대한매일신보

論說
讀頌元老遺書

大韓元老大儒金氏其言曰... (text continues)

時日及禮節
時日及禮節

禮節... (text continues)

東京電報

東京... (text continues)

선생의 유서와 순국의 뜻을 기리는 논설을 게재한 대한매일신보

선생은 평소 주위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이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 끝까지 절개를 지키는 일이다. 끝까지 절개를 지켰던 분은 포은 정몽주였다 人之最難者 晚節也 終守晚節者 鄭圃隱是也.”라고 하였으니 선생 역시 그러하였다.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氣가 함께 약해 진다면 그것은 혈기血氣일 뿐이다. 지기志氣는 그렇지 아니하니 나이가 비록 늙어가더라도 지기志氣는 약해지지 않는다.’ 는 소신을 몸소 실천한 분이였다.

평소 검소한 생활이 몸에 배었던 선생은 “만약 내가 비단 등속을 사용한다면 이는 지나치게 사치하여 그 근본을 잃는 것이다” 고 하여 명절 때 조차 비단옷을 입지 않았다. 임금이 하사하는 가마 등의 상전賞典조차 일체 받지

않았다고 하니 선생의 청렴함을 짐작할 수 있겠다.

또, 만년에 들어서에는 하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은퇴 하였으니 너희들의 할 일도 없다.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생업에 종사하되 재상가에 있었음을 빙자하며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라. 이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하며 시중드는 하인 1명만을 남기고는 모두 고향으로 돌려 보냈다.

선생의 유묵(遺墨)

하루는 문인 김달린과 대화중에 부친 조유순이 즐겨보던 책을 발견하자 부친 생각에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였다. 김달린이 물러나와 주위 사람들에게 “옛적에 순舜 임금 은 나이 50에도 부모를 사모하였다 하나 이제 80세에 부

모를 그렇게도 사모하는 분을 내 이제 산재공山齋公을 통해 알았노라” 했다고 한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선생이 충의효제忠義孝悌의 도덕성을 갖춘 진정한 선비요 애국자였음을 보여주는 일화라고 할 수 있다.

선생이 마지막 남긴 애끓는 유서는 이러하였다.

황제에게 올리는 유소(遺疏)

(전략) 신은 죄가 많고 충성이 열어서 성상의 뜻을 감동하시게 못하여 역신을 제거하지 못하고 겁약劫約을 취소하지 못하게 되니, 한번 죽음으로 국은國恩에 보답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감히 폐하게 영결하는 것입니다. 신이 죽은 후에는 큰 결단을 내리시어 제순齊純·지용址鎔·근택根澤·완용完用·중현重顯의 5적을 대역부도大逆不道로 논하시어 섬멸하여 천지신인天地神人에게 사례하시고, 곧 각국 공사에게 교섭하여 위약僞約을 깨끗이 없애버리고 국가의 명맥을 회복하신다면 신의 죽는 날이 사는 해가 되겠습니다. 만일 신의 말이 망령된 것이라면 곧 신의 몸둥이를 짓담아서 여러 적에게 하사하십시오.

신이 정신이 혼미하고 산란하여 하고 싶은 말을 다하지 못하니 원통한 마음 하늘에 사무쳐서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겠습니다. 궁궐을 우러러 보오니 눈물이 샘솟듯 할 뿐입니다. 성상께서는 슬프게 여기시고 생각하시어 죽을 때의 하는 말을 채납해 주신다면 종사宗社의 다행이요, 천하의 다행이겠습니다. 신이 피눈물 흐르고 목이 메이는 충심을 참지못하와 감히 자결하며 아뢰나이다.
(후략)

결고訣告 전국 인민서

병세秉世는 죽으면서 국내 인민에게 경고합니다.

아아! 강한 이웃 나라가 맹약盟約을 어기고 적신賊臣이 나라를 팔아 5백 년 종묘사직이 위태롭기가 깃발에 매달린 실끈 같고 2천만 생명이 앞으로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차라리 나라를 위하여 죽을지언정 차마 오늘 의 이런 수욕羞辱이야 당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지사志士가 피를 뿌리고 열사烈士가 울음을 삼킬 때입니다.

병세는 충분忠憤히 격동하여 역량도 생각지 못하고 글을 봉하여 궐문을 두드리고 대궐문에 거적자리를 펴고서 국권을 옮겨진 후에 회복하고 생명을 막바지에서 구원하려 하였는데,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대세가 다 틀리고 마니 오직 한 번 죽음으로써 위로 국가에 보답하고 아래로 여러 사람에게 사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도 여한餘恨이 있는 것은 나라 형세가 회복되지 못하고 임금의 근심이 풀리지 않은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전국 동포는 내가 죽었다고 하여 슬퍼하지 말고 각자 분발하며 더욱 충의를 면려하여 나라를 도와서 우리 독립의 기초를 튼튼히하고 회계會稽의 수치를 씻는다면 병세는 지하에서도 춤추며 기뻐하겠소. 각기들 힘쓰시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 전국훈장 대
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1992년 「이달의 獨立運動家」

月別	有功者名	敘 勳		主 要 功 績
		年度	勳 格	
1	金相玉	62	大 統 領 章	서울鍾路警察署 投彈
2	片康烈	62	大 統 領 章	義成團 團長
3	孫秉熙	62	大韓民國章	3·1運動 民族代表
4	尹奉吉	62	大韓民國章	虹口公園 爆彈 投擲
5	李相龍	62	獨 立 章	大韓民國 臨時政府 初代國務領
6	池青天	62	大 統 領 章	大韓光復軍 總司令官
7	李商在	62	大 統 領 章	新幹會 初代會長
8	徐 一	62	獨 立 章	大韓軍政署 總裁
9	申圭植	62	大 統 領 章	大韓民國 臨時政府 國務總理 代理 兼 外務總長
10	李奉昌	62	大 統 領 章	日王 誅殺 爆彈投擲
11	李會榮	62	獨 立 章	獨立軍基地 建設
12	羅錫疇	62	大 統 領 章	東洋拓殖(株) 投彈

1993년 「이달의 獨立運動家」

月別	有功者名	敘 勳		主 要 功 績
		年度	勳 格	
1	崔益鉉	62	大韓民國章	乙巳5賊 處斷 上疏 湖南義兵 指導者
2	曹晚植	70	大韓民國章	朝鮮物產獎勵運動 指導者 反託運動等 民族主義者
3	黃炳吉	63	獨 立 章	中國 東北地方 琿春市 3·1 運動 指導者
4	盧伯麟	62	大 統 領 章	大韓民國 臨時政府 軍務總長 國務總理
5	趙明河	63	獨 立 章	日國 王族 久邇宮 陸軍大將 刺擊
6	尹世胄	82	獨 立 章	朝鮮義烈團 및 義勇隊 組織 抗日武裝鬭爭
7	羅 喆	62	獨 立 章	五賊誅殺 活動 大倭教 創教
8	南慈賢	62	大 統 領 章	朝鮮總督 및 駐滿 日大使 誅殺計劃
9	李麟榮	62	大 統 領 章	義兵 元帥府 13道 總大將 各道義兵將 糾合 서울 進攻 시도
10	李章寧	63	獨 立 章	北路軍政署 參謀將 靑山里戰爭 大勝 寄與
11	鄭寅普	90	獨 立 章	祕密結社 同濟社 加入 活動 國魂喚起運動 展開
12	吳東振	62	大韓民國章	光復軍總營 司令 高麗革命黨 組織, 服役中 殉國

1994년 「이달의 獨立運動家」

月別	有功者名	敘 勳		主 要 功 績
		年度	勳 格	
1	李源祿 (李陸史)	90	愛 國 章	大邱朝鮮銀行 投彈 民族詩人
2	林炳瓚	62	獨 立 章	乙巳勒結 反對, 義兵舉義
3	韓龍雲	62	大韓民國章	33人中 1人, 新幹會
4	梁起鐸	62	大 統 領 章	臨政 國務領, 正義府 代表 新民會
5	申八均	63	獨 立 章	大韓統義府 司令官
6	白貞基	63	獨 立 章	駐中 日國公使 誅殺
7	李 儁	62	大韓民國章	헤이그밀사(殉節)
8	梁世奉	62	獨 立 章	朝鮮革命軍 總司令官
9	安 武	80	獨 立 章	國民會軍 司令官
10	曹成煥	62	獨 立 章	臨政 軍務部長 大韓獨立軍團 副總裁
11	金學奎	62	獨 立 章	朝鮮革命黨軍司令府 參謀 光復軍 3支隊長
12	南宮憶	77	獨 立 章	大韓協會 會長

1995년 「이달의 獨立運動家」

月別	有功者名	敘 勳		主 要 功 績
		年度	勳 格	
1	金祉燮	62	大統領章	東京 二重橋 投彈(1924. 1. 5)
2	崔八鏞	62	獨 立 章	2·8獨立宣言 民族代表 (11人 中 1人)
3	李鍾一	62	大統領章	3·1獨立萬歲運動 民族代表 (33人 中 1人)
4	閔弼鎬	63	獨 立 章	臨時政府 議政院 議員 등 역임
5	李振武	62	獨 立 章	國內進攻作戰 전개 朝鮮革命軍 指揮官
6	張鎭弘	62	獨 立 章	朝鮮銀行 大邱支店에 投彈
7	全垂鏞	62	大統領章	湖南지역의 著名한 義兵將
8	金 九	62	大韓民國章	臨時政府 主席
9	車利錫	62	獨 立 章	臨時政府 國務委員 등 역임
10	李康季	62	大韓民國章	慶南北지방의 著名한 義兵將
11	李鎭龍	62	獨 立 章	黃海지역의 著名한 義兵將 滿洲지역 武裝抗戰
12	趙秉世	62	大韓民國章	乙巳條約 破棄上疏 自決殉國

1996년 「이달의 獨立運動家」

月別	有功者名	敘 勳		主 要 功 績
		年度	勳 格	
1	宋鍾翊	95	獨 立 章	興士團 副理事長 大韓人國民會 副議長
2	申采浩	62	大統領章	勸業新聞 主筆 義烈團의 朝鮮革命宣言 작성
3	申錫九	63	大統領章	3·1獨立萬歲運動 民族代表 (33人 中 1人)
4	徐載弼	77	大韓民國章	獨立新聞 창간 臨時政府 外交顧問
5	申翼熙	62	大韓民國章	臨時政府 法務總長, 外務總長
6	柳一韓	95	獨 立 章	필라델피아 自由韓人大會 決議 案 작성위원
7	金河洛	82	大統領章	경기도지역의 著名한 義兵將
8	朴尙鎭	63	獨 立 章	大韓光復會 總司令
9	洪 震	62	獨 立 章	臨時政府 法務總長, 國務領
10	鄭寅承	62	獨 立 章	한글학회, 큰사전 편찬
11	田明雲	62	大統領章	日帝 統監府 外交顧問 스티븐스 狙擊
12	鄭伊衡	63	獨 立 章	正義府 司令官 부관, 高麗革命黨 중앙위원

다시새기는그忠節

이탈의 獨立運動家 ⑧

인쇄일 1996년 2월 26일

발행일 1996년 3월 1일

발행 국가보훈처

인쇄 사인코리아

독립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거 발행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15000-35840-37-9603

〈비매품〉

이 책자를 다같이 운동하여 애국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되새겨 보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여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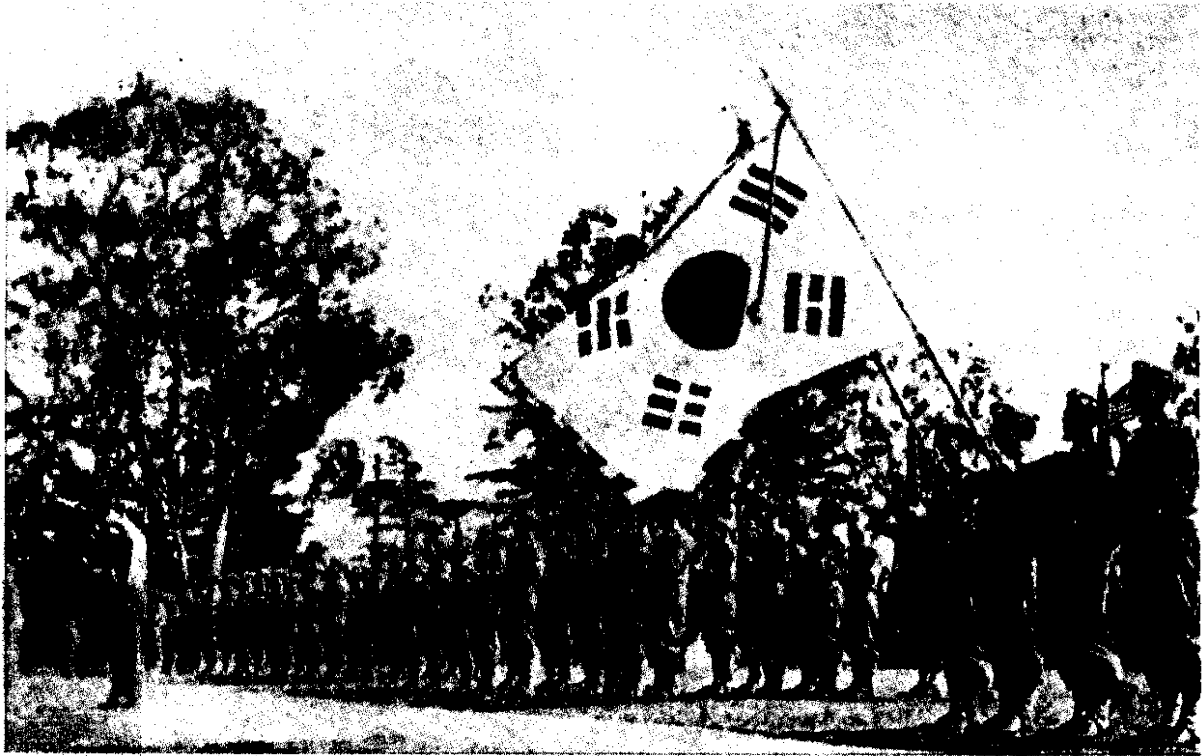
이 책자에 수록된 독립유공자에 대한 문의는 국가보훈처(자료관리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2)780 9808

다시새기는 그忠節

이탈의 獨立運動家 ⑨

國家報勳處 光復會 독립기념관 공동선정



國家報勳處

책 머 리 에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근대화에 뒤진 한민족은 우월한 무력을 앞세운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을 끝내 막아내지 못하고 유사 이래 처음으로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결코 좌절하지 않고 국내는 물론이요 남북만주와 중국대륙, 노령의 연해주와 멀리 미주지역에까지 망명하여 민족적 수난을 극복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싸웠으며, 마침내 1945년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8·15광복은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승리의 기록이며, 수없이 많은 선열들의 피의 대가로서 귀중한 정신적 자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은 우리 후손들의 귀감으로서 다시는 과거와 같은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하겠다는 경종이 되고 있으며, 국난의 역사적 경험이 없는 세대에게는 정신적 교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광복을 맞이한 지도 벌써 51년이 되었다.

그러나 지난 날의 귀중한 역사는 오히려 옛날 이야기가 되어 잊혀져 가고 있으며, 급변하는 현대생활 속에서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알려주는 일들이 도외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첨단 컴퓨터 장비를 이용하여 외국의 문물과 정보에 접하는데는 익숙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귀중한

역사와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에는 관심이 없어지게 된 데는 우리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선열들의 귀중한 정신을 다시 되새기고 이를 계승 선양하는데 크게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처에서는 지난 1992년부터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매월 한 분씩 선정하여 이분들의 충절과 희생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기회를 마련하여 왔으며, 그 중 여섯 분씩을 단행본에 수록하여 지금까지 총 8권의 소책자를 간행 보급한 바 있다.

금년 광복절에는 1996년 1월부터 6월까지 선정된 이달의 독립운동가 송중익·신채호·신석구·서재필·신익희·유일한 선생 등 여섯 분의 공적을 모아 아홉 번째의 소책자를 보급하게 되었다.

이 소책자가 애국선열들의 업적을 되새기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건전한 가치관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싹틔우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끝으로 이 책자가 나오기까지 힘써주신 광복회와 독립기념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국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언론 및 방송 관계 인사들에게 심심한 경애의 말씀을 드린다.

1996년 8월 15일

국가보훈처장 黃 昌 平

951.61092³
74276
v.9

차 례

이달의 獨立運動家 (1996. 1~6월)

- 1월 : 友江 송종익(宋鍾翊) 선생4
- 2월 : 丹齋 신채호(申采浩) 선생14
- 3월 : 殷哉 신석구(申錫九) 선생30
- 4월 : 松齋 서재필(徐載弼) 선생40
- 5월 : 海公 신익희(申翼熙) 선생58
- 6월 : 유일한(柳一韓) 선생74

附 錄

- 이달의 獨立運動家 (1992~1996) /87

· 표지사진 : 맹호군 훈련식 광경(1942. LA)

1 월의 독립운동가



友江 송종익(宋鍾翊) 선생

1887. 2. 27~1956. 1. 7

- 1919. 대한인국민회 재무로 임시정부 지원
- 1921~1925. 미주 홍사단 이사부장 역임
- 1941. 대한인국민회 부의장에 선임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집행부 재무로
활동

선생은 1887년 2월 27일 경북 대구에서 부친 송인구의 맏아들로 출생하였다. 1905년 일본에 유학하였다가 큰 뜻을 펴고자 1906년 4월에 미국으로 건너가 소학교를 졸업하였으며 당시 한인들의 항일민족 운동단체인 공립협회에 가입하였다. 1908년 3월에 일제 통감부의 외교고문인 스티븐스(Stevens, D. W.)가 샌프란시스코의 각 신문에 일제의 한국 '보호국'화를 왜곡 선전하자 전명운(田明雲)·장인환(張仁煥) 의사(義士)가 스티븐스를 처단한 사건이 있었다. 이때 선생은 이들 두 의사의 법정 투쟁에 대비하여 조직된 재판후원회의 재무로 선임되어 활약하였다.

1912년 도산(島山) 안창호(安昌浩) 선생이 미국의 리버사이드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와서 맨 먼저 송종익 선생에게 「홍사단 약법」의 초안을 보이고 상의했다. 이때부터 송종익 선생은 홍사단의 첫 동지가 되어 일생을 단(團) 운동에 바치게 된다. 이를 일러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뒤로 정

원도·하상옥·강영소 세 동지를 얻고 이들 3인으로 홍사단을 발기시키려고도 했으나 8도 대표로 구성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이나 꾸준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홍사단은 진정한 애국자를 일으킨다는 의미

도산(島山)은 청도회담 이후에 맛본 쓰라린 경험으로 파벌의 병폐를 고치기 위하여, 홍사단 창립위원을 8도 대표로 구성했던 것이다. 8도 대표는 즉 홍언(경기도)·조병옥(충청도)·송종익(경상도)·정원도(전라도)·김홍균(평안도)·김종립(함경도)·민찬호(황해도)·염만석(강원도)이었다. 1913년 5월 1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강영소의 집에서 홍사단 창립총회가 열렸는데 이때 발기인은 25명이었다. 홍사단(興士團)의 사(士)자는 문사(文士)와 무사(武士)를 병칭하는 뜻으로 결국 홍사란 진정한 애국자를 일으킨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창립된 홍사단의 목적 조항 및 행동강령은 ‘건전인격’과 ‘신성단결’을 위한 ‘무실역행’으로 우리 민족 전도대업의 기초를 준비하며 정치운동을 초월하고 기본적인 민족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단기(團旗)에도 이러한 뜻이 나타나니 황색은 무실(務實), 홍색은 역행(力行), 백색은 충의(忠義), 청색은 용감(勇敢)을 상징하며 날아가는 기러기 모양의 선비사(士)자는 홍사(興士)의 뜻이다. 또 원형은 단결의 뜻이니 즉 무실·역행·충의·용감의 사대정신(四大精神)을 가진 홍사단이란 의미이다.

홍사단은 결국 ‘무실 역행’을 통해 민족의 실력을 키우고 ‘충의 용감’으로써 독립을 달성하며 새로운 민족국가를 건설하기까지 민족의 장래를 준비하고자 조직한 단체이다.

홍사단은 몸과 마음을 단련하여 품성·지혜·도덕을 닦는다는 수양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는데 그 수양은 민족과 국가를 외면한 개인 차원의 수양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민족독립과 국가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가는 심신(心身) 훈련 단체인 것이다. 그래서 홍사단에서 설정한 ‘수양(修養)’이란 뜻은 단순히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라 민족의 발전을 전망하는 대의(大意)를 내포하고 있다. 즉 홍사단의 인격수양은 단원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이며 이를 바탕으로 단결하여 혁명사업과 사회봉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은 홍사단보에 실린 다음과 같은 논설에서 그 단면을 엿볼 수 있다.

“돈 몇 원만 모으면 큰 부자의 행세를 하며 책 몇 권만 보면 큰 학자의 체통을 찾으며, 연설 몇 마디만 하면 큰 정치가의 자격을 가진 척하여 그 도량이 좁은지라 어찌 크고 깊은데 이르리오. 그 바람이 적은지라 어찌 높고 먼 것을 이룰 수 있으리오.”

위 논설은 수십 년 전의 우리의 한 단면을 그린 것에 불과하지만 어찌면 지금의 우리들에게 더 적합한 지적인지도 모른다.

도산 안창호의 활동도 개인적 차원의 행적이라기 보다 이러한 홍사단 조직과 단원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수행되었다.



홍사단 이사부장 시절(앞줄 좌로부터 3번째)

홍사단 정신의 실천을 위해 노력

홍사단은 1913년 창단 이후 1920년까지 8년 간 창단위원회에서 운영하였고 1921년부터 이사부·의사부·심사부의 3부 역원제가 실시되었다. 송종익 선생은 1921년부터 1925년까지 이사부장을 맡았고 1926년부터 1936년까지는 이사부 재무원으로 도산의 부재시 실질적으로 홍사단을 이끌어 갔다. 홍사단은 미주지역에서 창단되었으나 중국에 홍사단 원동임시위원부와 국내에 수양동맹회와 동우구락부가 결성되어 세력을 확장해 갔다.

홍사단의 창립자인 도산은 1919년 상해에 임시정부가 조직되자 노동협판 등 정부요인으로 활동하였으므로 홍사단 미주본부의 사무는 송종익 선생의 주재하에 이루어졌다. 선생은 홍사단 활동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도산의 가족까지도 보살피는 등 헌신적으로 봉사하였다.

선생은 중국지역 독립운동 세력의 지원을 위해 북미실업주식회사를 세워 재정 확충에도 힘썼다. 주식회사를 통해 적립된 자본으로 중국에 은행을 세워 독립운동 자금을 항시적으로 확보하고 국제간의 신용을 높인다는 원대한 계획이었으나 벼농사의 실패로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선생은 이후 대한인국민회와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등 미주지역의 주요 단체에서도 활동하지만 그 기반과 정신적 근원은 모두 홍사단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선생은 이후 평생을 홍사단에 헌신하면서 홍사단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는 한편 이러한 정신을 널리 알리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다. 선생은 낮에는 백인의 집에서 품을 팔아 그의 동지를 보양하며 밤에는 서류를 만들어 단우(團友)들의 향단심(向團心)과 애국심을 일으키기에 힘썼다.

홍사단 단기(團旗)에 대한 선생의 시는 이러한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

우뚝서 바람에 날리고
장하다 네 빛 네 정신아
기러기 펄펄 일어나고
등그림 훨훨 지어온 바

우러러 네게 경례하며
 갖추어 내가 노래하며
 높고 깊은 근심 걱정이
 한 없이 절로 위로되네

백두산 바라는 남녀야
 황흥백남 자랑하오
 기초준비 튼튼히 기해
 한길로 나아 나아 가세

독립운동지원과 미주지역 항일역량 결집에 힘쓰다

1919년 3·1운동과, 이어 상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미주 대한인국민회의 재무로서 대한민국임시정부 건설의 경비 조달에도 참여하였다.

1922년 1월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는 대의회의 결의로 지방총회를 폐지한 후 미주 멕시코 쿠바에 있던 지방회들만으로 국민회를 재편성하고 북미 대한인국민회라 개칭하였다.

그 후 일제가 만주사변을 도발하고 최후의 발악을 시도하자 1936년 5월 국민회는 미주 각 지역의 대표자들을 소집하여 항일역량의 결집을 시도하였다. 선생도 이에 참여하여 김호·이살음·송헌주 등과 함께 항일 독립운동의 후원에 힘을 쏟았다. 선생은 총회관 건축위원에 선임되어 국민회의 중흥에 노력하는 한편 임시정부를 비롯한 중국지역 항일세력의



대한민국민회 중앙총회관(로스앤젤레스 제퍼슨 거리)

지원도 계속하였다.

국민회는 특히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광복 때까지 외교사업과 국방후원 및 동포들의 전시안녕 보장을 주도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광복군 편성을 후원하였다.

1941년 4월 하와이 국민회 및 동지회와 북미 국민회 등은 하와이 국민총회관에서 ‘대한민족이 대동단결하여 독립전선에 역량을 집중하고 광복대업을 축성할’ 것을 목적으로 해외한족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중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등 세계정세의 변화에 호응하고 종래 분산적으로 전개되던 독립운동 및 지원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미주

지역 운동단체들의 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이었다. 그 결과 ‘대한민족의 독립운동과 항일전선을 통일하여, 항일승리를 획득하기 위해 재미한인단체들을 규합, 그 역량을 집중하여 일반운동을 확대 강화’ 할 것을 표방하며 재미한족연합위원회(在美韓族聯合委員會)를 조직하였다. 한족연합위원회는 나성(로스앤젤레스)에 집행부와 호놀룰루에 의사부를 두어 각각 임원을 선정하고 1943년 봄까지 독립자금을 수합하여 3분의 2는 임시정부에 보내고 3분의 1은 구미위원부에 보내어 광복사업비에 보충케 하였다. 선생은 미주대표로서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집행부 재무에 선임되어 이러한 활동에 앞장섰다.

대한인국민회에서 중추적인 역할 담당

1941년 12월 대한인국민회 총회에 나성(羅城) 대표로 참석하여 부의장에 선출되었으며, 1943년 9월 26일 개최된 한족연합회에서는 위원 겸 재무과장에 선임되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1943년 9월 이승만이 영도하는 동지회가 재미한족연합위원회로부터 탈퇴하자, 1944년 연합위원회는 워싱턴에 별도로 외교사무소를 설치하여 동 지회의 외교사무소와 병립함으로써 외교활동에 지장이 생겼다. 이에 임시정부는 외교기관의 통일책을 강구하여 1944년 8월 주미외교위원부를 폐지하고 새로이 주미외무위원회(駐美外務委員會)를 설치키로 하고 위원회의 인선을 재미한인사회에 일임하였다. 그리하여 미주

와 하와이 각지에 있던 17개 단체 중에서 13개 단체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외교위원회 개조안 발표에 의하여 대표회를 열기로 동의하였다.



송중익 선생의 묘(로스앤젤레스 로즈데일 묘역)

1944년 10월 28일 13개 단체 대표들이 로스앤젤레스에 모여 재미한인 각 단체 대표회를 열자 대표원의 자격으로 이에 참가하여 15명의 주미외무위원회 위원을 선출 추천하였는데 선생도 주미외무위원회 위원에 선임되었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동지회가 불참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인선을 인준하지는 않았다.

선생은 광복 후인 1945년 11월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대표단의 일원으로 귀국하여 조국재건과 홍사단 부흥에 힘쓰는 등 평생을 독립운동지원과 홍사단 정신의 발양에 헌신하였다.

그 후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다가 1956년 1월 7일 별세하였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2 월의 독립운동가



丹齋 신채호(申采浩) 선생

1880. 11. 7~1936. 2. 21

- 1907. 신민회 가입
- 1911. 권업회 조직, 권업신문 주필
- 1919. 상해 임시정부 수립에 참가
- 1923. 의열단의 조선혁명선언 작성
- 1936. 10년 형을 받고 여순감옥에서 옥중 순국

한(韓)나라 생각

나는 네 사랑 너는 내 사랑
 두 사람 사이 칼로 썩 베면
 고우나 고운 핏덩이가
 줄 줄 줄 흘러 내려오리니
 한 주먹 덩씩 그 피를 쥐어
 한(韓)나라 땅에 골고루 뿌리리
 떨어지는 곳마다 꽃이 피어서 봄맞이 하리

-1910년 압록강을 건널 때 읊은 시-

선생은 1880년 11월 7일 충청남도 대덕군 산내면 어남리 도림마을에서 유생인 고령 신씨(高靈申氏) 광식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선생은 7살에 아버지를, 15세에 친형(대호)을 잃었다.

정언(正言)을 지낸 조부(祖父) 성우(星雨)가 운영하던 사숙(私塾)에서 6세 때부터 한학을 교육받아 10세 때 행시(行

詩)를 지었으며, 12~13세 때 사서삼경(四書三經)을 독파하여 신동의 소리를 듣기도 하였다.



단재 영당(충북 청원군)

18세 때 조부 정언 공의 소개로 한말 유학자였으며, 학부대신이었던 양원(陽園) 신기선(申箕善)의 천원군 목천에 있는 사저(私邸)를 출입하면서 소장되어 있는 신·구서적을 섭렵하여 새로운 학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였다.

신기선은 동도서기(東道西器)적 개화사상을 가진 정치가로서 여기에서 개화에 대한 최초의 인식변화를 가지게 되었으며, 19세인 1898년 가을 신기선의 추천으로 성균관에 입학하였다.

그 곳에서 백암 박은식이 주도한 일부 진보적 유학경향에 접하면서 유교학문의 한계를 깨닫고 봉건유생의 틀에서 벗어나 점차 민족주의적 세계관을 갖게 된다. 당시 서울에선 독립협회의 자주·민권·자강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대중집회 형태의 만민공동회가 연일 서울 종로 한복판에서 열렸고, 러시아의 경제 군사적 간섭에 반대하는 격문이 나붙는가 하면 일본의 월미도 석탄고 기지 철수운동이 활발히 전개됐으며 「독립신문」, 「매일신문」, 「황성신문」 등이 이를 열렬히 지원했다.

성균관에서 개화파들과 교분을 다져온 선생이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내무부 문서부 간부로 활약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 해 12월 25일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가 강제 해산되고 주동자 4백여 명이 체포될 때 선생도 구속됐다가 얼마 뒤 석방되었다.

이후 22세 때인 1901년 낙향하여 예관 신규식(申圭植)이 청원군 낭성면 인차리에 설립했던 문동학원(文東學院)의 강사로 부임했다. 여기서 학생들에게 신교육을 통한 계몽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개화자강사상가로서 자기혁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1902년 일본에 마산항을 조차지로 떼 준 정부에 대한 성토문을 발표한 데 이어 1904년 ‘항일성토문’을 작성해 일제의 조선침략을 규탄하였다.

애국계몽운동의 이론가로 필봉을 휘두르고

1905년 26세에 성균관 박사가 되었으나 관직에 나아갈 뜻을 버리고 얼마 후 위암(韋庵) 장지연(張志淵)의 초빙으로 황성신문(皇城新聞)에 논설기자로 입사하였다. 이로써 한말 언론계에 입신하여 애국계몽운동의 이론가로서 그의 문명을 떨치게 된다.

당시의 애국계몽운동이란 한말 일제에게 주권이 상실되어 가던 상황 속에서 실력을 양성하여 국권을 회복코자 한 민족운동의 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해 11월 을사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황성신문의 사장 겸 주필이었던 장지연이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의 논설로 조약을 규탄하게 되자 황성신문은 압수와 함께 무기정간 처분을 받았다.

1906년 선생은 대한매일신보의 총무 운강(雲岡) 양기탁(梁起鐸)의 천거로 다시 이 신문의 논설진에 참가하게 된다. 이 당시 편집진은 박은식(朴殷植)·최익(崔益)·옥관빈(玉觀彬)·변일(卞一) 등이었으며 단재(丹齋) 뒤에는 장도빈(張道斌)이 입사하였고, 영업진에는 양기탁(梁起鐸)·임치정(林蚩正)·안태국(安泰國) 등이 있었다.

당시 대한매일신보는 공식적인 사주(社主)가 영국인 베텔(E. T. Bethell)이었으므로 일제 통감부의 보안규칙이나 신문지법에 저촉을 받지 않았다.

여기서 자유롭게 필봉을 휘둘러 일제의 침략과 친일파의 매국행위를 통렬하게 비판하고 국권회복에 온 국민이 진력할

것을 계몽하였다.

논설기자로 입사한 지 얼마 후 이 신문사의 주필이 되었으며, 1910년 중국으로 망명하기 전까지 일본의 3대충노(三大忠奴)·서호문답(西湖問答)·영웅과 세계·한일합병론자에게 고함 등 애국적 계몽논설과 사론을 집필하고 독사신론(讀史新論)·이순신전·최도통전 등 역사물을 연재하였다.

신민회 창립위원으로 참가

그리고 필봉(筆鋒)으로서 뿐 아니라 사회현실에 직접 뛰어 들어 행동하는 실천인으로서의 모습도 보여주었는데 1907년 안창호(安昌浩) 등에 의한 비밀결사 신민회에 창립위원으로 참가하여 대한신민회취지서(大韓新民會趣旨書)를 기초하기도 하였다.

신민회의 평북책이었던 이승훈이 건립한 정주의 오산학교에 들른 단재의 모습을 당시 교사를 하고 있던 춘원 이광수는 1936년 4월 「조광」에 이렇게 적고 있다.

“...대한매일신보 주필이나 되는 단재는 풍채가 초라한 샌님이나 이상한 눈빛을 갖고 있었다. 세수할 때 고개를 뺏뺏이 든 채로 물을 찍어다 바르는 버릇 때문에 마룻바닥, 저고리 소매와 바지가랑이가 온통 물투성이가 됐다. 누가 편잔을 주려 하면 ‘그러면 어때요’라고 하였다. 남의 말을 듣고 소신을 고치는 인물은 아니었다.

그러면서도 웃고 얘기할 땐 다정스러웠다.”

또한, 같은 해 전국적으로 일어난 민족경제수호운동인 국채보상운동(國債報償運動)에도 적극 참여하여 논설을 통하여 그 필요성을 역설하고 본인 자신은 금연을 결행하기도 하였다.

1908년 기호흥학회(畿湖興學會)가 발기되자 이에 가담하여 그 월보에 애국계몽논설을 발표하였으며, 1909년에는 윤치호(尹致昊)·안창호(安昌浩)·최남선(崔南善) 등과 신민회의 합법단체인 청년학우회(靑年學友會)를 발기하여 그 취지서를 집필하는 등 구국운동단체에 가입하여 실천적으로 애국계몽운동을 추진하였다. 또한, 주시경(周時經)과 함께 국문전용의 여성잡지인 「가영잡지」의 편집인이 되어 부인층의 계몽에도 노력하였다.

역사 연구가 곧 민족독립운동

애국계몽사상가로서 보다 확고한 위치를 다지게 된 것은 민족역사에 대한 선생의 연구에 있었다.

전기물(傳記物)인 『이태리건국삼걸전(伊太利建國三傑傳)』·『을지문덕(乙支文德)』·『이순신전(李舜臣傳)』·『동국거걸최도통전(東國巨傑崔都統傳)』 등과 사론(史論)인 「독사신론(讀史新論)」을 비롯한 많은 논설에서 민족사적 영웅들의 전기를 통하여 민족자강주의를 구현하고 영웅사관을 제시하여 국가의 존망지추에 제2의 을지문덕·이순신·최영을 고대하는 민족자존의 방도를 강구하였다.

光武五年壬子三月廿五日

我來子午谷知是并州鄉左
 上舍公待我宜諸倚吾宗大姑
 八臺奉高堂玉對謝家寶
 授詞章所愧為人師不能引
 情若一家厚寢食中星霜居
 事及踵門多感傷幹家有克
 緒緒思不忘餘力則以學孝
 其常晨省早拜廟必芬朔
 觴修身莫如禮齊家得其方
 言出肝膈書贈愧拙荒

단재 선생의 글씨

당시 문화계에는 존화사관에 젖은 중세유교사학이 일반적 경향이었다.

또한 일본 사학자들이 근대사학의 미명하에 『조선사(朝鮮史)』 등을 저술하여 조선이 고대 이래 중국과 일본에 복속했으며 일본은 가야에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를 설치하여 남한을 지배했다는 등 초기 식민주의사관을 지어내어 퍼뜨리면서 일본제국주의의 한국침략을 정당화 하기 위해 광분하고 있었다.

선생은 국권회복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원동력인 국민의 애국심을 계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민족주의적 역사를 저술

하여 온 국민에게 읽히는 일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함을 통감하였다. 그리하여 독사신론(讀史新論)에서 격렬한 필치로 한편으로는 존화주의에 젖은 중세사학을 비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제의 초기 식민주의사관의 거짓학설에 학문적 투쟁을 전개하면서 민족주의에 입각한 자주적이며 실증적인 한국고대사 재구성에 노력했다.

1910년 대한매일신보에 「이십세기신국민(二十世紀新國民)」이란 논설을 연재하여 중고적(中古的) 영웅의 한계를 지적하고 20세기 국가경쟁의 원동력은 한들의 영웅에 있지 않고 정치·종교·실업·무역·학술 등 사회 각 부문에서 활약하는 국민적 역량에 달려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국민 각계각층의 대내외적 외경력(外競力)의 발휘를 촉구하였다.

그리고 신국민이야말로 장차 국권을 회복하고 근대국민국가를 수립하는 역사와 사회의 주체라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애국계몽기의 단재 사관은 그 뒤 1920년대에 완성되는 민족주의 사학에 기초를 마련하여 역사 연구가 곧 민족독립운동이라는 의식을 갖게 했다. 이는 “국사는 곧 국혼(國魂)”이라는 박은식의 역사인식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으로, 지난 날의 역사를 소홀히 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 현대인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망명 길에 올라 독립운동에 힘쓰고

1910년 신민회 간부들은 일제의 침략 아래서 국내에서의

국권회복운동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먼저 국외 독립운동기지를 구축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삼아 장차 일제와 독립전쟁을 전개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단재는 안창호(安昌浩)·이갑(李甲)·이종호(李鍾浩) 등과 함께 그 해 4월 망명길에 올랐다.

중국 산둥반도의 청도(靑島)에 도착하여 신민회 동지들과 함께 앞으로의 독립운동의方略(方略)을 논의하는 청도회의(靑島會議)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토지개간사업, 무관학교 설립, 교관양성 및 전문기술자 확보(초빙) 등을 결의하였다.

한편 1911년 독립운동을 위하여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윤세복(尹世復)·이동휘(李東輝)·이갑(李甲) 등과 광복회(光復會)를 조직하여 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그 해 12월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상설(李相高)·김학만(金學滿)·이종호(李鍾浩) 등이 설립한 권업회(勸業會)에서 그 기관지 「권업신문(勸業新聞)」을 창간하자, 이 신문의 주필로 취임, 활동하여 러시아·중국의 한민족을 두루 계몽시켜 일제병탄 후 명멸해 가던 한국혼을 되살리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다.

1913년 신규식의 주선으로 상해(上海)로 가서 동제사(同濟社)에 참여하고 박은식(朴殷植)·문일평(文一平)·정인보(鄭寅普)·조소양(趙素昂) 등과 함께 박달학원(博達學院)을 세워 중국에 있는 한국청년들의 민족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이듬해 봉천성 회인현에서 윤세복(尹世復)이 경영하는 동창학교(東昌學校)의 교사로 초빙을 받아 청소년들에게 국사 교육을 시키는 한편 조선사(朝鮮史)를 집필하기도 하였으며,

이 시기에 만주 일대의 고구려와 발해의 유적을 답사하여 민족 사학의 실증적 토대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그 후 다시 북경(北京)으로 돌아가 우리 나라 역사의 새로운 체계화를 구상하면서 1916년 중편소설 『꿈하늘(夢天)』을 집필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문학작품으로서의 의미 뿐만 아니라 한국민족이 당면한 현실적 역사적 과제와 독립운동의 길을 상징적 수법으로 극화(劇化)한 작품으로 1928년의 소설 『용(龍)과 용(龍)의 대격전(大激戰)』과 함께 그의 문학적인 대표작으로 평가되며 강렬한 항일무장투쟁(抗日武裝鬪爭)의 의지(意志)를 표명하는 내용이었다.

1918년경부터 북경대학(北京大學) 이석증(李石曾) 교수의 주선으로 보타암(普陀庵)에 자리를 잡고 한국사 연구를 계속하는 한편, 동 대학에 소장돼 있는 중국의 역대사료(歷代史料)와 문집을 집성해 놓은 사고전서(四庫全書)를 섭렵하였으며, 북경일보 등에 논설을 쓰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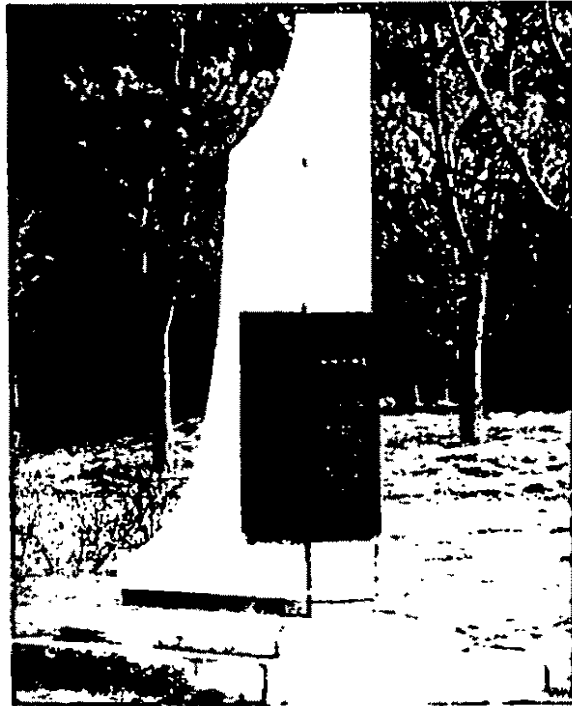
선생은 이석증(李石曾) 교수와 동 대학 채원배(蔡元培) 총장과 친교를 맺고 있었는데 그들은 중국 무정부주의(AN-ARCHISM)의 초창자(草創者)들이며 5·4운동의 정신적 지주이었다. 이때부터 선생은 무정부주의에 대한 사상적 기반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무장투쟁을 통한 독립운동에 나서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에 가까워지자 국외망명지도자들 사

이에는 국제정세의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17년 대동단결선언(大同團結宣言), 1919년 대한독립선언서(大韓獨立宣言書)를 발표하는 등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략을 모색하였는데 이 두 선언서의 서명자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북경·천진 등에 유학하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북경의 구고루대가(舊鼓樓大街)에서 「대한독립청년단」이 조직되었는데 단장에 추대되어 활동하였다.



단재 선생의 어록비(독립기념관)

이어 북경으로부터 상해로 가서 1919년 4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위한 최초의 29인의 모임(임시정부 발기회

의)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의정원회의에서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추대하자 그가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한국에 대한 위임통치청원서를 제출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 이를 반대하고 퇴장하였다.

제2회 의정원회의에서 의정원 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제5회 의정원회의에서는 전원위원회(全員委員會) 위원장과 충청도 위원에 선출되었다.

1919년 9월 상해임시정부가 노령임시정부(국민의회)와 한성임시정부를 통합하여 통합 임시정부로 발전할 때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자 다시 분개하여 임시정부와 결별을 선언하고 반(反) 임시정부의 노선을 취하였다.

1919년 10월에는 상해에서 「신대한(新大韓)」지를 발행하여 무장투쟁노선을 지지하는 언론활동을 했으며, 남형우(南亨祐) 등 동지들과 함께 신대한동맹단(新大韓同盟團)을 조직하여 그 부단장으로 활동하였다.

1920년 4월 「신대한(新大韓)」지의 발행이 중단되자, 북경으로 이주하여 박용만(朴容萬) 등 동지 50여 명과 함께 제이회보합단(第二回普合團)을 조직하고 그 내임장(內任長)을 담당하였다.

제이회보합단(第二回普合團)은 독립군단체 보합단을 계승한 단체로서 무장군사활동을 유일한 독립운동방략으로 채택한 독립운동단체였다.

1920년 9월 박용만(朴容萬)·신숙(申肅) 등과 함께 군사통일촉성회(軍事統一促成會)를 조직하여 분산된 독립군 부대들의 지휘계통과 독립운동 노선의 무장투쟁 노선에의 통일

을 추구하였다.

1921년 1월 김창숙(金昌淑) 등의 지원을 받아 「천고(天鼓)」잡지를 창간하여 격렬한 필치의 언론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921년 4월에는 54명의 동지들과 함께 위임통치청원을 규탄하는 「성토문」을 공표하였다.

의열단의 조선혁명선언 작성

그 후 의열단의 요청을 받고 의열단의 독립운동노선과 투쟁방법을 천명하는 유명한 「조선혁명선언(朝鮮革命宣言)」을 집필하였다. 서두에서

“강도(強盜) 일본이 우리의 국호(國號)를 없이 하며, 우리의 정권(政權)을 빼앗으며, 우리의 생존적 필요조건을 다 박탈하여 온간 만행을 거침 없이 자행하는 강도정치가 조선민족 생존의 적임을 선언함과 동시에 혁명으로 우리의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을 살벌(殺伐)하는 것이 조선민족의 정당한 수단임”을 선언하였다.

조선혁명선언이 비록 의열단 선언문으로 집필된 것이었으나 선생의 의도는 그 이상의 것이었다. 이것은 이 선언문을 「의열단 선언」이라고 공식명칭을 붙이지 아니하고 「조선혁명선언」이라고 일반화 시킨 데서 알 수 있다.

「조선혁명선언」은 일제의 요인(要人)과 기관을 암살 파괴할 폭탄, 단총(短銃)과 함께 의열단원이 휴대하는 필수품의 하나였으며, 이들이 활동하는 국내·중국·일본 등 각지에

널리 뿌려졌다. 이 선언은 국내외 동포들에게 일제에 대한 적개심과 독립사상을 한층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일제 당국은 큰 전율과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었다.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

1923년 1월에 상해에서 국민대표회의(國民代表會議)가 개최되자, 창조파에 가담하여 상해임시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임시정부의 수립을 주장하였다. 국민대표회의가 실패로 끝나자 크게 실망하여 칩거하면서 국사연구에 종사하였다. 이 시기에 『조선상고문화사(朝鮮上古文化史)』·『조선상고사(朝鮮上古史)』·『조선사연구초(朝鮮史研究艸)』를 집필하여 근대민족사학을 확립하는데 박차를 가하였다.

1924년에 집필된 선생의 『조선상고사』는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씌어진 본격적인 근대 역사방법론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시기에 그가 이미 서구의 근대 역사이론과 사회과학이론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구래(舊來)의 한국사학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하여 한국사의 자주적 체계화를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선생의 포부와 구상이 잘 드러난 역저이다.

여기서 선생은 민족을 역사의 주체로 삼는 주체성의 문제를 한국사 체계나 사관(史觀) 정립(定立)에 있어 기본전제로 삼고,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 시간부터 발전하며 공간부터 확대하는 심적 활동의 상태의 기록”이라

고 정의하였다.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鬪爭)」사관이라는 격렬한 문제의식은 이 시기 그의 사회관이나 민족운동노선과 일정하게 대응되는 것으로서, 조선사를 서술할 때 조선민족을 아(我)의 단위로 설정한 전제에서 출발하여 한국사의 범위와 그 서술방법을 사론적(史論的)으로 밝혀놓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선민족 중심의 역사인식이 「낭객의 신년만필」이란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표현되었는데 이것은 외래문화의 무분별한 수입에 대한 경고로서 오늘날에도 교훈적이다.

“우리 조선은……석가가 들어오면 조선의 석가가 되지 않고 석가의 조선이 되며, 공자가 들어오면 조선의 공자가 되지 않고 공자의 조선이 되며, 주익가 들어와도 조선의 주익가가 되지 않고 주익의 조선이 되려 한다. 그리하여 도덕과 주익을 위하는 조선은 있고 조선을 위하는 도덕과 주익은 없다. 아! 이것이 조선의 특색이나? 특색이라면 노예의 특색이다. 나는 조선의 도덕과 조선의 주익을 위해 통곡하려 한다.”

이후 점차 무정부주의 독립운동에 관심을 갖고 1926년 재중국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在中國朝鮮無政府主義者聯盟)에 가입했으며, 1927년 9월에는 이필현(李弼鉉)과 함께 무정부주의동방연맹(無政府主義東方聯盟)에 조선 대표로 참석했으며, 1928년 4월에는 그 스스로 무정부주의동방연맹 북경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 결의에 따라 대만에서 외국위체를 위조



단재 선생이 옥사한 여순 감옥

하는 등 독립운동자금을 염출하는 직접 행동에 나섰으나 1928년 5월 8일 그 연루자로 일경에 피체되어 10년 형을 받고 여순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1936년 옥사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3 월의 독립운동가



殷哉 신석구(申錫九) 선생

1875. 5. 3~1950. 10. 10

- 1907. 종교를 통한 국민계몽운동으로 국권회복 노력
- 1919. 민족대표 33인 중 1인
- 1937. 천안에서 신사참배 거부운동으로 투옥
- 1945. 대동아전쟁 전승기원 예배 및 일장기 게양 거부 등으로 투옥

나는 한일합병에 반대한다. 조선사람 치고는 누구나 다 한가지 아니겠는가? 일본사람이 조선사람이 되어보면 또한 재판장이 지금 나의 처지가 되더라도 그러할 것이다. 독립사상은 합병당초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변함없이 내 가슴속에 사무쳐 있다.

-선생의 공판기록 중 진술내용-

선생은 1875년 5월 3일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금관리에 서 평산 신씨(平山申氏) 재기(在綺)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선생의 호는 은재(殷哉) 또는 춘정(春汀)이다. 7살에 어머니를 여의고 15세에 아버지를 잃었다. 때문에 선생은 평생 “조실부모하여 부모님을 봉양하지 못한 것”을 가장 원통해 하였다.

유가 가문에서 태어나 어려서 한문을 수학한 선생은 20대 초반 서울에서 군수 자제를 가르치기도 하였고, 이후 농업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국의 현실은 선생을 거기에 안

주하게 하지 않았다. 개항 이후 외세의 침략과 침탈 앞에 무방비 상태로 내던져진 나라의 운명을 보면서 선생은 국민된 한 사람으로서 의무를 자각하게 된 것이다. 특히 러일전쟁 직후 일제의 강요와 위협 아래 1905년 11월 체결된 을사늑약(乙巳勒約)은 선생에게 국망(國亡)의 위기를 절감하게 하였다.

구국의 방도로서 기독교 감리교에 입교

국권강탈 행위인 을사늑약은 일제가 그간 은폐해 왔던 한국 식민지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었다. 이렇게 되자 우리 민족은 본격적인 반일(反日)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당시 그것은 크게 두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하나는 장기적인 실력양성운동으로 「황성신문(皇城新聞)」·「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등의 신문과 잡지를 통한 언론계몽, 대종교·천도교·기독교 등의 종교단체를 통한 종교계몽, 각종 학회와 사립학교 설립을 통한 교육계몽, 국어와 국사연구를 통한 학술계몽 등 각계 각층의 국민계몽운동으로 진행되었다. 다른 하나는 즉각적 무력투쟁인 의병운동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의병운동은 1907년 7월 정미7조약에 따른 군대해산으로 해산군인들이 대거 의병대열에 참여함으로써 전국적인 의병전쟁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유교적 성장배경을 가졌던 선생 또한 이때에 의병을 일으켜 볼까 생각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선생은,

“병법에 ‘장수가 군대를 모르면 그 나라는 적을 흥하게 만들고, 병사에게 훈련을 시키지 아니하면 그 장수는 적을 흥하게 하는 것이며, 무기를 이롭게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병사 또한 적을 흥하게 하는 것이다.’고 하였으니 이 세 가지를 갖지 못한 내가 저 막강한 일본 군대를 대적한다는 것은 무고한 생명만 손상할 따름이지 구국할 도리는 아니다.”

고 생각하여 그만두었다. 그 대신 선생은,

“금일 우리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큰 도가 없는 까닭이니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려면 종교가 있어야 되겠다. 또 주색잡기·허랑방탕한 자들은 국민의 의무를 못할 뿐 아니라 패가망신하는 국민의 적들이오 잃어버린 국민들이니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려면 이들을 찾아서 제 의무를 할 줄 아는 국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구국책임을 깨달았다.”

고 하면서 종교를 통한 국민계몽운동으로 국권회복을 모색하였다.

그리하여 선생은 구국의 방도로서 기독교 감리교에 입교하기로 결심하고, 1907년 7월 14일 처음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였다. 때문에 선생에 있어서 종교는 개인적 신앙 그 자체만이 아니라 국민계몽의 길이었고 국권회복운동의 길이였다.

그러한 의도는 선생이 1908년 3월 미국인 선교사 왕영덕(王永德; A. W. Wasson)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1909년 2월 개성 북부교회의 책임을 맡으면서 구체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했다. 한국병탄 이후에는 감리교 강원도 홍천구역장(1910. 10~1914. 8)과 경기도 가평구역장(1914. 9~1915. 9)으로 활동하면서, 또는 1915년 10월부터 1918년 10월까지 춘천 지방에서 부흥사업에 종사하면서 암암리에 국민계몽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1918년 11월부터 1919년 3·1운동으로 일제에 피검될 때까지 서울 수표교 교회 목사로서 전도를 통해서도 활동이 이루어졌다.

1910년대는 헌병·경찰을 앞세운 일제의 무단정치와 토지조사사업을 통한 토지 약탈이 자행되고 있던 참담한 시기였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대다수 외국인 선교사들이 일제의 한국 식민지 지배를 은연중 지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1910년대 내내 이루어졌던 선생의 전도를 통한 국민계몽활동의 고초는 가히 짐작하고도 남을 바가 있다.

투철한 독립정신을 표출한 법정투쟁

3·1운동 직후 일제의 법정에서 선생은, “조선은 4천 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로서 타국에 병합되는 것은 누구든지 싫어한다. 나는 한일합병을 반대한다.”고 당당하게 밝혔던 대로 ‘한일합병’에 반대했던 분이였다. 그리고 “조선은 결코 일본을 위하여 이권(利權)을 제공하는 나라가 될 수 없으므로 독립하려고 한다.” 한 것처럼 자주적 경제론까지 견비하였던 분이였다. 따라서 선생의 1910년대 전도를 통한 국민계몽활동은 곧 항일의식의 고취요 독립운동의 전파나 다름 없었다. 이

러한 활동의 연계선상에서 선생은 1919년 2월 같은 감리교 목사인 오화영(吳華英)의 권유로 3·1운동의 추진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태화관(독립선언식 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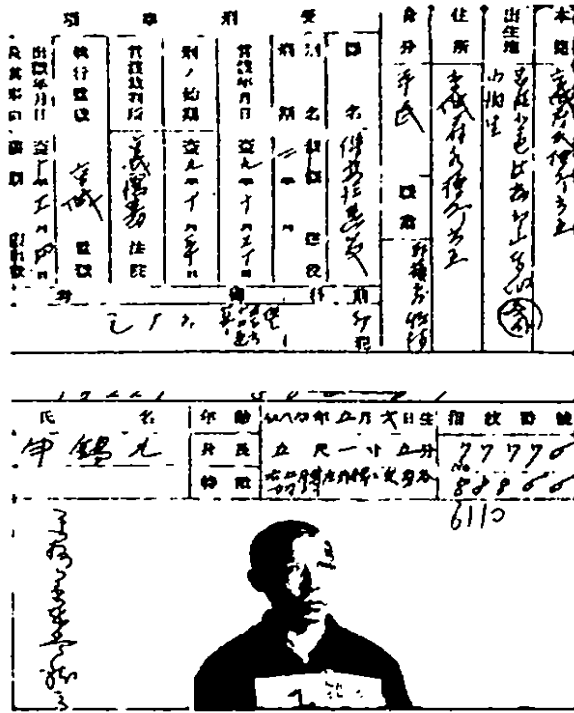
3·1운동은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으로 정의·인도주의가 고조되어 가던 국제적 분위기 속에서, 가혹한 일제의 식민통치로부터의 자주독립을 목적으로 민족역량을 총결집하면서 추진되고 있었다. 처음 천도교·기독교·불교 등 종교계와 각 전문학교 학생층에서 각기 따로 준비되던 3·1운동 계획은, '독립운동은 종파와 당파를 초월한 전민족적 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이승훈(李昇薰)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민족대

연합전선이 모색되고 있었다. 선생은 이같은 주장에 적극 공감하여 3·1운동이 민족대연합전선으로 발발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리하여 선생은 민족대표 33인의 한 분으로 선정되어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1919년 3월 1일 태화관에서 민족대표들과 함께 독립선언식을 가졌다. 이 때문에 선생은 곧바로 일경에 피체되어 경무총감부에 구류되었다가 서대문형무소로 이감되어 2년 6개월 간의 옥고를 치렀다.

하지만 일제의 탄압은 선생의 인신(人身)을 구속할 수 있었을지언정 선생의 독립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선생은 경무총감부에서건 재판정에서건, “피고는 조선독립운동을 한 것이 틀림없는가” 하고 물으면, “그렇다”고 거침없이 대답하였다. “왜 독립을 하려고 하였는가” 하고 물으면, “조선은 조선민족으로 통치하도록 하려고 생각하였다”고 하여 일제의 식민통치에 반대하면서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조선 독립이 될 줄로 생각하는가” 하고 물으면, “그렇다. 될 줄로 생각한다”고 하여 민족독립에의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음을 드러내곤 하였다. 나아가 “장래에도 또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하면, 언제나 선생은 “그렇다. 독립이 될 때까지 할 생각이다”고 대답하여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다.

신사참배 거부항쟁에 앞장서다

이와 같이 민족대표로서의 역할과 불요불굴의 투철한 독립정신을 표출한 법정투쟁은 선생을 민족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일제에 의해 작성된 선생의 신상기록카드

존경과 승모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1921년 11월 4일 서대문형무소를 출옥한 선생의 뒤에는 항시 일경의 감시 눈초리와 더불어 우리 국민의 존경과 선망의 눈길이 닿아 있었다. 때문에 1920년대 일제의 소위 ‘문화정치’에 의한 민족분열정책과 1930년대 ‘황민화’ 정책이 자행되면서 일부 민족지도자들이 변절하여 갔지만, 선생은 민족독립의 신념을 잃지 않고 장래를 기약하면서 목회활동과 항일운동을 계속하였다.

1920년대 선생은 원산 상리교회 목사(1921. 11~1925. 8), 강원도 고성구역장(1925. 9~1926. 8), 춘천읍교회 목사(1926.

9~1927. 8), 경기도 가평구역장(1927. 9~1928. 8)으로서 활동하였고, 1928년 9월부터 1929년 8월까지 서울 지방에서 부흥사업에 종사하였다. 그리고 1930년대에 들어와 선생은 강원도 철원구역장 및 황해도 한포(汗浦)구역장(1929. 9~1931. 6), 강원도 이천구역 담임 겸 이안(伊安)지방 감리사(1931. 7~1935. 4), 충남 천안구역 담임 겸 천안지방 감리사(1935. 5~1939. 4)로서 활동하였다. 그러던 중 선생은 1938년 7월 천안지방에서 신사참배 거부운동에 앞장 섬으로써 다시 한 번 항일운동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일제는 1931년 9월 만주침략과 1937년 7월 중일전쟁을 도발하면서 이른바 ‘총후(銃後)의 안정’을 목적으로 본격적인 ‘황민화’ 정책을 감행하였다. 이에 따라 일제는 우리의 민족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일본어 상용(1937. 3), 신사참배(1937. 7), 황국신민 서사(1937. 10), 창씨개명(1939. 11) 등을 강요하였다. 이와 같은 일제의 식민지 정책은 지구 상에서 한국민족 그 자체를 말살하려는 것이었다. 때문에 이에 대한 항쟁은 민족문화 보존운동만이 아니라 민족보존운동이요 나아가 독립운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특히 신사참배문제는 감리교 목사이자 민족대표인 선생에게 있어 종교적 양심의 문제인 동시에 민족적 양심의 문제였다. 즉 일본 신도(神道)에 대한 신사참배는 선생에게 있어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인으로서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요, 민족적으로는 식민지 정책에 협력함으로써 조국과 민족을 배반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결국 그것은 일제에 대한 투항과 친일로 해석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때문에 당시 감리교단 지도부의 결정에 의해 신사참배를 행하던 분위기 속에서도 선생은 이를 단호하게 거부하여 민족적, 종교적 양심을 지켜 갔던 것이다. 일제하에서 그같은 거부항쟁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을 동반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선생은 천안경찰서에 1938년 7월 피검되어 2개월 간 갖은 악형을 당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중병이 들어 석방되었다.

전승기원 예배 및 일장기 게양 거부 등으로 투옥

석방 후에도 선생은 끝내 굴복하지 않고 1939년 5월 신사(神社)가 없는 지역인 평남 용강군 신유리(新柳里)교회의 담임으로 가서 항일운동을 계속하였다. 즉 1941년 3월에는 조선감리교회를 일본기독교단의 산하에 두고 일제의 침략전쟁에 호응하려는 감리교 통리자의 친일 배족행위에 반대하다가 강제 은퇴를 당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일제의 태평양전쟁 도발 때에는 일경의 민족운동자 예비검속 조치에 의해 1개월 이상 구금되는 고초를 겪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광복직전인 1945년 5월에도 선생은 대동아전쟁 전승기원 예배 및 일장기 게양을 거부하다가 용강경찰서에 다시 피검되는 등 한시도 일제에 대한 항쟁을 멈추지 않았다.

광복 이후 선생은 북한지방에 남아 반공운동을 전개하다가 1946년 3·1절 기념 방송 사건, 1947년 3월 기독교민주당 비밀결사 사건으로 2차례 투옥되었다. 그리고 1949년 4월 진남포에서 반공비밀결사를 영도하였다는 죄목으로 북한 중앙정



선생의 동상(충북 청주시 3·1공원)

치보위부에 다시 피검되어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리하여 평양형무소에서 복역중 국군의 평양탈환 직전인 1950년 10월 10일 공산군에 의해 총살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63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4 월의 독립운동가



松齋 서재필(徐載弼) 선생

1864. 1. 7~1951. 1. 5

- 1896. 독립신문 창간, 독립협회 건립
- 1919. 상해임시정부 외교고문, 구미위원부
위원장 역임, 필라델피아
한인자유대회 개최, 한국평론 발행
- 1925. 범태평양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가
- 1942. 태평양전쟁 전승기원 기념식 참석

독립은 선전만으로 될 수 없고 허장성세만으로 될 수 없다.

독립의 가장 근본적 요소는 각성한 민중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중교양에 총력을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2천만 민중이 총결기하여 독립을 부르짖게 되면 한국의 독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1921년 독립운동의 진행방침을 건의한 선생의 장서(長書) 중에서-

선생은 1864년 1월 7일 전라남도 보성군 문덕면(文德面) 가천리(可川里)에서 부친 서광언(徐光彦)과 모친 성주(星州) 이씨 사이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선생의 본관은 대구, 호는 송재(松齋)이다. 당시 선생의 부친은 동복군(同福郡 : 보성군의 옛 지명)의 군수였고, 모친의 친정 또한 여기에 있었다. 때문에 선생은 외가가 있던 가천리에서 태어났지만, 곧 충청남도 논산군 구자곡면 금곡리 본가로 보내져 성장하였다. 그러다가 인근 대덕군에 살던 근친 서광하(徐光夏)의 양자로 입양되었다.

개화파의 개화사상에 큰 영향을 받음

선생은 7세경 서울로 보내져 양모 안동 김씨의 동생인 김성근(金聲根)의 집에서 과거를 대비하여 한학을 수학하였다. 김성근은 1862년 문과에 급제한 뒤 당시 판서직에 있었으며, 그의 집에는 개화파 지도자인 김옥균(金玉均)이 일가로서 자주 드나들고 있었다. 따라서 선생은 그 집에서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15세 연상인 김옥균과 자연스럽게 접촉하게 되었고, 또 그를 통하여 박영효(朴泳孝)와도 알게 되었다. 이들과 함께 초기 개화파의 중심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서광범(徐光範)은 그의 5촌 당숙이었다. 때문에 선생은 김성근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초기 개화파의 핵심인물들과 알게 되어 그들의 개화사상에 큰 영향을 받았다.

특히 1882년 3월 선생이 별시(別試) 문과에 급제하여 서적 발간을 담당하는 교서관(校書館)의 부정자(副正字)로 활동하게 되면서 그들과 빈번한 접촉을 통하여 개화사상을 심화시켜 갔다. 그리하여 문과에 급제한 양반 관료임에도 불구하고 1883년 김옥균의 권유로 일본 동경의 호산(戶山)육군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여기에서 선생은 14명의 한국청년들과 함께 1년여 동안 근대식 군사교육과 지리학 등 신학문을 익혔다. 비록 짧은 기간의 일본 유학이었지만 이를 계기로 개화와 개혁을 통한 부국강병(富國強兵)을 이루겠다는 자신의 신념을 더욱 확고히 하였다.

갑신정변의 실패와 일본의 배신

1884년 7월 일본 유학에서 귀국한 뒤 고종을 알현하는 자리에서 사관학교의 설립을 건의하였다. 고종도 이를 승낙하여 선생은 조련국(操鍊局) 사관장(士官長)에 임명되었으나, 일본세력의 침투를 우려한 청나라와 임오군란(壬午軍亂) 이후 수구정책으로 회귀한 친청 정권의 반대로 사관학교 설립이 지지부진하게 되고 말았다. 이에 선생은 급진적인 개화와 개혁을 꿈꾸게 되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1884년 12월 4일 김옥균·박영효·서광범·홍영식(洪英植) 등 급진 개화파 인사들과 함께 갑신정변(甲申政變)을 일으켰다. 우정국(郵政局) 개국 축하연을 기회로 거사에 돌입한 정변에서 선생은 청년 사관생도들을 지휘하여 고종을 호위하고, 수구파 인사들을 제거하는 일을 맡았다.

개화당 정부는 서정쇄신과 근대적 사회개혁 이념을 담은 14개조 개혁강령을 반포하였지만, 청나라의 무력개입으로 3일만에 붕괴되고 말았다. 이때 선생은 병조참판 겸 정령관(正領官)에 임명되어 군사분야의 개혁과 근대화 책임을 맡았던 것 같다. 그러나 정변의 실패로 말미암아 후일을 기약하면서 1884년 12월 11일 김옥균·박영효·서광범 등과 함께 상선 천세환(千歲丸)을 타고 일본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에서 ‘대역부도(大逆不道)’ 죄인으로서 정변 주도자의 인도를 집요하게 요구하였고, 일본 정부 또한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여 당초 기대와는 달리 이들을 냉대하였다.

이같은 태도변화는 교활한 일본인들의 속성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친청 수구정권을 몰아내기 위해 개화파를 지원하더니, 이제 한국 정부와의 관계개선에 이들이 걸림돌이 되니 헌신짝처럼 취급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선생은 1885년 4월 박영효·서광범과 함께 일본을 떠나 미국으로 망명하였다.

서구 학문과의 만남으로 자유민주주의 사고를 갖게 됨

낯선 이국 땅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선생은 ‘내 생활은 내 힘, 내 손으로 개척하리라는 결심’을 가지고 1년여 동안 낮에는 노동을 하고 밤에는 기독교청년회에서 영어를 배우는 고단한 생활을 하였다. 그러다가 1886년 9월 미국인 독지가의 후원으로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펜실베니아주 윌크스베어시로 이주한 뒤, 이곳에 있는 해리힐맨고등학교에 입학하여 본격적으로 역사·철학·과학 등 서구 학문을 배우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서구 학문과의 만남은 선생으로 하여금 일본식 문명개화론을 극복하면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적 사고를 갖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미국생활에 좀 더 적응하기 위해서 1888년 필립 제이슨(Philip Jaisohn)으로 개명하고 미국에 입적하게 된다. 이같은 결정에는 ‘대역부도’의 죄인이었기 때문에 다시는 귀국할 수 없을 것이란 생각이 결정적인 동기로 작용했겠지만,

그와 아울러 정변 참여로 말미암아 부모와 처자, 그리고 친동생 재창(載昌)까지 몰살당한 가족참변 또한 중요한 이유로 작용했던 것 같다.

1889년 6월 해리힐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이어 라파예트 대학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학비 문제로 2년만에 중도 퇴학할 수밖에 없었던 선생은, 우선 학자금을 마련한 뒤 공부를 계속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리하여 1890년 펜실베니아주에서 워싱턴으로 이주하여 미 육군 군의(軍醫)총감부 도서관의 번역원으로 취업하였다. 여기에 근무하면서 1891년 조지 워싱턴대학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세균학을 전공하였다. 그리고 주경야독으로 1894년 6월 동 대학을 졸업하고 가아필드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모교인 조지 워싱턴대학에 출강하게 되었다. 그 후 워싱턴에 개인병원을 개업하고 1895년 6월 미국 여인 암스트롱(M. B. Armstrong) 양과 결혼하여 가정적인 면에서나 재정적인 면에서 안정을 찾게 된다.

우리 나라 최초의 민간 대중신문인 독립신문 창간

이즈음 국내에서는 1894년 7월 23일 일본군이 궁중에 난입하여 친청 수구정권이 무너지고 새로 김홍집(金弘集) 내각이 수립하게 되어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를 중심으로 갑오개혁(甲午改革)이 추진되고 있었다. 그리고 갑신정변 주동자에 대한 사면령이 내려져 박영효·서광범 등이 귀국하여 복권하고 있었다. 특히 1895년 5월 박정양(朴定陽) 내각이 성립되

자 이 내각의 실세였던 내무대신 박영효는 개화당 동지인 서재필을 외무협판으로 임명하고 귀국을 종용하였다. 하지만 당시 선생은 병원을 개업한 직후일 뿐만 아니라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귀국하지 못했다. 그 후 1895년 7월 실각한 박영효가 미국을 방문하여 재차 귀국을 권유하자, 선생은 같은 해 12월 26일 고국을 떠난지 10여 년만에 그리던 조국 땅을 다시 밟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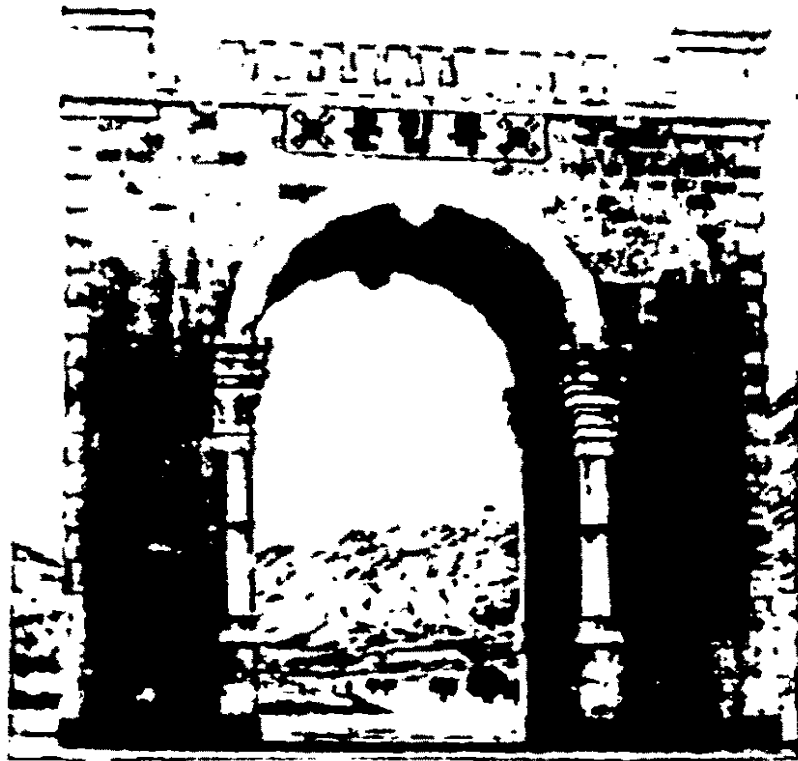
1896년 1월 귀국 직후 갑오개혁에 의해 입법기관으로 설치된 중추원(中樞院) 고문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선생의 주된 관심은 정치 참여보다는 국민계몽에 있었다. 그것은 당시 선생이 “우리 나라의 독립은 오직 교육, 특히 민중을 계발함에 달렸다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우선 신문 발간을 계획하였다.”고 한 데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이같은 확신에서 국민계몽의 수단으로서, “벼슬을 하지 않고 민중교육의 의미로 신문을 발간하여 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들이 알게 하고, 다른 나라들이 조선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를 일깨우는 일(‘체미50년’ 「동아일보」 1935. 1. 3)”을 하기 위하여 우선 대중신문의 발간을 계획하고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정부에 건의하여 보조금을 받고 개화파 인사들의 후원 아래, 1896년 4월 7일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대중신문인 「독립신문」을 창간하였다.

독립신문은 가로 22cm, 세로 33cm의 평판 중형의 크기로 4면 발행되었는데, 1면과 2면은 논설·관보·잡보·외국통신, 3면은 광고를 순 한글로 실었고, 4면은 영문으로 논설을 비롯한 국내 정치활동을 소개하였다. 당시 한문을 진서(眞書)로 생각하고 있던 때에 순 한글로 발행한 것은, “우리 신

문이 한문을 아니 쓰고 다만 국문(한글)으로만 쓰는 것은 상하귀천이 다 보게 함이라”고 독립신문 창간사에서 밝힌 바대로 한문을 모르는 대다수 국민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같은 글에서 “한문만 늘 써버릇하고 국문은 폐한 까닭에 국문만 쓴 글을 조선 사람이 도리어 잘 알아보지 못하고 한문을 잘 알아보니 그게 어찌 한심하지 아니하리오”라고 한 탄식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우리 말과 글을 범용하게 하려는 어문(語文) 민족주의적 의도를 지닌 것이기도 하였다.

선생은 독립신문의 논설이나 각종 기사를 자신이 직접 썼다. 특히 논설을 중요시 하였는데, 그것은 이를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근대 사상과 제도를 소개하여 국민을 계몽하고, 자주 독립정신을 고취하려고 한 때문이었다. 따라서 독립신문 논설에서, “백성마다 얼마큼 하느님이 주신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아무라도 빼지 못하는 권리요, 그 권리를 가지고 백성 노릇을 잘 하여야 그 나라 임금의 권리가 높아지고 전부 지체가 높아지는 법”이라고 하는 천부인권설(天賦人權說)에 바탕을 둔 서구 민권 사상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나라가 지탱하는 것은 법률 하나 가지고 지탱하는 것이거늘 아무나 나라 백성을 임의로 잡아 가두고 재판없이 형벌을 한 다던지 연고없이 무한하게 구류하는 것은 나라 법률을 멸시하고 임의로 천단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무릇 나라의 모든 일은 법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근대적 법치주의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이밖에도 열강의 이권 침탈에 반대하여 주권 수호를 주장



독립협회가 주관하여 세운 독립문(준공식 직후)

하면서 자주 독립의식을 고취하는 등 ‘국민의 권리와 나라의 자주 독립을 주장’하는 논설을 자주 실었다. 뿐만 아니라 각종의 강연과 토론회에서 서양의 사정과 세계의 형편을 알려 주는 한편 자유 민주주의를 전파하여 봉건 백성을 근대 국민으로 거듭나게 하려고 하였다. 나아가 나라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제 군주제를 입헌 군주제로 개혁하고, 의회를 설립하여 여기에서 외국과의 조약을 감독하고 비준하는 권한을 가져야 열강의 침략을 막고 국민의 자유 민권도 신장된다고 주장하였다.

독립협회를 창설하고 독립문 건립사업 전개

이와 같은 운동의 연계선상에서 1896년 7월 2일 독립협회를 창설하고, 그 고문이 되었다. 독립협회는 국민계몽 및 정치·사회운동 단체로서 우리 나라의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추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우선 독립협회는 자주 독립의 국민적 상징물로서 독립문 건립사업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1897년 11월 국민성금을 모아 영은문(迎恩門) 자리에 독립문을 세웠다. 그리고 중국 사신을 접대하던 모화관(慕華館)을 독립관으로 개수하여 독립협회의 집회장소와 사무실로 사용케 하고, 그 일대를 독립공원으로 꾸몄다. 이러한 일련의 행사는 1897년 10월에 있었던 ‘대한제국’ 선포 및 고종의 황제 즉위식과 어우러져 우리 나라의 자주 독립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한편 민족자존의 기개를 한껏 분출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우리 나라는 열강들의 각종 이권 침탈에 의해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는 형상이었다. 특히 1896년 2월 아관파천(俄館播遷) 이후 친러·친미 연립정권이 들어서자 우리 나라의 각종 이권은 열강에게 무더기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리하여 러시아는 함경북도 경원(慶源)·중성(鍾城) 일대의 광산채굴권, 두만강·압록강 유역과 울릉도의 삼림채벌권, 동해의 포경권(捕鯨權) 등을 빼앗아 갔다. 미국은 경인철도 부설권, 평안북도 운산(雲山)금광 채굴권 등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1895년 3국간섭 당시 러시아와 보조를 같이했던 프랑스는 경의철도 부설권을 획득하고, 그밖에 일본·독일·영국 등도 우리의 각종 이권을 침탈하고 있었다.

특히 러시아는 1897년 9월부터 석탄기지로 사용하겠다고 부산의 절영도(絶影島) 조차를 요구하고, 이의 관철을 위해 1898년 1월 군함을 부산에 파견하고 군대를 상륙시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었다. 이같은 압력에 굴복하여 정부가 이를 승인하려고 하자 선생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였다. 그리하여 선생은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대중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하도록 지도하였다. 이에 따라 독립협회는 1898년 3월 우리 나라 최초의 근대적 주권수호 및 이권침탈 반대 민중대회로서 만민공동회를 서울 종로에서 개최하였다. 여기에 모인 8,000여 명의 군중들은 열강의 한국 침략정책을 규탄하면서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를 결사 반대하고, 나아가 러시아인 재정고문과 군사교관, 그리고 한러은행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이와 같은 선생의 활동은 우리 민족의 독립사상과 민권사상을 크게 신장시켰으나 수구파 대신들과 한국에서의 이권 획득에 혈안이 된 열강의 미움을 샀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었다. 따라서 일본과 러시아 공사의 술책과 위협으로 정부는 선생을 중추원 고문에서 해임함과 동시에 미국 공사에게 선생의 추방을 교섭하였다. 미국 공사 또한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출국을 종용함에 따라 선생은 당초 의도했던 국민계몽을 통한 조국의 근대화와 자주 독립 기틀 마련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1898년 5월 14일 독립협회 회원들과 작별하고 미국으로 떠나고 말았다.

3·1운동을 계기로 다시 독립운동에 투신

다시 미국에 도착한 선생은 곧바로 미 육군성의 임명을 받아 외과의사로서 미·스페인전쟁에 종군하였다. 그리고 1898년 12월 전쟁이 끝나자 펜실베니아에 개인병원을 개업하고, 대학에서 해부학을 강의하면서 지냈다. 그러던 중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다시 조국의 독립운동에 적극 투신하게 된다.

국내의 거족적인 3·1운동 소식에 접한 재미 한인 독립운동단체인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는 3월 15일 ‘재미한인전체 대표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재미동포들은 끝까지 조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참여할 것을 다짐하는 12개 항의 결의안과 3개 항의 실천사항을 채택하였다. 그 결의안 가운데 하나는 “서재필을 외교고문으로 임명하여 필라델피아에 외교통신부를 설치할 것”이었다. 이에 따라 선생은 가산을 정리하여 필라델피아에 외교통신부를 설치한 후 한국의 독립을 세계 여론에 호소하고 일제의 침략과 만행을 규탄하는 외교와 선전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필라델피아에서 한인자유대회 개최 주도

그같은 선전활동의 일환으로 미주에서의 한국 독립선언식을 계획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간 선생의 주도로 필라델피아의 한 극장에서 150여 명의 재미 한

인대표, 미 상원의원과 시장 등 다수의 미국인 후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자유대회(韓人自由大會 ; 일명 제1차 한인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서 선생과 이승만(李承晩)을 비롯한 재미 한인대표들은 한국의 독립을 촉구하면서 1919년 4월 13일 상해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지하는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한인자유대회 개최 후 시가행진 장면(필라델피아)

「한인자유대회 결의안」

1. 재미 한인은 중국 상해에 건설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지하며 후원하기로 결의한다.
2. 구미 각국에 대한민국 외교사무부를 설치하기로 한다.

3. 구미 각국 민중으로 하여금 우리 독립선언의 주장과 국내의 사정을 이해하게 하는데 노력하기로 한다.
4. 일본 정객에게 충고문을 보내어 일본의 실책을 각오하게 한다.
5. 미국 정부와 국제연맹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승인을 요구하기로 한다.

그리고 대회와 마지막 행사로 참석자 모두는 태극기를 들고 필라델피아 시내를 시위 행진하면서 한국인의 독립의지를 표출 선전한 뒤, 선생의 사회로 미국 독립관에 모여 독립선언식을 거행하였다.

미국민에게 한국의 진실을 알리는데 주력

이와 같은 활동으로 선생은 임시정부의 대미외교 고문으로 임명되었고, 그에 따라 4월 25일 필라델피아의 대한인국민회 외교통신부는 임시정부 산하의 대한민국 통신부로 변경되었다. 선생의 책임 아래 운영된 대한민국 통신부는, ‘한국의 소식을 구미 각국에 선전하며 한국 독립을 동정하는 친한미국인(親韓美國人)을 모아서 한국친우회를 조직하고 그로 하여금 한국 독립운동에 관한 외교 사업을 협찬하게 하는데’ 그 일차적 목적이 있었다. 아울러 ‘한국 문제를 강연하는 사람들의 연설문 작성과 재료를 공급하며 영문 출판과 선전문 직성을 협조하여 한국 선전에 노력’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우선 1919년 5월 톰킨스(Tomkins) 목사와 협력하여 「한국친우회(The League of Friend of Korea)」를 조직하고, 여기에 미 상원의원들과 저명인사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한국의 독립을 위한 지원활동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의 노력으로 미 상원과 하원에서 한국문제가 토의되고, ‘한국 독립 찬조 결의안’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아울러 1919년 8월부터 1921년 12월 재정난으로 중단될 때까지 「한국평론(Korea Review)」이라는 월간 잡지를 발행하여 한국 독립을 위한 대중적 선전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였다.

한국평론(Korea Review)은 당시 미국민을 상대로 한 유일한 월간 잡지로서 다른 해외지역에서의 한인들이 발간하던 선전간행물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것으로 평가되며, 일본의 대미역선전(對美逆宣傳)을 막는데 힘쓴 잡지였다. 이 잡지의 주된 논점은 일본의 한국식민지화는 불법적으로 이루어 졌고 한국에서의 일본의 개혁정책은 순전히 허구일 뿐 아니라 기만적이라는 것, 한국은 오랜 기간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누려왔고, 현재 충분히 그러한 자치능력과 민족정신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는 것 등 미국민에게 한국의 진실을 알리는데 주력하였다.

1919년 9월 이승만은 통합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구미위원부(歐美委員部)를 발족시켜 구미에서의 정부행정을 대행하게 하면서 외교업무를 주관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통신부도 여기에 흡수 통합됨에 따라 선생은 처음에는 구미위원부의 부위원장, 그리고 1920년 6월 초대 위원장 김규식(金奎植) 사임 이후에는 위원장으로 대미외교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1921년 1월 선생은 오하이오주 메리온시에서 미국 대통령 당선자 하딩과 회견하고, “한중 양국이 대일(對日) 개전을 하면 미국은 이를 후원할 것”을 요청하면서 한국 독립에 미국이 지원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그런 직후 미국·영국·프랑스·이탈리아·일본 등 태평양지역에 이해 관계를 가진 열강들이 군비축소 문제와 극동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제회의를 11월 11일 워싱턴에서 열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임시정부에서는 이 태평양회의(혹은 워싱턴군축회의)에 한국 문제를 상정시켜 파리평화회의에서 이루지 못한 독립의 목적을 다시 한 번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임시정부에서는 대통령 이승만을 전권대사, 선생을 전권부사로 하는 한국 대표단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독립 외교활동을 벌이게 하였다. 이에 선생은 미국무장관 휴즈를 방문하여 일본이 한국 독립운동자를 학대 학살하는 진상을 폭로하고, 태평양회의에서 미국이 한국의 독립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12월 28일 한국 독립을 요구하는 국내 13도 260군 대표 및 각 사회단체 대표 370여 명이 서명한 「한국인민치태평양회의서(韓國人民致太平洋會議書)」와 아울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요구서를 정식으로 접수시켰다. 선생을 비롯한 한국 대표단의 이러한 독립 외교활동은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한국 민족의 독립열망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각국 대표들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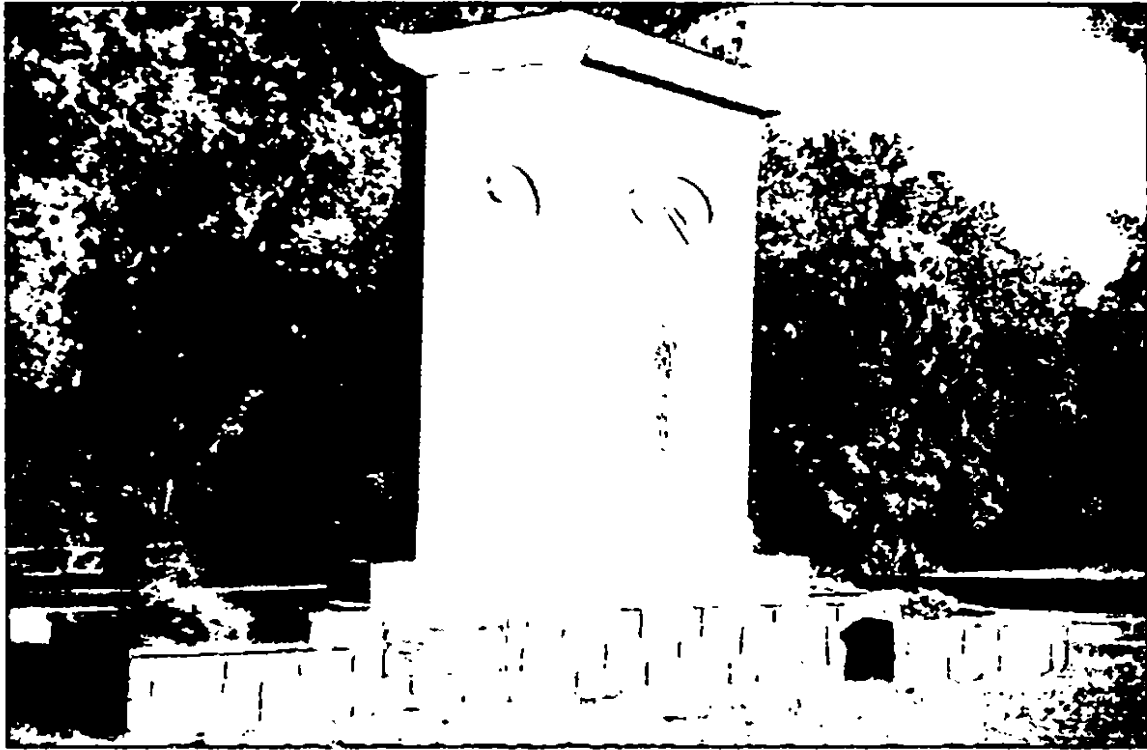
범태평양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

이같은 독립 외교활동은 1925년 열린 태평양회의에서도 이루어졌다. 이 회의는 태평양지역 제(諸) 국가와 국민의 상호관계개선을 목적으로 하여, 이들 국민의 국내 및 국제적 사정을 조사 연구하는 사설 단체인 태평양문제조사회가 처음으로 개최한 국제회의였다. 이 회의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되자 선생은 일본 대표의 갖은 방해공작을 물리치고 한국 대표로 참석하였다. 여기에서 일제의 한국 침략과 만행을 폭로 규탄하고, “한국문제는 일본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양의 문제요, 전세계 인류의 문제다. 우리는 세계 어느 구석에서도 정의가 무시되고 인도가 유린됨을 묵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한국 독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와 같이 1919년 3·1운동을 전후하여 1920년대 중반까지 계속된 선생의 독립 외교활동은 3·1운동으로 표출된 국내 독립운동의 정신을 선전 외교활동을 통해 미주 한인사회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까지 지속시킴으로써 국제적으로 친한 여론(親韓輿論)을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활동에 당파(黨派)를 조성하지 않고 미주 한인사회의 단합을 바탕으로 전개되었다는 사실은 선생의 인품과 지도력을 돋보이게 하는 부분이다.

태평양전쟁 전승기원 기념식 참석

3·1운동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선생의 독립 외교 및



선생의 기념비(필라델피아)

선전활동은 거의 사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생은 드디어 무일푼의 처지가 되었다. 이렇게 되자 다시 의학수업과 의료 활동에 복귀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이후 적극적인 독립운동에 참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1942년 3월 1일 선생은 워싱턴에서 미주 및 하와이 동포들이 개최한 태평양전쟁 전승기원 기념식에 참가하는 등 조국광복의 염원은 잊지 않고 있었다.

또한, 선생은 1942년 8, 9월 뉴욕 시카고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천세헌('95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선생에게 보낸 서한내용에서 한국 독립을 위해선 젊은 한인들의 활동이 중

요하며 무엇보다 한인단결이 우선되어야 함을 지적하였고, 또한 실질적인 한인대표를 통한 대미외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선생은 노령에다 궁핍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한인들에게 독립운동의 원로로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광복 후 선생은 미군정사령관의 초빙으로 1947년 7월 83세의 나이로 미군정최고고문으로 귀국하여 이듬해 9월까지 한국에서 머물렀다. 몇몇 인사들이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고,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되자, 자신으로 인해 정치적 소용돌이를 일으킬 수 없다고 판단, 결국 한국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1951년 1월 5일 87세의 생을 마쳤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77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5 월의 독립운동가



海公 신익희(申翼熙) 선생

1894. 6. 9~1956. 5. 5

- 1919.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정 기초위원,
이후 임시정부 법무총장, 임시의정원
부의장 등 역임
- 1935. 민족혁명당 창당에 참가
- 1937. 조선민족전선연맹 결성에 참여
- 1941. 임시정부 외교연구위원회 위원

나라는 반드시 완전 독립되어야 하고(國家須完全獨立)

민족은 반드시 철저히 해방되어야 하며(民族須澈底解放)

사회는 반드시 자유 평등하여야 한다(社會必須平等)

-조국광복을 앞둔 1945년 중국에서 쓰신 글 중에서-

선생은 1894년 6월 9일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草月面) 서하리(西霞里)에서 평산 신씨(平山申氏) 장례원경(掌禮院卿) 단(檀)의 다섯째 아들로 태어났다. 선생의 호는 해공(海公), 중국 망명중에 사용하신 이명(異名)은 왕해공(王海公) 혹은 왕방오(王邦午)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5세 때 백형(伯兄) 규희(揆熙)에게 한학을 수학하였는데, 특히 글씨를 잘 써 9세 때에는 학부대신을 지낸 이도재(李道宰)로부터 지필묵(紙筆墨)을 상품으로 받기도 하는 등 명필가의 자질을 보였다.

1908년 상경하여 관립 한성외국어학교 영어과에 입학하였

다. 당시 우리 나라는 1905년 11월 「을사늑약(乙巳勒約)」에 의해 국권이 침탈되더니, 이어 1907년 7월 「정미7조약(丁未七條約)」으로 군대까지 해산당하는 등 일제의 식민지나 다름 없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선생은 일제로부터 국권을 되찾고 민족적 수모를 설욕하는 방법은 서구의 진보한 문명을 수용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임을 깨닫고 영어과를 선택하였다.

그리하여 호조참판을 지낸 이위(李暉)의 집에서 가정교사로 학비를 조달하여 가면서 1910년 한성외국어학교를 졸업하였다. 하지만 조국의 운명은 나날이 쇠락하여 가더니 결국 선생이 한성외국어학교를 졸업한 해에 일제의 완전 식민지가 되고 말았다.

이같은 망국의 상황에 당면하여 선생은 역설적으로 일본 유학을 꿈꾸게 된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정시하여야 한다. 우리가 구적(仇敵)을 몰아내고 나라를 도로 찾는 데는 부질없이 감상에만 흐르지 말고, 현대로 개화 진보한 일본에 가서 배워 그 높을 이기고 일어서야 한다”고 하는 극일(克日)의 심정으로 선생은 일본 유학을 단행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1912년 일본 와세다[早稻田]대학 정치 경제학부에 입학한 선생은 독립운동에 전위가 될 유학생들을 결속시키는데 주력하게 된다. 정세윤(鄭世胤)·송진우(宋鎭禹)·문일평(文一平)·안재홍(安在鴻) 등과 협의하여 유학생의 통일조직으로 ‘학우회(學友會)’를 조직하고 총무·평의회 의장·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그 기관지로 발행된 「학지광(學之光)」의 주필·총무 등을 맡아 유학생들은 물론 국내 청년 학생들

의 민족정신과 독립사상을 고취하였다. 특히 1913년에는 동지들과 단지(斷指)하여 피를 나누어 마시면서 독립운동에 목숨을 바칠 것을 맹세하였다고 하니 이 당시 선생의 민족독립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같은 결심을 가졌던 선생은 1917년 와세다대학을 졸업한 후 다시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하였으나 경비문제로 포기하고 귀국하여 최규동(崔奎東) 교장의 권유로 중동(中東)학교에서 잠시 교편을 잡았다가 이후 보성법률상업전문학교로 옮겨 비교헌법·국제공법·재정학 등을 강의하였다.

그러던 중 1918년 윌슨 미국 대통령이 제1차 세계대전의 강화원칙으로 ‘민족자결주의’를 천명하자, 이를 기회로 우리 민족도 독립운동을 일으켜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선생은 임규(林圭)·송진우(宋鎭禹)·최남선(崔南善)·정노식(鄭魯湜) 등과 국내 독립운동을 밀의하고, 11월 말 국외 독립운동단체 및 지도자들과 연락할 사명을 띠고 해외로 나가게 되었다. 선생은 우리의 독립운동은 처음에는 평화로운 방식으로 시작될지라도 결국에는 군사행동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우선 만주지방으로 가서 독립군 지도자 김좌진(金佐鎭) 장군 등을 만나 보았다.

서울에서 만세시위를 벌이다 일경에 쫓겨 중국으로 망명

그리고 1919년 1월 상해에 도착하여 이주 동포들의 실정과

독립운동단체의 현황을 돌아보며 국내의 독립운동 소식을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런 소식이 없으므로 궁금한 나머지 2월 중순 상해를 떠나 천진(天津)·북경(北京)·심양(瀋陽)을 거쳐 3·1운동 발발 직후인 3월 2일 귀국하게 되었다.

국내에 들어와 평양을 지나면서 3·1운동을 목격한 선생은 곧 서울에서의 대규모 만세시위를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제자인 보성법률상업전문학교의 학생 강기덕(康基德)과 연희전문학교의 학생 한창환(韓昌桓) 등과 연락하여 3월 5일 남대문역 서울역앞 만세시위를 추진 지휘케 하였다. 이에 따라 청년 학생들이 중심이 된 제2차 독립 만세시위가 남대문역앞에서 대규모로 전개되었는데, 이 시위는 3월 3일 고종의 인산(因山)에 참배하고 귀향하는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 줘 3·1운동의 지방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로써 일경의 주목을 받게 된 선생은 3월 14일 농사꾼 차림으로 용산역을 빠져나와 중국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정 기초위원으로 활약

만주 봉천을 거쳐 3월 19일 상해에 도착한 선생은 독립운동의 중심기관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에 적극 동참하였다. 그리하여 각지에서 모인 독립운동자들은 우선 4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임시헌장을 제정한 뒤 4월 13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을 대내외에 공포하였다. 이때 선생은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선임되어 이시영(李始榮)·조소앙(趙素昂) 등과 함께 임시헌장 제정 기초위원으로 활약하였다. 선생과 이들 두 분에 의해 성안된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과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임시의정원의 결의를 거쳐 선포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해임시정부 국무원 임원진(1919. 10. 11)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

신인일치(神人一致)로 중외협응(中外協應)하여 한성(漢城)에 기의(起義)한지 삼십유일(三十有日)에 평화적 독립을 삼

백여주(三百餘州)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信任)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완전(恒久完全)한 자주독립의 복리(福利)로 아(我) 자손여민(子孫黎民)에 세전(世傳)키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차(此)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과 빈부의 계급이 무(無)하고 일체 평등함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信教)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信書) 주소 이전 신체와 소유의 자유를 향유(享有)함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유(有)한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유(有)함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와 병역의 의무가 유(有)함

제7조 대한민국은 신(神)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진(進)해야 인류의 문화와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함

제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舊皇室)을 우대함

제9조 생명형(生命刑) 신체형(身體刑)과 공창제(公娼制)를 전폐함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회복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

이와 같은 임시헌장 10개조의 내용은 지금 보아도 근대 민주국가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정치 사회적 기본원칙과 정신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인류의 평화와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평화주의적 사고,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긴 당시 독립운동자들의 인간 중심적 사고가 고루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임시정부 초대 내무차장으로 선임되어 연통제 창안에 일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조각(組閣)이 이루어지자 선생은 초대 내무차장 겸 내무총장 대리로 선임되었다. 그리하여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대리로 부임한 안창호를 도와 1919년 7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내 행정조직으로 연통제를 창안 실시하는데 일조하였다. 연통제는 ‘국민 간에 기맥(氣脈)을 상통하고 복국사업(復國事業)의 완성을 기하기 위하여 내외의 활동을 일치시키고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국내의 도·군·면 단위로 조직한 비밀 행정조직이었다. 이 조직은 임시정부의 각종 활동과 법령을 전달하는 모세혈관으로 국내 동포들에게는 독립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게 하였고, 임시정부에게는 국내에서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는 대정맥으로 기능하였다. 따

라서 이는 임시정부의 국내 통치행위의 근간이요 활동의 원천이기도 하였는데, 이의 실시엔 안창호와 함께 선생의 노력이 깃들여 있는 것이다.

또한, 선생은 1920년 임시정부의 내무총장 대리·외무총장 대리·국무원 비서장 등에 선임되어 활약하였고, 이후 법무총장·외교부장 및 임시의정원 부의장 등을 두루 역임하면서 임시정부의 분열을 방지하는데 심혈을 쏟아 부었다. 특히 선생은 독립운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국 정부와의 협조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1921년 4월 한중호조사(韓中互助社)를 창립하여 한중합작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1923년 임시정부의 개편을 둘러싸고 개조파와 창조파의 갈등이 첨예화되었던 때에 선생은, 평소의 주장이던 대일 군사항쟁을 한중합작으로 실현하기 위해 중국 국민당군에 들어가기로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섬서성(陝西省) 독군(督軍) 호경익(胡景翼) 막하의 고문으로 들어가 제2군의 중장(中將)이 되었다.

장개석과의 한중합작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

이 시기에 선생은 중국 학생과 한국 청년 5백 명을 모집하여 유격대의 일종인 분용대(奮勇隊)를 편성하고, 이들을 훈련시켜 점차 성장하면 만주로 가서 한중국경에서 군사행동을 일으켜 국내로 진격한다는 군사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선생은 우선 신흥무관학교 제1회 속성과를 졸업

업하고 의열단(義烈團)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성주식(成周寔)을 북만에서 초빙하여 국민당 제2군 육군 중위에 임명하였다. 그런 뒤 분용대 연성대장의 책임을 맡겨 교육 훈련에 전념케 함으로써 국내 진공작전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시켜 갔다. 하지만 1924년 가을 선생의 후원자인 호경익이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분용대에 의한 국내 진공작전계획은 좌절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선생은 1926년 북벌중인 장개석(蔣介石)·백승희(白崇禧)와 남창(南昌)에서 만나 분용대의 병력과 훈련상황을 이야기하고 한중합작으로 한만국경의 일본군 토벌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들은 자국의 혁명에 주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의 한중합작에 의한 국내 진공작전계획은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은 1927년부터 남경정부의 심계원장(審計院長) 우우임(于右任)의 배려로 심계원에 근무하면서 그 보수로 원로 독립운동자들을 원조하는 한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 지도자들을 만나 한중합작에 의한 대일항전을 역설하고 다녔다.

한인 동포들의 민족정신과 독립의지를 배양

한편 1926년부터 우리 독립운동계에는 중국 국민당과 같은 민족대당(民族大黨)을 결성하여 ‘이당치국(以黨治國)’ 형태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임시정부는 1927년 3월 제3차 개헌을 통하여 ‘이당치국’의 형태를 도입한 개정 헌법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에 독립운동자들

은 각각의 운동방략과 이념, 친소(親疎) 관계 등에 따라 '독립운동을 제일차적 목적으로 하고, 독립 후의 신국가건설이나 민족사회의 재구성 방안을 정강(政綱)으로 제시하면서 민족정권에의 적극적 참여의지를 표출한' 독립운동정당을 창당하여 갔다. 정치 경제학을 전공한 선생 또한 이같은 조류를 선도하면서 1929년 안재환·윤기섭·성주식·김홍일 등과 남경에서 한국혁명당(韓國革命黨)을 창당하였다. 그리고 그 산하 단체로 철혈단(鐵血團)을 조직하여 무장 독립투쟁을 준비하는 한편 「우리의 길」이라는 기관지를 발행하여 한인 동포들의 민족정신과 독립의지를 배양하여 갔다.

이 시기 일제는 대륙지배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1931년 9월 이른바 '만주사변(滿洲事變)'과 1932년 1월 '상해사변(上海事變)'을 도발하여 중국 침략을 본격화하고 있었다.

민족의 역량 집중시킬 단일대당 「민족혁명당」 창당

이에 따라 민족의 모든 역량을 대일항전에 결집할 필요성이 더욱 증폭되어 갔다. 때문에 각각의 독립운동단체와 정당들은 대일항전에 총력을 다하고자 민족협동전선의 형성에 온갖 노력을 쏟아붓고 있었다. 선생은 이때 한국혁명당의 대표로 1932년 11월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조선혁명당(朝鮮革命黨)·의열단·한국광복동지회(韓國光復同志會) 등의

대표들과 협의하여 민족협동전선으로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韓國對日戰線統一同盟)을 탄생시켰다. 이 동맹은 ‘혁명역량의 집중과 지도의 통일로써 대일전선의 확대 강화’를 도모하고, ‘민중의 기초 위에서 직접 군사행동’을 투쟁노선으로 설정하여 대일항전의 구심체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선생은 이 동맹에서 최동오(崔東旣)·김규식(金奎植)·박건웅(朴建雄)과 함께 상무위원으로서 활동하였다. 하지만 이 동맹은 가맹단체 간의 연락 협의기관으로 일종의 단체연합적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속력과 통제력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면서 대일항전에 민족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민족통일전선으로 단일대당(單一大黨)의 결성이 요청되었다.

이에 따라 1934년 초 선생은 단일대당 형성의 일환으로 우선 자신이 속한 한국혁명당을 ‘만주사변’ 이후 만주에서 관내 지역으로 이동한 한국독립당과 합쳐 신한독립당(新韓獨立黨)을 창당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매개로 기존의 독립운동 정당과 단체를 해소하여 단일대당을 창당하는 방식의 민족통일전선 형성에 진력하였다. 그 결과 1935년 7월 남경 금릉(金陵)대학에서 민족통일전선의 원칙 아래 신한독립당(윤기섭)·의열단(김원봉)·조선혁명당(최동오)·한국독립당(조소앙)·대한독립당(김규식) 등 5당 통합으로 민족혁명당의 창당이 이루어졌는데, 이의 성공이 있기까지 선생의 역할이 컸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한국독립당 재건파가 탈당하고, 나아가 1937년 1월 제2차 전당대회를 계기로 비(非)의열단 계열의 일부 인사가 이탈함으로써 그 세력이 위축되고

國家完全獨立
 民族原底解放
 社會必須平等

中華民國四川省
 孫尚紀念
 民國廿七年
 申 聖道

선생의 휘호(1945)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같은 해 7월 7일 일제는 노구교(蘆溝橋)사건을 기화로 중일전쟁을 도발하고 중국 전역을 유린하기 시작하였다.

독립운동단체들은 이같은 상황 변화에 따라 두 갈래로 체제를 정비하여 본격적인 대일항전을 준비하여 갔다. 하나는 1937년 8월 한국국민당(김구)·한국독립당(조소앙)·조선혁명당(이청천) 등의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光復陣線) 결성

이었다. 다른 하나는 같은 해 12월 민족혁명당(김규식·김원봉)·조선민족해방동맹(김성숙)·조선혁명자연맹(유자명) 등의 조선민족전선연맹(民族戰線) 결성이었다. 민족혁명당의 선전부와 국민부 요원으로 활동하였던 선생은 이때 조선민족전선연맹의 결성에 참여하였고, 그 뒤 중국 각지를 순방하면서 대일항전을 지도하였다. 그러던 중 선생은 1938년 9월 민족전선 내의 급진적 무장투쟁 단체로 한구(漢口)에서 새롭게 조직된 조선청년전위동맹(朝鮮靑年前衛同盟)에 가담하였는데, 이는 애시당초 무장투쟁을 주장해 왔던 선생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처신이었을 것이다.

독립운동에 있어서 통합과 연대를 강조

한국독립운동계의 이같은 양대 분립은 대일항전 수행에 차질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내외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들 양대 계열의 핵심적 인물인 김구와 김원봉은 1939년 5월 「동지·동포에게 보내는 공개통신」에서 통합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같은 해 8월 27일부터 사천성 기강에서 광복진선과 민족전선 양측의 통합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의 광복진선측 3개 당 대표로는 한국국민당의 조완구·엄항섭, 한국독립당의 홍진·조소앙, 조선혁명당의 이청천·최동오 등이 참석하였다. 민족전선측 4개 당 대표로는 민족혁명당의 성주식·윤세주, 조선혁명자연맹의 유자명, 조선민족해방동맹의 김성숙, 그리고 조

선청년전위동맹에서는 선생이 참석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7당회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선청년전위동맹의 최창익(崔昌益) 등 18명이 통합회의와는 아랑곳하지 않고 연안으로 가 버렸다. 따라서 7당 통합이 무산되어 독립운동상에서 항상 통합과 연대를 앞장서 실천해 온 선생은 매우 통탄해 하였다.

이후 선생은 조선의용대 병력이 모여 있는 낙양(洛陽)으로 가서 김성숙의 조선민족해방동맹과 연합하여 조선민족해방투쟁동맹의 결성을 주도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지도하면서 1941년에는 한중합작으로 한중문화협회를 조직하여 상무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다시 임시정부에 합류하였다. 그리하여 1941년 6월 선생은 임정에서 외교연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고, 1943년 4월 대한민국 잠행관제에 의해 설치된 선전부의 선전위원회에서 조소앙·엄항섭·유림(柳林) 등과 활동하면서 대한민국의 선전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이바지하였다. 나아가 1944년 5월 임정의 연립내각 성립 때 내무부장에 선임되어 활약하다가 중경(重慶)에서 광복을 맞이하였다.

광복후 자주적 민족국가 건설의 희망을 안고 귀국

광복 이후 선생은 1945년 12월 2일 임정요인의 제2차 환국 때에 벽찬 감격과 자주적 민족국가 건설의 희망을 안고 귀국하였다. 하지만 귀국 직후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신탁통치안이 결의되자 김구 주석을 도와 반탁운동을 선도하였다. 이



선생의 동상(국민대학교 교정)

와중에서도 선생은 1946년 국민대학(國民大學)을 설립하여 민족국가 건설의 동량(棟梁)을 육성하는 한편 「자유신문(自由新聞)」을 발행하여 민족 자주성을 함양하여 갔다.

1948년 5월 제헌의원 선거에 경기도 광주에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이후 초대 국회 부의장과 이승만(李承晩)의 후임으로 국회의장에 선출되어 활동하면서 대한민국 건국에 크게 공헌하였다. 특히 1956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여 국

민대중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다가 5월 5일 호남선 열차 안에서 뇌일혈로 급서하였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6 월의 독립운동가



유일한(柳一韓) 선생

1894. 12. 13~1971. 3. 11

- 1909. 한인소년병학교 입교
- 1919. 필라델피아 한인자유대회 참석
- 1942. 맹호군 편성에 참여
- 1945. 냅코작전이라 불리는 국내 침투작전에 참여

우리는 공평한 기회, 합리적인 경제정책, 세계 각국과의 자유로운 교역 등 전체 국민생활의 제한없는 발전을 위해 가장 유망한 여건을 형성시키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전적으로 따르고 있다.

- 1919년 4월 한인자유대회에서 선생이 작성한 결의문 내용 중에서 -

선생은 1894년 12월 13일 유기연(柳基淵)과 김씨 사이의 9남매 중 장남으로 평양에서 태어났다. 선생의 부친 유기연은 장사에 남다른 소질이 있어 평양 시내에서 농산물 도매상과 재봉틀 대리점을 경영하여 재력을 쌓은 상인이었다. 일찍이 그는 숭실학교를 설립했던 장로교 선교사 사무엘 마펫(S. A. Maffet)에게 세례를 받았고, 단발을 몸소 단행한 개화인사이기도 하였다.

국권수호를 위해 선생의 부친은 아들을 유학시키기로 결심

당시 선생의 부친은 우리 나라를 둘러싸고 벌이던 제국주의 열강들의 이전투구(泥田鬪狗)와 러일전쟁을 목격하면서 국망(國亡)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때문에 그는 국권을 수호하고 자주 독립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실력양성과 경제적 자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선진 자본주의 대국인 미국에 아들을 유학시키기로 결심하고, 외부 참서관을 지낸 박장현(朴章鉉)과 그의 조카인 박용만(朴容萬)의 미국행에 선생을 딸러 보냈다.

1905년 2월 일행과 함께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선생은 곧 네브래스카주 커니(Kearney)에 정착하였고, 그 곳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미국에서의 유학생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해 11월 일제는 온갖 협박과 위협으로 「을사조약(乙巳條約)」을 강제하여 우리 나라의 국권을 강탈하더니, 1907년 7월에는 「정미7조약(丁未七條約)」을 강요하여 우리 나라의 군대를 강제 해산시킴으로써 민족방위의 핵심 동력인 군사력을 말살하였다. 이같이 국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국내에서는 민족의 실력양성을 통하여 국권회복을 지향하는 구국계몽운동이 전개되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즉각적인 반일 무장투쟁으로 의병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민전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한인소년병학교 입교

재미동포들 또한 이 시기 공립협회(共立協會)와 대동보국회(大同保國會) 등 한인 자치단체들을 확대 개편하여 본격적으로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여 갔다. 특히 국내에서 활빈당에 가담하여 반일 무장투쟁의 경험을 갖고 있던 박용만은 장래의 독립전쟁에 대비하여 독립군을 양성하고자 미주지역에서 무관학교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는 1908년 7월 개최된 ‘북미 대한인 애국동지 대표자회의’에서 ‘한인군사학교 설립안’을 제출하여 일부의 반대를 누르고 통과시켰다. 그리하여 1909년 6월 그의 주도로 ‘한인소년병학교(韓人少年兵學校)’가 네브래스카주 헤스팅스(Hastings)에서 설립되었다. 이렇게 미주지역에서 최초의 한인군사학교가 개교하자, 박용만을 따라 도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독립전쟁론에 크게 영향을 받은 선생은 이 학교에 일차으로 입교하였다. 선생은 이 학교에서 오전에는 농장에 나가 학비를 벌고 오후에는 학과 공부와 군사훈련에 임하는 고된 생활을 하였다. 하지만 장차 일제에게 빼앗긴 국권을 되찾는 독립전쟁의 지휘관이 되겠다는 신념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기에 선생은 남보다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 수 있었다.

이같은 선생의 소년병학교 생활은 이 학교가 문을 닫는 1912년까지 계속되었다. 비록 길지 않은 3년여의 기간이었지만 한참 감수성이 예민하던 시기에 열렬한 독립전쟁론자인 박용만을 지도자로 모시고, 조국 독립에 헌신하려고 하는 동지들과 고락을 같이하며 받았던 이 학교에서의 민족 군사교



소년병학교 야구팀(1911)

육은 선생에게 조국과 민족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형성된 민족의식과 자주 독립사상이야말로 선생이 전개한 독립운동의 원천이었고, 기업 경영의 지표로 작용하였다.

필라델피아 한인자유대회 참석

이후 선생은 1915년 헤스팅스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디트로이트 변전소에 취업하여 학비를 마련한 다음 1916년 미시간

주립대학 상과에 입학하였다. 대학에 다니면서 선생은 학비를 조달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무역업을 하던 중 국내의 3·1운동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거족적인 3·1운동 소식이 전해지자 미주동포들은 1919년 3월 15일 ‘재미한인전체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국내의 독립운동을 지지 후원하며, 세계 만방에 한국 독립의 의지를 선전 전파하기 위한 대규모의 독립선언대회를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간 미 동부 필라델피아의 리틀극장에서 150여 명의 재미 한인대표들은, 미 상원의원과 시장 등 다수의 미국인 후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자유대회(韓人自由大會)’를 개최하였다.

이때 대학 4년생이었던 선생은 대의원 자격으로 서재필(徐載弼)·이승만(李承晩)·조병옥(趙炳玉)·임병직(林炳稷) 등과 함께 이 대회에 참가하여 실무적인 일을 맡았다. 이 대회에 참석한 한인대표들은 한국의 독립 승인을 촉구하면서 4월 13일 상해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한국 독립운동의 진상을 미국 국민에게 알리는 「한국 국민이 미국 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한국인은 최후의 1인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결의를 일본 국민에게 천명한 「일본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 한국이 독립하여 자신의 정부를 가지게 될 경우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세계 만방에 알리는 「한국 국민의 목적과 열망을 석명(釋明)하는 결의문」 등을 작성 반포하였다. 이 대회의 마지막 행사로 참석자 모두는 대형 태극기를 든 선생을 필두로 필라델피아 시내를 시위 행진한 뒤 미 독립관에 모여 독립선언식을 거행하여 한

국민의 독립열망을 다시 한 번 표출하였다.

이 대회 기간 중 선생은 헨리 김(Henry Kim)·조안 우(Joan Woo) 등과 함께 「한국 국민의 목적과 열망을 석명하는 결의문」 기초 작성위원으로 선출되어 다음과 같은 10개조의 결의문을 성안 낭독하였다.

「한국 국민의 목적과 열망을 석명하는 결의문」

1. 우리는 정부가 바로 피치자로부터 나오는 권력에서 유래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피치민중의 이익을 위해서 인도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2. 우리는 가능한 데까지 민중의 교육과 일치하고 미국을 뒤따르는 모형의 정부를 가질 것을 제의한다. 다음 한 10년간은 정부가 보다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민중의 교육이 증진되고 자치의 기술에 보다 많은 경험을 가짐에 따라 그들은 정부의 행정업무에 보다 일반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받을 것이다.

3. 그러나 우리는 지방 및 지역의 입법의원들을 선출하는 만유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지방 입법 의원은 국가의 입법의회에 보낼 대의원을 선출할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국가 입법의원(국회의원)은 정부의 행정부처와 동등한 권한을 가지며, 국법을 제정할 국회 단독의 권한을 갖고 오직 그들이 대표하는 민중들에게 책임을 진다.

4. 행정부처는 대통령·부통령 및 각원들로 구성되며 그들은 국회가 제정한 모든 법률을 실행한다. 대통령은 국회의원

들에 의해 선출될 것이며, 대통령은 내각의 장관·도지사 및 외국에 파견되는 사절을 포함하는 기타의 중요한 행정부 관리를 임명할 권한을 갖는다. 대통령은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국회의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과 그의 내각은 국회에 책임을 진다.

5. 우리는 신앙과 자유를 믿고 있다. 그와 같은 가르침인 나라의 법률이나 또는 이익에 저촉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범위 안에서는 어떠한 신앙이나 또는 교리도 이 나라 안에서 자유롭게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을 것이다.

6. 우리는 세계의 모든 국가들과의 상역의 자유를 믿으며, 모든 나라의 시민과 신민들에게 그들과 한국 국민들 간의 상업 및 공업을 증진할 공평한 기회와 보호를 허용할 것이다.

7. 우리는 다른 어떠한 정부 정책의 활동보다도 더 중요한 것으로서 민중의 교육을 믿는다.

8. 민중의 건강은 치자들이 첫째로 고려할 일의 하나로서 우리는 과학적인 감독하의 현대적인 건강 증진을 믿는다.

9. 우리는 자유로운 언론과 자유로운 출판을 신봉한다. 사실상 우리는 공평한 기회, 합리적인 경제정책, 세계 각국과의 자유로운 교역 등 전체 국민의 생활의 제한없는 발전을 위해 가장 유망한 여건을 형성시키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전적으로 따르고 있다.

10. 우리는 그와 같은 행위나 발언이 다른 민중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거나 또는 국가의 법률이나 이익에 저촉하지 않는 규정 안에서 온갖 일에 대한 행동의 자유를 신봉한다.

이를 보면 선생을 비롯한 당시 미주 한인대표들이 상정한



필라델피아 한인자유대회(1919)

독립국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우선 이들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를 모델로 하면서, 내각책임제적 요소를 가미한 국가체제의 건설을 지향하고 있었다. 이는 대통령 1인에 대한 권력 집중을 제도적으로 방지함은 물론 새로 건설될 독립정부에 각지 독립운동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특히 이들은 민중 주도의 민주주의를 제창하면서, 민중 교육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는 선생을 비롯한 재미 한인

동포들이 미국 민주주의를 실제로 경험하면서 그 토대로서 민중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던 탓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민족 실력양성을 위해서도 민중 교육을 매우 시급한 과제로 인식한 까닭이었다. 따라서 향후 선생이 고국에서 기업 경영과 더불어 교육사업에 온갖 정열을 쏟았던 이유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1926년 유한양행 설립하여 민족자본 형성에 기여

이후 선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미시간중양철도회사와 세계적인 전기회사인 제너럴 일렉트릭사(General Electric Company) 등에 취직하였다가, 1922년 대학 동창과 동업으로 숙주 나물 통조림을 생산하는 라초이식품회사(La Choy Food Product Inc)를 설립하였다. 이를 운영하여 어느 정도의 사업 자금이 마련되자 선생은 곧 귀국을 서둘렀다. 그리하여 선생은 미국의 사업체와 재산을 정리하고 귀국하여 1926년 12월 유한양행(柳韓洋行)을 설립, 경영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당초 민족의 실력양성과 경제적 자립을 염두에 두고 자신을 미국으로 유학 보냈던 부친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고, 동시에 선생이 품고 있던 민족적 대업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아울러 선생은 1928년 『한국에서의 소년시절(When I was a boy in Korea)』이라는 영문책자를 간행하여 미국인들에게 우리 나라의 문화와 풍물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유한양행의

사업을 다각화하여 의약품 생산과 함께 위생용품·농기구·염료 등을 수입하여 민중의 건강과 생활 향상에 진력하고, 우리나라의 특산품인 화문석·도자기·죽제품 등을 미국에 수출하여 민족자본 형성에 기여하였다.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해외한족대회 참여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 일제에 의해 만주침략(1931. 9)과 중일전쟁(1937. 7)이 도발되어 국내외 상황이 긴박하게 변화하여 갔다. 이에 따라 선생은 193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 체류하면서 수출선의 다변화를 위해 유럽 및 중국 시장개척에 노력하는 한편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리하여 선생은 1941년 4월 해외 독립운동단체들이 연합하여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한 ‘해외한족대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이 대회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지와 후원 아래 항일 독립전선에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광복대업을 축성하기 위한 대일 민족통일전선의 일환으로 구상된 것이었다.

여기에서 해외 독립운동단체 대표들은 ① 대한민족은 주의와 이론을 초월하고 온갖 역량을 항일전선에 집중할 것 ② 대한민족과 각 단체는 임시정부를 절대 신뢰하며 물질과 정신을 다하여 희생적으로 봉대할 것 ③ 해외 한족단체는 전체 동포에게 광복군 군인의 의무가 있는 것을 인식시키며 전선 출동의 훈련을 장려하기로 할 것 등을 결의하고, 그 통일조직으로 ‘재미한족연합위원회’를 창설하였다. 이때 선생은 이 위원



유일한 선생과 부인 호미리 여사(1928)

회의 집행부 위원에 선임되어 독립운동자금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인 국방 경위대로 창설된 맹호군 편성에 참여

1941년 12월 7일 일제의 진주만 폭격으로 태평양전쟁이 발

발하자 선생은 미군 전략정보처(OSS)의 한국 담당 고문으로 활약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소년병학교 출신으로 대일 무장 투쟁과 독립군 양성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던 선생은 재미 한족연합위원회 집행부가 한인 국방 경위대의 편성계획을 수립하자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였다. 그리하여 선생은 1942년 4월 로스앤젤레스에서 한인 국방 경위대로서 창설된 맹호군(猛虎軍) 편성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같은 해 8월 29일 LA시청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현기식(懸旗式)에 재미 한족연합위원회 집행부 위원장 김호(金乎)와 함께 참석하여 중경임시정부의 축사를 낭독하기도 하였다. 이는 비록 주정부에서나마 재미 한인동포들이 일본 국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민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감격의 순간이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결실이 있기까지는 선생의 보이지 않는 활동이 밑받침 되었음은 물론이다.

넵코작전이라 불리는 국내 침투작전에 참여

선생의 조국 광복에 대한 투철한 의지는 1945년 넵코작전 계획(Napko Project)의 참여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미군 전략정보처(OSS)에 의해 수립된 이 계획은 반일 민족 의식이 투철한 재미 한인을 선발하여 특수공작 훈련을 시킨 다음, 한국과 일본에 침투시켜 적 후방을 교란하는 작전이었다. 이같은 작전계획은 미주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 중경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산하 광복군을 이용하여 동시에 계획 진행되

고 있었던 것이다.

1945년 1월 선생은 이 작전계획의 핵심요원으로 선발되어 입대 훈련을 받고, 제1조 조장으로 임명되어 작전명령을 기다리던 중 일제의 항복으로 말미암아 실행되지 못하였다.

광복 이후 선생은 1946년 7월 미국에서 귀국한 뒤 유한양행을 재정비하여 사장과 회장,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 초대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민족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아울러 1952년 고려공과기술학교, 1964년 유한공업고등학교 등을 설립 운영하고, 개인 소유주식을 각종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등 자본의 사회 환원에도 힘썼다. 특히 1969년 기업의 제일선에서 은퇴하면서 혈연관계가 없는 전문경영인에게 경영권을 인계함으로써 전문경영인 시대의 서막을 열었는데, 이는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종업원 지주제를 실천했던 사실과 더불어 기업경영사의 미덕으로 남을 것이다. 선생은 1971년 3월 11일 76세로 운명하였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1992년 「이달의 獨立運動家」

月別	有功者名	敘 勳		主 要 功 績
		年度	勳 格	
1	金相玉	62	大 統 領 章	서울鍾路警察署 投彈
2	片康烈	62	大 統 領 章	義成團 團長
3	孫秉熙	62	大韓民國章	3·1運動 民族代表
4	尹奉吉	62	大韓民國章	虹口公園 爆彈 投擲
5	李相龍	62	獨 立 章	大韓民國 臨時政府 初代國務領
6	池青天	62	大 統 領 章	大韓光復軍 總司令官
7	李商在	62	大 統 領 章	新幹會 初代會長
8	徐 一	62	獨 立 章	大韓軍政署 總裁
9	申圭植	62	大 統 領 章	大韓民國 臨時政府 國務總理 代理 兼 外務總長
10	李奉昌	62	大 統 領 章	日王 誅殺 爆彈投擲
11	李會榮	62	獨 立 章	獨立軍基地 建設
12	羅錫疇	62	大 統 領 章	東洋拓殖(株) 投彈

1993년 「이달의 獨立運動家」

月別	有功者名	敘 勳		主 要 功 績
		年度	勳 格	
1	崔益鉉	62	大韓民國章	乙巳5賊 處斷 上疏 湖南義兵 指導者
2	曹晚植	70	大韓民國章	朝鮮物產獎勵運動 指導者 反託運動等 民族主義者
3	黃炳吉	63	獨 立 章	中國 東北地方 琿春市 3·1 運動 指導者
4	盧伯麟	62	大 統 領 章	大韓民國 臨時政府 軍務總長 國務總理
5	趙明河	63	獨 立 章	日國 王族 久邇宮 陸軍大將 刺擊
6	尹世胄	82	獨 立 章	朝鮮義烈團 및 義勇隊 組織 抗日武裝鬭爭
7	羅 喆	62	獨 立 章	五賊誅殺 活動 大儂教 創教
8	南慈賢	62	大 統 領 章	朝鮮總督 및 駐滿 日大使 誅殺計劃
9	李麟榮	62	大 統 領 章	義兵 元帥府 13道 總大將 各道義兵將 糾合 서울 進攻 시도
10	李章寧	63	獨 立 章	北路軍政署 參謀將 青山里戰爭 大勝 寄與
11	鄭寅普	90	獨 立 章	祕密結社 同濟社 加入 活動 國魂喚起運動 展開
12	吳東振	62	大韓民國章	光復軍總營 司令 高麗革命黨 組織, 服役中 殉國

1994년 「이달의 獨立運動家」

月別	有功者名	敘 勳		主 要 功 績
		年度	勳 格	
1	李源祿 (李陸史)	90	愛 國 章	大邱朝鮮銀行 投彈 民族詩人
2	林炳瓚	62	獨 立 章	乙巳勒結 反對, 義兵舉義
3	韓龍雲	62	大韓民國章	33人中 1人, 新幹會
4	梁起鐸	62	大 統 領 章	臨政 國務領, 正義府 代表 新民會
5	申八均	63	獨 立 章	大韓統義府 司令官
6	白貞基	63	獨 立 章	駐中 日國公使 誅殺
7	李 儁	62	大韓民國章	헤이그밀사(殉節)
8	梁世奉	62	獨 立 章	朝鮮革命軍 總司令官
9	安 武	80	獨 立 章	國民會軍 司令官
10	曹成煥	62	獨 立 章	臨政 軍務部長 大韓獨立軍團 副總裁
11	金學奎	62	獨 立 章	朝鮮革命黨軍司令府 參謀 光復軍 3支隊長
12	南宮憶	77	獨 立 章	大韓協會 會長

1995년 「이달의 獨立運動家」

月別	有功者名	敘 勳		主 要 功 績
		年度	勳 格	
1	金祉燮	62	大統領章	東京 二重橋 投彈(1924. 1. 5)
2	崔八鏞	62	獨 立 章	2·8獨立宣言 民族代表 (11人 中 1人)
3	李鍾一	62	大統領章	3·1獨立萬歲運動 民族代表 (33人 中 1人)
4	閔弼鎬	63	獨 立 章	臨時政府 議政院 議員 등 역임
5	李振武	62	獨 立 章	國內進攻作戰 전개 朝鮮革命軍 指揮官
6	張鎭弘	62	獨 立 章	朝鮮銀行 大邱支店에 投彈
7	全垂鏞	62	大統領章	湖南지역의 著名한 義兵將
8	金 九	62	大韓民國章	臨時政府 主席
9	車利錫	62	獨 立 章	臨時政府 國務委員 등 역임
10	李康季	62	大韓民國章	慶南北지방의 著名한 義兵將
11	李鎭龍	62	獨 立 章	黃海지역의 著名한 義兵將 滿洲지역 武裝抗戰
12	趙秉世	62	大韓民國章	乙巳條約 破棄上疏 自決殉國

1996년 「이달의 獨立運動家」

月別	有功者名	敘 勳		主 要 功 績
		年度	勳 格	
1	宋鍾翊	95	獨 立 章	興士團 理事副長 大韓人國民會 副議長
2	申采浩	62	大統領章	勸業新聞 主筆 義烈團의 朝鮮革命宣言 작성
3	申錫九	63	大統領章	3·1獨立萬歲運動 民族代表 (33人 中 1人)
4	徐載弼	77	大韓民國章	獨立新聞 창간 臨時政府 外交顧問
5	申翼熙	62	大韓民國章	臨時政府 法務總長
6	柳一韓	95	獨 立 章	필라델피아 韓人自由大會 決議 案 작성위원
7	金河洛	82	大統領章	경기도지역의 著名한 義兵將
8	朴尙鎭	63	獨 立 章	大韓光復會 總司令
9	洪 震	62	獨 立 章	臨時政府 法務總長, 國務領
10	鄭寅承	62	獨 立 章	한글학회, 큰사전 편찬
11	田明雲	62	大統領章	日帝 統監府 外交顧問 스티븐스 狙擊
12	鄭伊衡	63	獨 立 章	正義府 司令官 부관, 高麗革命黨 중앙위원

다시새기는그忠節

이탈의 獨立運動家 ⑨

1996년 8월 10일 인쇄

1996년 8월 15일 발행

발행 국가보훈처

인쇄사인코리아

독립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거 발행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15000-35840-37-9606

<비매품>

이 책자를 다같이 유독하여 애국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되새겨 보
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이 책자에 수록된 독립유공자에 대한 문외는 국가보훈처(자료관
리과)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2)780-9808